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NA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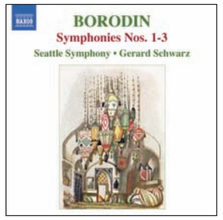
hot issue

클라라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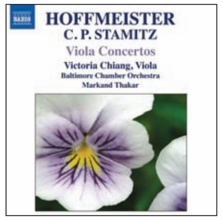
한국 현대 피아노 작품집
(박영희, 윤이상, 강석희, 최우정, 김정길)
클라라 민(민유경)(pf)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피아니스트 민유경이 한국 현대 음악계를 대표하는 다섯 작곡가들의 피아노 독주곡들을 녹음하였다. 윤이상의 5개의 연습곡과 간주곡 A, 재독 작곡가 박영희의 '파문', 전현직 서울대 음대 교수들인 강석희의 '피아노 스케치', 김정길의 '고풍' 중 '향합', '나막신', '옥비녀', 최우정의 전주곡 2,7,8번 등이 수록되었다.

8.572406



8.572786
보로딘:
교향곡 1-3번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8.572162
슈타미츠, 호프마이스터:
비올라협주곡
빅토리아 치앙(va)
마컨드 타카
볼티모어 챔버 오케스트라

8.572717
이리나 쿨리코바 기타 리사이틀
(JS 바흐, 소르,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가야르도 델 레이, 타레가)

8.572641
브라이언:
교향곡 20번, 25번, 옛 선율에 의한 환상변주곡
앤드류 페니
우크라이나 국립 교향악단

8.572554
인체:
교향곡 2번 '콘스탄티노플 함락', 피아노협주곡, 관현악협주곡 외
캄란 인체(pf, cond)
이신 메틴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333
디 비토리오:
교향곡 1,2번, 레스피기아나, 클라리넷협주곡 외
벤저민 베이런(cl)
살바토레 디 비토리오
뉴욕 레스피기 챔버 오케스트라

8.572623
마이야르:
히로시마에서의 생존, 합주협주곡, 실내협주곡
사라 주프르와(ms)
디오니시오스 데비스-부르니아스
로얄 필하모닉

8.572410
페라라:
프렐루디오, 비극적 환상곡, 폭풍의 밤, 부를레스카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8.572420
할프테르:
현악사중주, 첼로소나타, 3개의 악장, 오초 티엔토스
브레톤 현악사중주단
존 스톡스(va)
프란시스코 호세 세고비아(pf) 외

ACCENTUS MUSIC | ONDINE | TOCCATA CLASSICS

ACC30230 [2CDs]
말러: 교향곡 6번,
베베른: 파사칼리아, 변주곡
스트라빈스키: 교향시 '꾀꼬리의 노래'
피에르 불레즈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ODE1179-2
시벨리우스:
교향곡 2,5번
(피아노 독주 버전)
헨리 시그프리드손(pf)

TOCC0111
카르그-엘러트가 오르간을 위해 편곡한 바흐의 작품들
스베르커 율란데르(org)

8.559627
Breathing Lessons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미국 음악)
뉴 허드슨 색소폰 쿼텟

8.572688
블레이크: 현악트리오, Walking in the Air, A Month in the Country
에딘버러 쿼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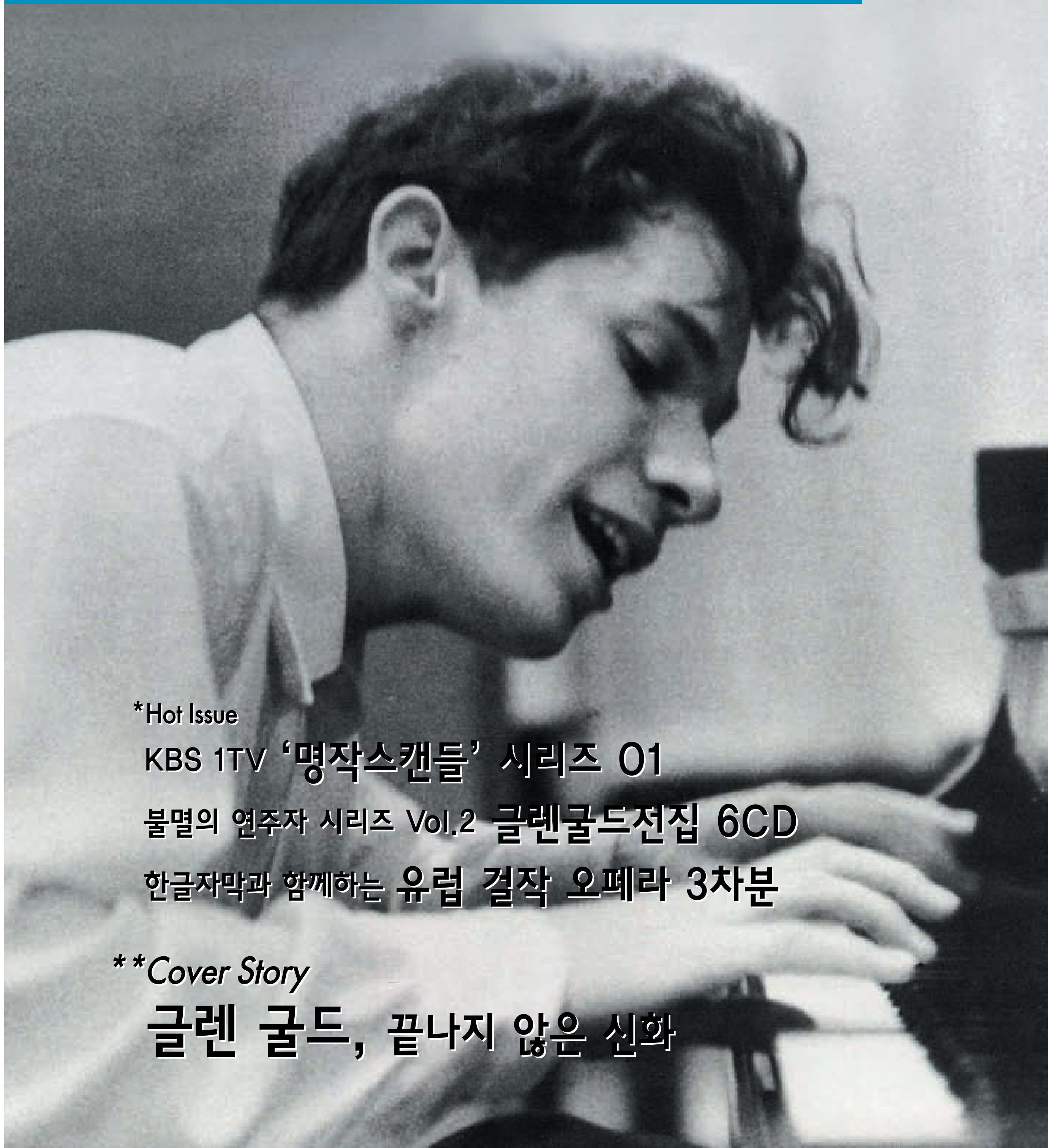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aulosmedia.co.kr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애반/ 풍월당/ 예전레코드/ 하이클래식/ GM뮤직(부산)/ 뮤직프라자(종로)

www.aulosmedia.co.kr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8, 49호 | July 2011



*Hot Issue

KBS 1TV '명작스캔들' 시리즈 01

불멸의 연주자 시리즈 Vol.2 글렌굴드전집 6CD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3차분

**Cover Story

글렌 굴드, 끝나지 않은 신화

고독한 천재의 영혼
글렌 굴드, 끝나지 않은 신화

이렇게까지 굴드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20세기 불멸의 피아니스트 중 한사람인 글렌 굴드의 감동적인 다큐 영상물이다. 캐나다의 한 가정에서 귀한 독자로 태어나, 평생 고독하게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치다 50세에 일찍 세상을 떠난 천재 음악가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과 사진, 집에서 연주한 음원과 일기들, 연인과 친구들에게 남긴 추억들이 낱낱이 열거된다.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가까워지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 그 놀라운 신화 뒤에 숨은 천재 예술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잘 조명했다. 지금까지 굴드의 영상물은 모두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이번 DVD 만큼 매혹적이고, 감동적이고 불멸의 느낌을 받았던 것은 없었다. 뛰어난 연출로 잔잔한 감동이 면면히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왕의 장례식 같았던 굴드의 1982년 가을 토론토 교회의 장례식 장면이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함께 기다란 감동을 정제시킨다.

- *최초로 공개되는 괴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학창시절, 연애이야기와 그가 남긴 연주의 비밀을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 *세심하게 번역된 한글자막 포함*
- *2009년 토론토 국제 영화제 공식 선정*
- *2010년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상영물*

고독한 천재의 특별한 삶과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세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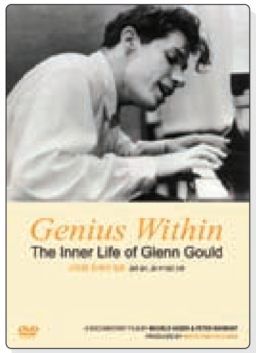
우리는 왜 글렌 굴드에 열광하는가? 구스타프 레온하르트는 굴드가 연주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해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일축했지만, 대가의 견해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굴드의 음악에 끊임없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그의 팬이 되고야 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아무리 고지식한 애호가라도 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굴드 연주의 독특한 매혹을 말하라면, 먼저 재기발랄하고 매우 탄력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타건 등이 먼저 열거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뛰어난 손가락 재능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음악이 들려주는 내면적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부터다. 글렌 굴드의 음악에는 음향적인 쾌감 외에 어떤 연주자의 연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상하고 시적인 기품과 아름다운 정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만약 글렌 굴드가 손가락 기술에 주력해 연주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와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수 십 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교를 앞세운 빼어난 연주자는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 대개 그에 대한 호감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요컨대 글렌 굴드는, 다른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탁월한 기교보다는 그 뒤의 엄청난 정신적 내용 때문에 높이 평가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성이란 계속 발전하여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질의 정화를 통해 무한히 순수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갈고 다듬어도 애초에 타고난 천부적 정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에디슨의 말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에 있어서 자기계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는 좋은 귀감이 된다. 하지만 그 고무적인 말에서조차도 1퍼센트 영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감은 발전시켜 나가서 성취되는 영역이 아니다. 영감이 천재성의 다른 표현이라면, 특히 정신적 생명을 다뤄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음악예술의 경우 영감 혹은 천재성은 아주 중요하다. 연마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술습득은 가능하겠지만, 그 기술로 빚어진 정신적 내용이란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의 그것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괴짜 같은 행동 혹은 연주방식, 잘 생겼지만 그 용모에서 풍겨 나오는 뭔가 기이한 분위기, 그것이 글렌 굴드의 외적인 모습이다. 괴짜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사람은, 정신적 내용이 담보되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물론 특별한 괴짜라도 이상하다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지만 천재들은 알고 보면 행동양식이 그럴 뿐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굴드의 얼굴이나 평소의 행동양식, 그리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괴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적 없고, 음악만을 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악에서 굴드의 얼굴을 연상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음악가의 얼굴과 그의 음악이 다르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굴드의 음악이 괴짜 이미지의 편린 정도도 떠올려지지 않을 만큼 지극히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본 영상물은 굴드의 삶을 다각도에서 확인하며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의 용모나 행동에서 풍기는 다소 이상한 이미지와 고상하고 고결한 영혼의 모습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 보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괴짜 천재라는 이미지 뒤에서 여전히 신비에 싸여있는 음악가로 분류되는 굴드의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과 사진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의 집에서 남긴 음원과 일기들, 연인과 친구들의 가슴속에서 숨 쉬는 추억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데, 우리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통해 글렌 굴드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괴짜였는지, 그의 음악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지 등등 글렌 굴드의 실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적, 정신적 모습을 통해 그의 온전한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의 내면적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그를 사랑했던 사람과 그의 많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관련 음악가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굴드는 고독한 천재였다. 어머니가 몇 번의 고통스런 유산을 겪고 간신히 얻은 신의 선물이 굴드였다. 형제가 없었던 그는 늘 단란한 가정의 형제들을 부러워했다. 어느 날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된 친구에게 형제가 되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굴드에게 깊은 연민까지 느끼게 된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기 싫어했고, 그의 친구는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었다. 하지만 그토록 외로운 삶속에서 굴드의 정신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극적인 향해를 거듭했고, 마침내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에 닿았다. 고독이 위대한 예술가의 전제조건이라고 단정하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겠지만, 고독하기 때문에 예술세계가 특별해진다는 견해도 많은 경우 유효하다. 굴드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정말 안티히어로(antihero)다. 그 대신 나는 꿈속에서 미친 듯이 그런 모습을 펼쳐놓는다." 사회인, 생활인으로서는 영웅이나 주인공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예술에 몰입할 때만은 자신이 전혀 딴 판이라는 얘기다. 피아노 건반 위에 한껏 웅크려 머리를 박고 연주하는 모습만을 보면, 그는 확실히 특이한 괴짜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를 겉데기만 보는 것이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응시했을 때, 완전히 도취된 그의 눈빛을 보았는가! 몸은 현실에 있지만, 정신은 어떤 황홀한 세계에 흠뻑 빠져 특별한 영혼과 만나고 있는 광경이 아니던가!



ADVD-022

글/ 이 성 일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3차분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오페라 팬들의 안목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더불어 국내 오페라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시리즈의 3차 발매분으로 선택된 5종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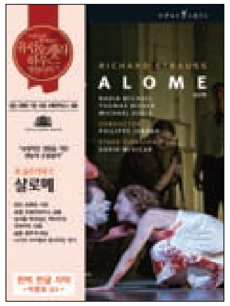
타이틀별 해설자료 [3차분 : 5타이틀 제작]

ADVD-023

“환상의 나라를 찾아 떠나는 음악과 무용의 향연”
11.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 실황**
- **바로크 음악 최고의 대가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대와 발레의 아름다움**

[줄거리] 헤베와 그의 친구들은 큐피드를 찬양한다. 그러자 그것은 벨로네에 의해서 중단된다. 벨로네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젊은 청년들을 사랑의 싸움에 가담하도록 불러 모은다. 젊은이들은 큐피드에 의해 구조된다. 그리고 그들은 먼 나라로 피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떠나는 모험이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의 이야기다. 이제 그들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겪는 모험담들이 각기 네 개의 막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 나라들이 차례로 터키, 페루, 페르시아, 아마존이다. 각 나라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모험의 내용이 아름다운 음악과 더욱 현란한 발레로 이어진다. 각 막마다 독립된 내용과 미술을 보여주는 오페라 발레의 최대 걸작이다.


ADVD-024

“숙명적인 결말을 가진 관능의 소용돌이”
12. R.슈트라우스/ 살로메

-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
- **상식을 뛰어넘는 맥비카의 천재적인 연출**
- **숨을 멈추게 하는 나디아 미카엘의 충격적인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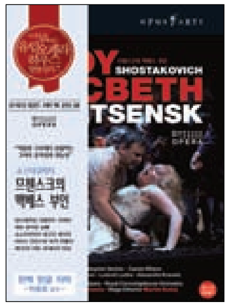
[줄거리]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비인 헤로디아스가 이전의 선왕과의 사이에 낳은 딸이다. 살로메는 궁정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 살로메는 비록 어린 소녀지만 빼어난 미모와 매력을 보인다. 양아버지인 헤롯 조차도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 헤롯의 느끼한 시선을 피해서 정원에 나온 살로메는 감옥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에 끌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투옥된 예언자 요하난이다. 요하난에게 호기심이 생긴 살로메는 요하난을 감옥에서 꺼내고, 그를 본 살로메는 그의 남성적인 미모와 매력에 매료당한다. 그녀는 요하난에게 접근하지만, 그는 그녀를 외면한다. 이때 헤롯이 살로메에게 춤을 부탁한다. 그녀는 춤을 추고 그 대가로 대신 요하난의 목을 요구하는데......

ADVD-025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짊어지는 끝없는 고통”
13. 베르디/ 돈 카를로

-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오페라 헤트 음악당 실황**
- **우리시대 최고 인기 연출가 빌리 데커의 명쾌한 연출과 무대**
- **롤란도 비야손의 열연**

[줄거리] 스페인 왕 필리포 2세에게는 전 왕비와의 사이에 낳은 카를로 왕자가 있었다. 카를로는 프랑스 공주인 엘리자베타와 약혼한 사이이며, 둘은 사랑하고 있다. 엘리자베타는 스페인으로 시집을 오는데, 신랑이 카를로가 아닌 필리포 왕이었다. 카를로는 사랑하던 약혼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때부터 왕궁에는 한 순간도 슬픔과 고통이 가실 날이 없게 된다. 카를로 왕자는 새 어머니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고, 엘리자베타도 항상 슬픈 표정으로 살아간다. 필리포 왕은 젊은 부인을 얻은 대신 끊임없이 부인을 의심해야만하고, 아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여기에 카를로의 친구이자 동시에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로드리고가 등장하여, 드라마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ADVD-026

“억압과 구속에서 분출하는 그녀의 공격성과 관능성”
14. 쇼스타코비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오페라 헤트 음악당 실황**
- **쇼스타코비치 최고의 해석자 마리스 얀손스와 파격 연출의 제1인자 마틴 쿠세이의 만남**

[줄거리] 부유한 상인의 며느리로 들어온 카테리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없어, 부부의 지루함과 시아버지의 감시로 결혼 생활에 염증을 낸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그녀는 젊은 하인 세르게이의 유혹에 넘어 간다. 그녀의 외도를 시아버지가 눈치를 채자, 카테리나는 쥐약을 먹여서 시아버지를 살해한다. 그리고 두 남녀는 노골적으로 관계를 계속한다. 이에 남편이 갑자기 귀가하자, 당황한 남녀는 또다시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숨긴다. 더 이상의 방해가 없어진 두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지만, 남편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들은 체포된다. 두 사람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데, 유형을 가는 동안에도 세르게이는 젊은 여자에게 한눈을 판다. 격분하고 실망한 카테리나는 그 여성과 함께 강물로 뛰어드는데.....

ADVD-027

“11명의 인간군상이 드러내는 인간본성의 진열장”
15.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
- **안나 네트렙코의 남편 어윈 쉬로트의 놀라운 매력**
- **미아 페르손의 매혹 맥비카의 연출**

[줄거리] 알마비바 백작 저택에서 이 집의 하인인 피가로와 하녀인 수잔나가 결혼식을 올리는 당일 아침이다. 피가로는 백작이 호의로 내어준 신방을 둘러보면서 침대를 들여놓을 궁리로 신이 난다. 하지만 그런 피가로를 보는 수잔나의 기분은 좋지 않다. 그녀는 이렇게 백작의 방 가까이에 방을 준 것은 백작의 엉큼한 속셈이라며 이른다. 이에 화가 난 피가로는 백작과의 일전을 준비한다.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하는 수잔나, 피가로, 그리고 백작부인의 세 명이 한편이 되어 결혼을 추진하고 백작의 흉계를 타도한다. 다른 한 편으로 결혼을 방해하는 편에는 백작과 돈 바르톨로, 마르첼리나, 돈 바질리오 등이 포진하여 저택의 11명의 식구들이 얽히고설키는 소동을 이끌어 간다.

글렌 굴드 애호가들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음반

이 한장의 명반 저자 안 동림 교수가 추천하는 불멸의 연주자 시리즈 VOL.2 [글렌 굴드, 그 젊은 날의 초상]

글렌 굴드가 라이브 무대를 떠나기 전 미국과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가진 연주회 실황들을 6장의 CD로 담아낸 희귀 전집물. 어딘지 매너리즘적인 그의 스튜디오 레코딩과는 달리, 순간에의 몰입과 연주자들과의 순발력 높은 호흡을 통해 음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려내는 굴드의 보기 드문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최초로 공개되는 음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라이브 음원 없이 굴드의 음악세계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AMC2-123 **[6CD를 1장 가격에]**

✲ BBC 뮤직 매거진 별 다섯 만점
✲ 1951년부터 1960년까지 글렌 굴드의 희귀 라이브 레코딩 세계 최초 공개(5시간분량)
✲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등 수록
✲ 베토벤, 브람스, 베버, 쇤베르크의 피아노 협주곡 최초 공개
✲ 숀스키, 로제와 함께 한 희귀한 실내악 레코딩 포함
✲ 굴드 전기작가인 케빈 바차나가 쓴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프리뷰와 리서치 수록

글렌 굴드는 길지 않은 삶 동안 음악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풍운아적 존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관습적인 것에서 벗어난 관점은 그의 음악을 향한 탐구가적인 순수한 기질을 잠식해 들어가 일종의 음악적 기인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분명 가십거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자 했던 언론의 힘이 컸으며, 그렇게 그는 전통적인 것을 반대하는 혁명가, 아니 우리 시대의 그로테스크한 켄타우로스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음반(그가 생각했던 절대적인 음악 향유의 공간)을 들어본다면 그가 피아노 음악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또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남긴 방대한 바흐 레코딩에서 나타나는 바로크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터치, 즉 '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굴드가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를 그의 연습을 담은 영상물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음이라도 깊이와 강도, 색채에 있어서 변화무쌍한 톤을 구사하고자 하는 그의 톤에 대한 천착은 곧 피아노 음향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인 명제에 귀결된다. 특히 바로크 음악에서의 하프시코드를 연상시키는 건조한 듯 짧은 금속성 터치와는 전혀 다르게 풍부한 소노리티와 다채로운 온도감을 자아내는 시벨리우스나 그리그의 피아노 솔로 작품, 무엇보다도 그의 백조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R.슈트라우스의 피아노 소나타와 다섯 개의 피아노 작품 Op.3 레코딩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그의 탐미주의적, 결벽주의적 성향은 보편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피아노 음향에 그가 얼마나 집착했는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R.슈트라우스의 피아노 소나타 연주는 야샤 하이페츠가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재발견한 업적에 비견할 만하다).

~ 글렌 굴드 6CD Booklet 참고

글/ 박 제 성 (음악칼럼니스트)

[CD]

[SACD]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년의 소리! 서라운드 SACD로 듣는 [송광사 새벽예불] Echoes of the great pines

"폭포수 같은 새벽예불 소리의 감동!" *–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환상적인 소리! Sounds Fantastic" *– 그래미 최우수녹음기술상 수상 엔지니어 존 뉴턴*

한국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승보 종찰(僧寶宗刹)송광사의 새벽 예불을 국내 최초로 DSD 5.0 채널 서라운드 방식으로 현장에서 녹음한 음반

〈echoes of the great pines〉를 제작한 〈31번지 프로덕션〉은, 평소 우리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 사진가 배병우 등 문화계 여러 인사들과 우리 전통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는 믿음을 가진 사운드미러 코리아 황병준 대표와의 만남에서 태어났다. 〈echoes〉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모였던 장소가 북촌 31번지였던 연고로 〈31번지〉가 되었는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의 삼일운동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기도 하다고. 〈echoes of the great pines〉는 여러가지로 뜻 깊은 음반이다. 예불을 담은 음반은 여러 종이 나와 있고, 소리가 뛰어난 것으로 이름 높은 송광사의 예불도 이미 두 차례나 음반에 담겨진 바 있다. 그럼에도 새롭게 출시되는 이 음반이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 음질이다. 일반적인 음악 CD 제작을 위한 녹음은 보통 PCM (pulse code modul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echoes〉는 보다 진보된 DSD 방식으로 녹음되었다. PCM 방식과 비교할 때 DSD 방식은 네 배가 넘는 양의 정보를 기록하며, 샘플링 주파수는 64배에 이른다. 신호 처리 과정에서의 손실 역시 훨씬 적어서, 한마디로 월등한 음질을 들려주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 DSD 방식으로 제작된 디스크는 SACD (Super Audio CD)라고 불리우는데, SACD는 해외에서 클래식 음악 음반을 고품질로 제작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작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SACD의 또 한가지 장점은 일반 CD에서 보통 사용되는 2채널 스테레오 외에도 멀티 채널을 통해 더욱 입체감 있는 음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choes〉 역시 멀티 채널 포맷을 사용하였는데, 5.0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뿜어내는 다섯개의 스피커의 중앙에 자리잡고 눈을 감으면 마치 예불의 현장 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이 음반의 녹음을 담당한 사운드미러 코리아의 황병준 대표는 2008년 그래미 최우수 녹음기술상을 수상한 그레차니노프의 합창 음악 〈수난 주간〉의 녹음에 참여했던, 국내 최고의 레코딩 엔지니어 중 한명이다. 황병준 대표는 이 녹음을 위해 세 번이나 송광사를 방문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 작년 11월에 두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3박 4일 간 송광사에서 새벽 3시에 시작되는 새벽 예불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했다. 그 중에서 최선의 소리를 골라내기 위한 편집 과정을 거쳤고, SACD 마스터링과 어서링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황 대표가 미국까지 날아가 보스턴에 위치한 사운드미러 본사에서 작업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나온 〈echoes〉의 소리에 대해, 사운드미러의 대표이며 수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세계 정상급의 레코딩 엔지니어인 존 뉴튼John Newton은 "환상적이다! Sounds fantastic!"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풍요한 물질문명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지난 세기말 이후로 영성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참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명상에 빠져들고, 요가를 수련하고, 혹은 주말에 가까운 산사를 찾는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숨 가쁜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쉼을 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인기다. 만약 당장 사찰을 찾기는 여의치 않다면, 대신 CD 플레이어에 〈echoes of the great pines〉를 올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 새벽 산사의 예불 소리를 당신의 거실로, 당신의 차 안으로 옮겨다줄 것이다. 범종과 법고 소리 뒤로 간간히 들리는 듯 마는 듯한 시냇물과 바람 소리마저도 은은히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악 소리처럼 들린다. 만물을 깨우는 이른 새벽의 예불 소리에 잠길 때, 〈echoes〉에 실린 음반 해설처럼, 열반이 가까이 있음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KBS 1TV 명작스캔들팀과 아울로스가 함께 만든 [명작스캔들 시리즈 01]

엉뚱 · 발랄 · 유쾌한 문화예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명작 스캔들 : KBS 1 TV 매주 화요일 밤 11시 40분]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명작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어, 우리시대 최고의 입담꾼들이 맛있게 요리하는 문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문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근엄함을 벗고 유쾌하면서도 발칙한 옷을 입은 [명작스캔들]에서 소개되는 클래식음악(CD)과 그 음악의 숨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DVD로 꾸며져 있는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진다.

스캔들을 즐기면 명작이 보인다

한 글자 오독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린 곡, 긴 우울증을 극복하고 써내려간 곡,
사랑하는 여인, 그리운 조국에 대한 마음을 담아 완성시킨 곡...
세상에 명작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작품에는 한 인간의 사랑, 그리움, 아픔 또 결핍이 녹아있다.
결국 오늘날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인간적인 욕구가 예술로 승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명작 속에 숨겨진 스캔들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살롱, 카페문화가 발달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문화예술을 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단다.
아쉽게도 우리에겐 아직도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 듯하다.
KBS 〈명작스캔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나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예술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 일인지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자, 다시 '명작'이라 불리는 곡들을 찬찬히 들어보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작곡가들의 인간적인 '스캔들'과 교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명작스캔들 MC : 최원정 아나운서

최원정
아나운서

AMC2-122 **[CD+DVD]**
명작스캔들 시리즈 01

[CD]

01 멘델스존: 무언가 No.30, A장조 Op.62/6 '봄노래'
02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Op.18 1악장 모데라토
03 슈베르트 : 마왕 Op.1
04 알비노니: 아다지오 g단조
05 쇼팽: 연습곡 E장조 Op.10, No.3 'Tristesse'
06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07 에릭 사티: 짐노페디 No.3
08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No.13 '백조'
09 로시니: 세비야 이발사 서곡
10 브람스: 현악6중주 제2번 G장조 Op.36 1악장
11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12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중 1악장 (꿈-열정)

[DVD]

01 멘델스존의 뒤에는 '대필 작곡가'가 있었다?
02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은 최면요법으로 탄생됐다?
03 슈베르트의 〈마왕〉은 슈베르트의 작품이 아니다?
04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알비노니 작품이 아니다?
05 쇼팽의 연습곡 〈이별의 곡〉은 "애국"을 노래한 곡이다?
06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탈리아 독립 운동가였다?
07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는 최초의 BGM이다?
08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만 출판된 이유는 악플러 때문이다?
09 〈세비야 이발사〉 서곡은 재활용 곡이다?
10 브람스의 〈현악 6중주곡 제2번〉에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
11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엘리제를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니다?
12 〈환상교향곡〉을 작곡한 베를리오즈는 피아노를 못 쳤다?

김정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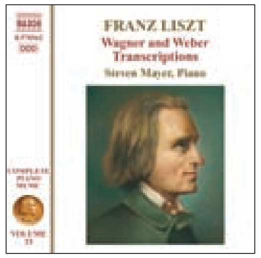
조영남
가수

Naxos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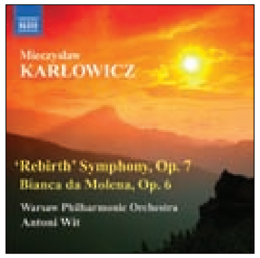
8.572653
러터:
글로리아, 마그니피카트, 테 데움
앤드류 루카스/ 세인트 올번즈 대성당 합창단

존 러터의 간결하고도 감미로운 종교합창곡들은 우리의 감성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국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던 레퀴엠과 어린이를 위한 미사에 이어서 그의 또 다른 대표 종교합창곡들인 글로리아, 마니피카트, 테 데움을 함께 수록한 신보가 등장하였다. 5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세인트 올번즈 대성당 합창단의 투명한 앙상블이 러터 음악의 정결한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8.570562
리스트:
바그너-베버 관현악 편곡들
스티븐 마이어(pf)

리스트의 탄생 100주년에 맞춰 등장한 낙소스 리스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의 33번째 음반. 자신의 친구이자 사위였던 바그너의 대표 선율들인 '탄호이저' 중의 서곡과 '저녁별의 노래', '축전 행진곡' '라인의 황금' 중의 '신들의 발할라 입장' 그리고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을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한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8.572487
카를워비치:
교향곡 '부활', 흰 비둘기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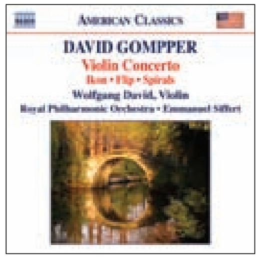
스키 사고로 요절한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크릉워비치의 비범한 음악세계가 최근들어 새롭게 재평가 되고 있다. '부활'이라는 부제의 교향곡은 합창이 배제된 순수 관현악 작품이지만, 말러의 동명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운명에 맞서서 승리하는 영적인 투쟁을 장엄한 음악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화려한 프롤로그와 고요한 간주곡으로 구성된 '흰 비둘기'는 동명의 연극을 위한 극부수 음악이다.

8.572295
나르부타이테:
성모의 세 교향곡
카우나스 국립합창단 외/ 로베르타스 세르베니카스/ 리투아니아 국립 교향악단

오누테 나르부타이테는 신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통해 감성지향적인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여류 작곡가다. 성모의 세 교향곡은 오라토리오 형식을 빌린 교향곡으로 수태고지, 성탄, 십자가형을 모토로 하는 세 악장을 아베 마리아, 글로리아, 스타바트 마테르의 전통 라틴 텍스트를 빌려서 표현하였고,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텍스트 '오 빛나는 성모여'에 곡을 붙인 오라티오로 전곡이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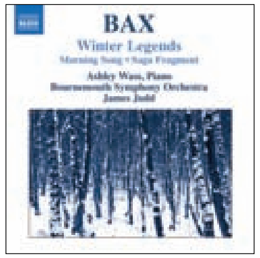
8.570705
얼윈:
바이올린협주곡, 미스 줄리 모음곡 외
로레인 매카슬랜(vn)/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얼윈의 바이올린협주곡은 그가 남긴 여섯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걸작으로 로맨틱한 서정과 랩소디 풍의 자유분방한 기운을 머금은 화려한 작품이다. 그가 완성한 마지막 오페라인 '미스 줄리'에서 발췌한 연주회용 관현악 모음곡과 타악기 연주자 제임스 블레이드를 추모하는 작품인 '즐거운 순간을 위한 팡파르'가 함께 수록되었다. 영국 바이올린계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는 로레인 매카슬랜이 독주를 맡았다.



8.559637
감퍼:
바이올린협주곡, 아이콘, 스피랄스 외
볼프강 다비트(vn)/ 엠마누엘 지페르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감퍼는 현재 아이오와 대학교의 작곡과 교수로 후진들을 양성중이며, 작곡가는 물론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작품인 바이올린협주곡은 본 음반에서 독주를 담당한 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다비트를 위해 완성한 전통적인 3악장 구조의 작품으로,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를 위한 'Echo'라는 작품을 오케스트레이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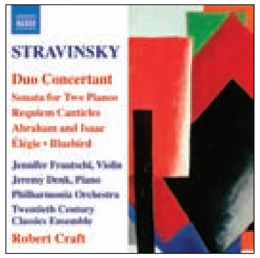


8.572597
백스:
겨울 전설, 아침노래, 사가 단편
애슐리 워스(pf)/ 제임스 저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백스는 양대 세계 대전 사이의 영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은 풍부한 선율미와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한다. 본 음반에는 북구의 겨울의 스산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한 '겨울 전설', 엘리자베스 2세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작품인 '아침 노래', 자신의 피아노 사중주를 편곡한 '사가 단편' 등의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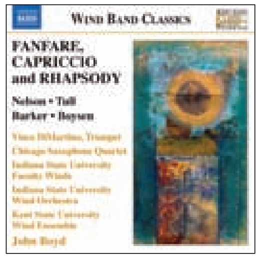
8.572222
푹스:
세레나데 1,2번, 안단테 그라치오소와 카프리치오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로베르트 푹스는 브람스의 격찬을 받았던 작곡가이자, 에네스쿠, 말러, 볼프, 시벨리우스, 체믈린스키, 코른골트 등을 가르쳤던 뛰어난 음악교사였다. 현악합주를 위한 그의 세레나데들은 브람스의 전통을 계승한 전형적인 후기 낭만주의의 감성을 머금은 서정적인 작품들이다. 헬무트 뮐러-브륄의 후임으로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맡은 독일의 젊은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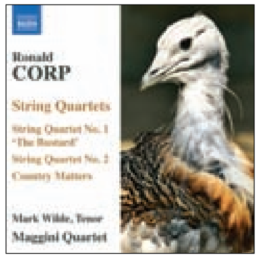
8.557532
스트라빈스키:
듀오 콘체르탄테, 레퀴엠 칸티클 외
용재 오닐(va) 외/ 로버트 크래프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전통적인 라틴 전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레퀴엠 칸티클',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발라드 '아브라함과 이삭',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중 파랑새의 파드듀의 챔버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리처드 용재 오닐이 연주한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엘레지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스트라빈스키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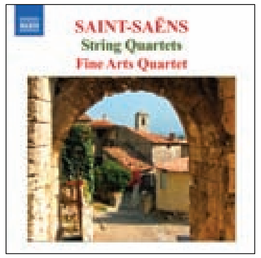
8.572528
넬슨:
중세 모음곡, 보이즌: 관악 교향곡 1번 외
존 보이드/ 인디애나 주립 대학 윈드 밴드, 켄트 대학교 윈드 밴드

론 넬슨의 '중세 모음곡'은 중세의 대표 작곡가들인 레오넹, 페르탱, 마쇼에 대한 세 편의 오마주들로 구성된 작품이며, 피셔 툴의 '튜더 시편에 대한 스케치'는 본 윌리엄스의 유명한 판타지와 동일한 토마스 탈리스의 선율에 기초한 작품이다. 그와 더불어 샤콘느 양식의 중간 악장이 인상적인 보이즌의 관악 교향곡 1번 등의 다양한 브라스 앙상블용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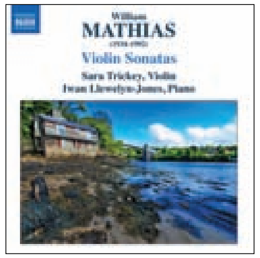
8.572578
코프:
현악사중주 1번 '능에',현악사중주 2번, Country Matters
마크 와일드(te)/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합창전문지휘자로 활약 중인 로날드 코프는 작곡가로서도 합창과 실내악 분야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을 창작해오고 있다. 현악사중주 1번은 대형조류 능에의 비행모습과 춤추는 듯한 걸음거리에서 창작 모티프를 취한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며, 현악사중주 2번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쁨에 넘친 작품이다. 현악사중주 반부의 테너 독창곡인 'Country Matters'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454
생상:
현악사중주 1,2번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하이든과 베토벤에 의해 현악사중주가 실내악을 대표하는 장르로 정착하였지만, 프랑스 음악의 경우에는 이 장르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을 보인 작곡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생상의 두 현악사중주는 드뷔시 이전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장 돋보이는 이 장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네 악기 사이의 균형잡힌 밸런스를 통한 폴리포닉한 구성과 세련된 화성법이 돋보이는 수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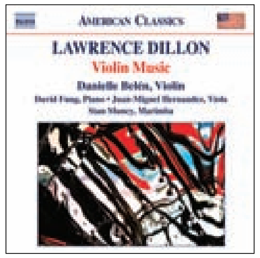


8.572292
마티아스:
바이올린소나타 1,2번 외
사라 트릭키(vn)/ 이완 레웰린-존스(pf)

웨일즈 출신의 작곡가 윌리엄 마티아스의 바이올린소나타들은 감성적이고도 붙임성이 좋은 그의 음악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소나타 1번은 간결함과 투명성의 모델과도 같은 작품인 반면, 자신의 5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작품인 소나타 2번은 각기 뚜렷히 대비되는 특징을 가진 초절기교적인 4개의 악장들로 구성되었다. 학습시절인 1959년에 완성한 바이올린소나타는 미출판되었던 작품으로,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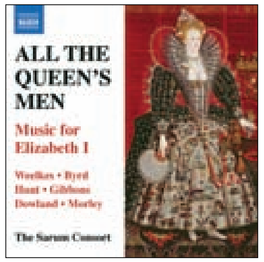
8.572704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카렐리아 모음곡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지휘자 피에타리 인키넨과 뉴질랜드 심포니가 진행 중인 시벨리우스 교향곡 시리즈의 제 3탄. 각각 작곡가의 교향곡과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인기작들인 교향곡 2번과 카렐리아 모음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교향곡 2번의 신비롭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해가는 젊은 지휘자의 놀라운 감성이 돋보인다.



8.559644
딜런:
바이올린소나타, 15분, 파샤드 외
다니엘레 벨렌(vn)/ 데이비드 펑(pf) 외

로렌스 딜런은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중이다. 바이올린소나타는 플루트소나타로 완성된 작품을 본 음반의 연주자이자 2008년 스핑크스 콩쿠르 우승자인 다니엘레 벨렌을 위해 바이올린 용으로 개작한 것으로, 'Motion'이라는 제목 그대로 다양한 리듬 조합을 통한 역동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바이올린과 마림바를 위한 'Spring Passing',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5분'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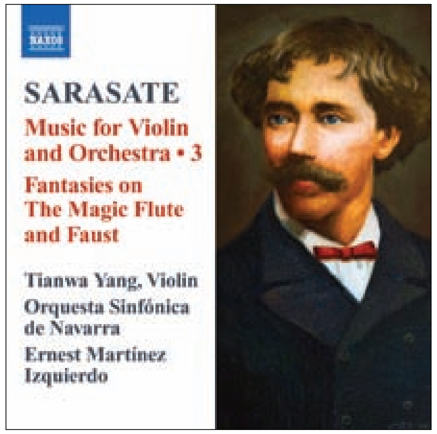


8.572582
All The Queen's Men
(엘리자베트 1세 시대의 음악들)
더 세이럼 콘소트

엘리자베스 1세의 집권기는 정치적으로 영국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였다. 본 음반에는 당시 활약했던 음악가들인 다울랜드, 윌크스, 버드, 기븐즈, 윌비, 톰킨스 등의 아름다운 종교합창곡들과 세속 성악곡들, 그리고 류트 독주곡들이 망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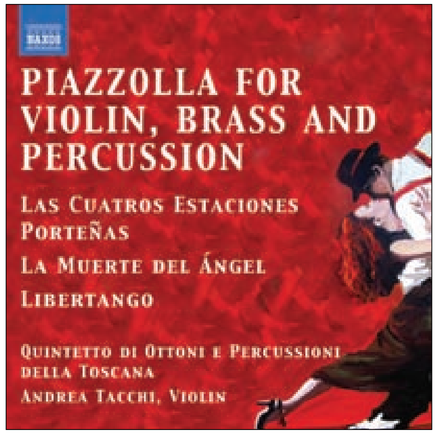
8.572396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 교향곡 3번
바실리 페트렌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얄 필하모닉이 진행 중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음반. 교향곡 1번은 십대 후반에 완성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웅대한 스케일 속에 이 천재 작곡가의 놀라운 재능을 유감없이 담겨 있는 작품이며, '5월 1일'이라는 부제의 교향곡 3번은 혁명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합창으로 마무리되는 칸타타 풍의 작품이다.



8.572275
사라사테:
콘체르토 판타지 '마술피리', '파우스트' 판타지 외
티안와 양(vn)/ 에르네스트 마르티네스-이스퀴에르도/ 나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가니니 이후 서양 음악사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꼽히는 파블로 사라사테는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콘서트용 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친근한 선율에 의한 연주회용 판타지와 구노의 '파우스트'에 의한 판타지, '베네치아의 뱃노래'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버전, 서주와 카프리스-호타 등이 수록되었다.



8.572611
피아졸라:
바이올린과 브라스, 타악기를 위한 탱고
안드레아 타키(vn)/ 토스카나 브라스 & 퍼커션 퀸텟

피아졸라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안드레아 타키와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토스카나 관악 & 타악 오중주단이 피아졸라의 대표 탱고 걸작들을 독특한 편곡을 통해 연주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오블리비옹', '리베르탱고', '탱고의 역사', '천사의 죽음', '메디탱고', '아베마리아', '노비탱고', '트리스탱고', '비올렌탱고' 등을 수록.

8.559683
타악기를 위한 미국 현대음악
(타워, 샌들러, 힉던 외)
프랭크 엡스테인, 군터 슐러/ 뉴잉글랜드 음악원 타악기 앙상블

존 타워의 'DNA'는 다양하게 짝지워진 타악기조합을 통해 DNA의 이중 나선구조를 표현한 작품이며, 샌들러의 'Pulling Radishes'는 에도 시대의 일본 전통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여섯 주자가 연주하는 3대의 마림바를 위한 작품인 힉던의 'Splendid Wood', 죽은 이를 기리는 멕시코 전통 명절을 소재로 한 RX 로드리게스의 'El dia de los muertos'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519–20
베토벤과 그의 스승들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
컬랜 브라이언트 & 드미트리 라흐마니노프(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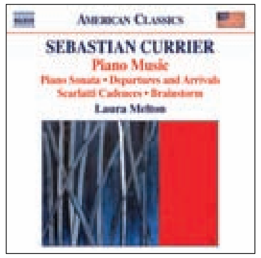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두 대의 히스토릭 피아노를 사용하여 베토벤과 그의 스승들이 남긴 피아노 연탄곡들을 연주한 음반이다. 베토벤 자신이 편곡한 대푸가를 비롯, 발트슈타인 백작 주제의 변주곡, 3개의 행진곡, 소나타 Op.6,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 '스승과 제자' 크리스티안 네페의 '마술피리'에 의한 여섯 소품, 요한 알브레흐츠베르거의 전주곡과 푸가 등이 수록되었다.

8.572643–45 **[3CDs]**
엘가:
바이올린 작품집 (협주곡, 소나타, 사랑의 인사 외 소품들)
마라트 비센갈리에프(vn)/ 벤저민 프리스(pf)/ 분디트 웅그랑제/ 서 카자흐 필하모닉

카자흐의 국보급 바이올리니스트인 마라트 비젠갈리에프가 엘가가 남긴 바이올린을 위한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3장의 음반에 갈무리하였다. 유명한 협주곡과 현을 위한 세레나데 외에도 '사랑의 인사', '아침의 노래', '밤의 노래'를 위시한 아름다운 선율미의 소품들, 그리고 숨겨진 명곡인 바이올린소나타 등에서 이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와 풍부한 표현력이 빛난다.

8.572583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교향곡, 봄, 흑과 백, 작은 모음곡
윤 매르클/ 리옹 국립교향악단

애호가들의 호평 속에 윤 매르클과 리옹 국립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 드뷔시 관현악 시리즈의 6탄. 작곡가를 대표하는 피아노 명곡인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을 지휘자 앙드레 카플레가 관현악을 위해 편곡한 버전을 비롯하여, 작은 모음곡, 봄, 백과 흑 등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의 관현악편곡 그리고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던 작곡가의 유일한 교향곡을 미국 지휘자 토니 피노가 마무리한 버전을 함께 담았다.



8.559638
커리어:
피아노소나타, 출발과 도착, 스카를라티 종지 외
로라 멜턴(pf)

세바스찬 커리어는 2007년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진은숙도 바이올린협주곡으로 2004년에 이 상을 수상했다.)을 수상함으로써 미국 음악계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작곡가다. 본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작품들은 이 작곡가의 서정적이면서도 색채적인 음악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힌데미트의 영향을 받은 피아노소나타, 제목 그대로 스카를라티 스타일에 기초한 Scarlatti Cadences 등을 수록하였다.

8.572218
러시아 5인조의 가곡들
미하일 스베틀로프(bass)/ 파플리나 도코프스카(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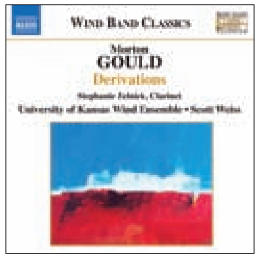
가곡 분야에서 러시아 5인조의 다섯 작곡가들을 비교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음반. 무소륵스키의 대표 가곡인 '죽음의 춤과 노래'의 일부를 비롯하여 큐이, 림스키코르사코프, 발라키레프, 보로딘의 향토색 풍부한 가곡들을 비오티 콩쿠르 우승자이자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간판 스타로 활약 중인 러시아 출신 베이스 미하일 스베틀로프의 중후한 저음으로 만날 수 있다.

8.572372
히나스테라: 첼로협주곡 1,2번
마크 코소워(vc)/ 로타르 자그로섹/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라질의 빌라로보스, 멕시코의 차베스 등과 더불어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아르헨티나의 히나스테라가 남긴 두 편의 첼로협주곡을 현재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활동 중인 미국의 첼리스트 마크 코소워가 연주한 음반. 다양한 타악기들을 활용하여 화려한 색채감을 보여주는 1번과 아르헨티나 민속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2번 모두 놓칠 수 없는 걸작들이다.

8.572027
코른골트: 가곡집
브리타 슈톨마이스터(sop)/ 우베 쉔커-프리무스(br)/ 클라우스 지몬(pf)
미국 망명 이후의 코른골트는 일개 헐리우드 영화음악 작곡가로 전전하고 말았지만, 빈에서 활동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는 모차르트에 비견되는 천부적인 재능의 신동 음악가이자 후기 낭만음악 사조의 대미를 책임질 작곡가로 기대를 모았었다. 본 음반에는 볼프나 슈트라우스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였던 초기의 리트들과 더불어 보다 대중지향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미국 망명 이후의 가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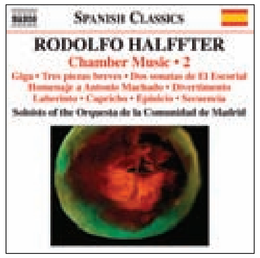
8.572128
하이든: 작은 오르간 미사, 테레지아 미사
트리니티 합창단/ J 오웬 버딕, 제인 글로버/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하이든이 만년에 에스테르하지 궁정을 위해 완성한 6대 미사 중 네 번째 작품인 '테레지아 미사'는 제목 그대로 마지막 신성로마황제 프란츠 2세의 황비인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해 완성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황비가 직접 소프라노 솔로를 맡기도 했다. '작은 오르간 미사'라는 별칭의 미사 브레비스는 베네딕투스 악장을 리드하는 오르간 독주로 인해 이와 같은 제목이 붙은 작품이다.

8.572650
로센:
패스트 퓨쳐 (헤비메탈에서 교향악단까지)
마그누스 로센(elec-bass)/ 다비드 비외륵만/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헤비메탈과 클래식을 결합한 독특한 크로스오버 앨범. 스웨덴의 정상급 파워메탈 그룹 HammerFall의 베이스 연주자였던 마그누스 로센과 스웨덴을 대표하는 일급 오케스트라인 예테보리 심포니의 협연 음반으로, 일렉트릭 베이스를 위한 일종의 협주곡 스타일의 작품들로 자신의 자작곡 외에도 지미 핸드릭스의 고전 'Purple Haze'의 리메이크와 바흐의 관현악모음곡 중 '바디네리'의 편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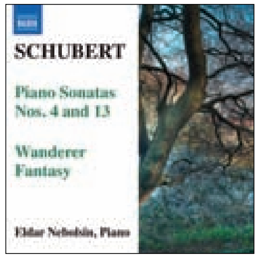
8.572629
모튼 굴드:
교향곡 4번 '웨스트 포인트', 제리코 랩소디 외
스캇 웨이스/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 윈드 앙상블
모튼 굴드는 재즈, 블루스, 컨트리, 흑인영가 등의 미국 고유의 음악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세계에 도입했었다. 미국 사관학교의 창립 150주년 기념작인 교향곡 4번 '웨스트포인트', 여호수아의 유명한 전투를 음악으로 묘사한 '제리코 랩소디', 베니 굿맨을 위한 작품인 클라리넷과 밴드를 위한 데리베이션스, 2차 대전 당시의 애국적인 작품인 '자유를 위한 팡파르' 등을 수록하였다.

8.570489
슈미트:
피아노오중주, A tour d' ances
졸리스텐-앙상블 베를린
플로랑 슈미트는 드뷔시, 라벨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로 발레 '살로메의 비극'이 잘 알려져 있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를 위한 'A tour d'ances'는 라벨과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노트르담의 꼽추의 이름을 딴 마지막 악장이 특히 인상적이다. 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피아노오중주는 20세기 초 프랑스 실내악을 대표할 만한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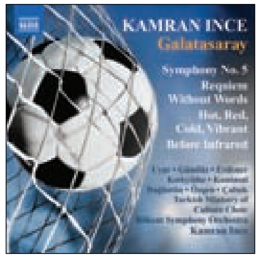


8.572419
할프테르:
디베르티멘토, 카프리코, 엘 에스코리알 소나타, 라베린토 외
마드리드 코무니다드 오케스트라 솔로이스츠
로들포 할프테르는 20세기 스페인의 또 다른 주요 작곡가인 에르네스토 할프테르의 형으로 프랑코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동생과 달리 내전 당시 공화군 측에 가담했기에, 스페인 내전 직후 멕시코로 망명하여 이 나라 음악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작품들은 신고전주의에서 아방가르드를 넘나드는 이 작곡가 특유의 음악스타일을 보여준다.

8.572442
쇤베르크:
챔버 심포니 1번, 모음곡 Op.29
후안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사히르 앙상블
쇤베르크의 챔버 심포니 1번은 고전적인 교향곡의 양식을 20분 남짓+E41한 단악장 속으로 축약한 작품으로, 작곡가는 원래 15명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악단을 위한 편성으로 이 곡을 완성했지만, 본 음반에 수록된 것은 그의 제자 안톤 베베른이 불과 다섯 악기(fl, cl, vn, vc, pf)를 위해 한층 더 간소한 형태로 편곡한 버전이다. 1920년대에 유행하던 여러 춤곡의 리듬을 활용한 역동적인 작품인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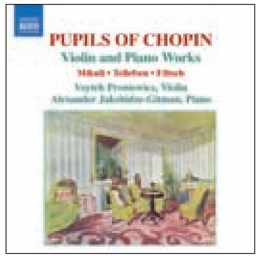


8.572459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4, 13번, 방랑자 환상곡
엘다 네볼신(pf)
리스트와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시리즈의 연이은 큰 성공으로 단숨에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급 부각된 러시아의 신예 엘다 네볼신이 슈베르트의 보다 내면적인 독주곡들에 도전하였다. 자신의 유명 가곡 '방랑자'의 선율에 기초한 '방랑자 환상곡'은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들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기작이며, 함께 수록된 두 편의 소나타(4, 13번)들에서도 작곡가 특유의 유려한 선율미가 한껏 드러난다.



8.572553
인체:
교향곡 5번 '갈라타사라이', 무언의 레퀴엠 외
여러 가수들/ 터키 문화성 합창단/ 카마린 인체/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터키 출신의 작곡가 캄란 인체가 3명의 독창자와 합창단, 그리고 대편성 관현악을 위해 완성한 교향곡 5번은 자국을 대표하는 명문 축구클럽인 갈라타사라이의 결성 100주년을 기념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무언의 레퀴엠은 2003년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품으로, 터키 민속 악기들의 독특한 울림과 민속음악 보컬리스트의 이국적인 가창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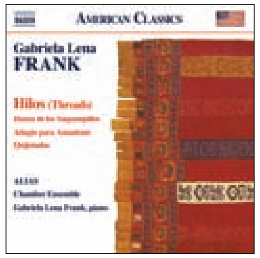
8.572402
탄스만:
클라리넷협주곡, 오보에와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외
장-마르크 페사르(cl)/ 로렝 데케르(ob)/ 미로스와브 야첵 브와슈칙/ 실레시안 챔버
알렉산드르 탄스만은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신고전주의에 폴란드와 유태 전통음악적인 요소를 결합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3악장 구성 속에 변화무쌍한 템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클라리넷협주곡과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펼치는 대화 풍의 작품인 콘체르티노, 다양한 개성의 여섯 악장들이 결합된 현을 위한 여섯 개의 악장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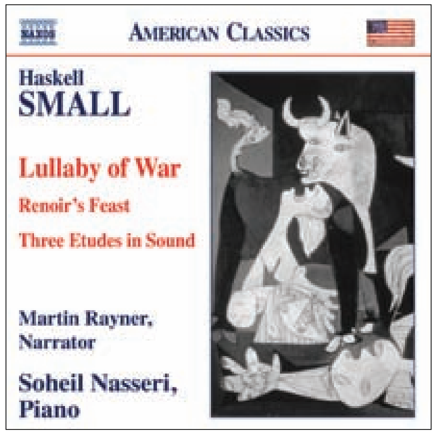
8.572460
쇼팽 제자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보이텍 프로니에비치(vn)/ 알렉산더 야코비제-기트만(pf)
쇼팽 제자들의 피아노 독주곡들을 담았던 음반에 이어서 그들이 남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맨틱한 작품들을 담은 음반이 등장하였다. 쇼팽, 바그너, 슈베르트, 리스트 등의 선율을 연상케 하는 카롤 미쿨리의 그랑 듀오, 그리그의 작품을 예견케 할 정도로 빼어난 서정미를 갖춘 토마스 텔레프젠의 두 바이올린소나타, 15세로 요절했던 쇼팽의 애제자 칼 필츄의 매력적인 알레그레토와 변주곡을 담았다.

8.572524
카카바제:
인어, 러시아 그림, 아라비안 랩소디 모음곡, 유령 청취자 외
키트 헤스케스-하비(narr)/ 클레어 맥칼딘(alt) 외 여러 연주자들
영국 작곡가 리디아 카카바제는 성악과 실내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현악사중주를 위한 '아라비안 랩소디'는 중동 풍의 선율에 활기찬 리듬을 조합한 작품이며, 역시 동일 편성의 '러시아 그림'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오마주 성격의 작품이다. 낭송을 곁들인 '인어'는 자신의 동화에 기초하였고, 매력적인 뮤직드라마인 '유령 관객들'은 월터 드 라 마레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8.559684
타악기를 위한 미국 음악들 Vol.2
프랭크 엡스테인/ 뉴잉글랜드 음악원 타악기 앙상블
엘리엇 카터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작품인 '틴티나불레이션', 인도네시아 가믈란 음악의 영향을 보여주는 에드워드 코헨의 '산성비', 서부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리듬에 기초한 세 여성 성악가와 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작품인 프레드 레달의 'The First Voices', 죽은 동료 작곡가를 추모하는 장송곡인 존 하비슨의 '장례행렬', 철제 타악기와 목제 타악기의 음향 대비를 담은 피터 차일드의 '레프레인' 등을 수록.



8.559645
프랭크:
힐로스, 키호타다스, 아만티니를 위한 아다지오 외
가브리엘라 레나 프랭크(pf)/ 알리아스 챔버 앙상블
가브리엘라 레나 프랭크는 페루, 중국, 리투아니아, 유태의 복잡한 혈통을 타고난 미국의 여류 작곡가로 자신의 선조들의 나라의 고유한 음악전통을 자신의 음악세계에 접목해왔다.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힐로스'는 페루의 직물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현악사중주를 위한 키호타다스는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8.559649
스몰:
전쟁의 자장가, 르느아르의 축제
마틴 레이너(narr)/ 조헤일 나세리(pf)

하스켈 스몰은 현재 워싱턴 음악원의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피아노 독주와 낭송을 위한 '전쟁의 자장가'는 스페인 내전, 1차 세계 대전 당시의 전쟁과 관련된 시와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한 시 등을 텍스트로 사용한 작품이며, '르느아르의 축제'는 르느아르의 명화 '뱃놀이 중의 점심'과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을 음악으로 표현한 피아노 독주곡이다.

8.571369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2, 24, 29번 '함머클라비어'
이딜 비렛(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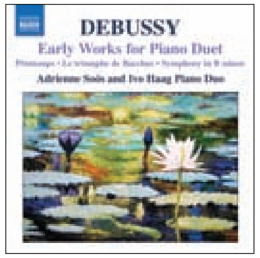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러티 역시 매혹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켐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2715
요하네스 묄러 기타 리사이틀
망고레, 빌라-로보스, 레곤디, 브로우워, 묄러 등의 기타 작품들

2010년 미국기타재단(GFA) 콩쿠르 우승자인 스웨덴 출신의 기타리스트 요하네스 묄러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자신의 자작곡인 '먼 불을 향한 시'를 비롯하여 브루워의 기타소나타, 레곤디의 '환상', 빌라로보스의 에튀드 발췌, 바리오스 망고레의 '숲 속의 꿈', 크레이방게르의 '마탄의 사수 변주곡', 구종의 '라멘토-스케르초' 등의 개성적인 근현대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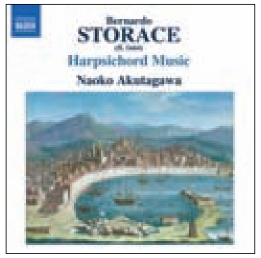
8.572300
리스:
피아노소나타와 소나티나 Vol.5
수잔 케이건(pf)

베토벤의 애제자 중 한 사람인 페르디난트 리스가 남긴 14편의 피아노소나타와 소나티나를 순례 중인 미국 피아니스트 수잔 케이건의 다섯 번째 음반. 본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작품들은 베토벤의 영향을 뚜렷이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의 슈베르트나 쇼팽을 예견하는 듯한 낭만적인 특징 또한 함께 드러낸다. 특히 만년의 작품인 Op.176의 서정적인 2악장과 랜틀러 풍의 매력적인 3악장이 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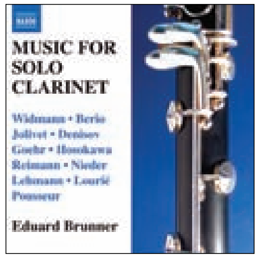
8.572385
드뷔시:
피아노 듀엣을 위한 초기작들
아드리엔 소오스 & 이보 하그(pf)

드뷔시는 작곡가에 앞서 당대의 걸출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피아노 독주곡 외에도 네 손을 위한 여러 작품을 남겼으며, 자신의 다른 장르의 작품들도 이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곤 했다. 로마대상 수상작인 '돌아온 탕아'의 편곡을 비롯하여, '봄', '디베르티스망', '인테르메조', '바쿠스의 승리' 외에도 그의 유일한 교향곡 양식의 미완성작인 교향곡 B단조의 피아노 연탄 버전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209
스토라체: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들
나오코 아쿠타가와(cemb)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나르도 스토라체는 정확한 생몰연대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프레스코발디의 영향이 짙게 드러나는 건반작품들로 이름이 기억되는 인물이다. 특히 음반에 수록된 치아코나와 두 편의 파사칼리아, 그리고 '라 모니카' 선율에 의한 변주곡 등의 변주곡 양식의 작품들이 뛰어나며, 폴리아, 바탈랴, 코렌테 등의 춤곡과 토카타, 카프리초 등의 자유분방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8.572470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작품들
에두아르드 브루너(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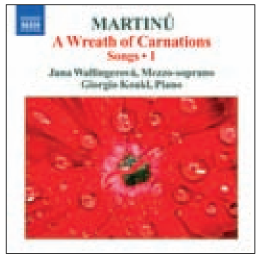
클라리넷은 정규 오케스트라 편성에 뒤늦게 합류한 악기지만, 독특한 음색과 폭넓은 표현력으로 이내 필수불가결한 악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칼스루헤 음대의 교수로 활동 중인 에두아르드 브루너는 베리오, 졸리베, 데니소프, 호소카와 등의 다양한 현대 작곡가들의 클라리넷 독주곡을 담은 본 신보를 통해 이 악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8.572483
렌츠:
잉웨 (전자기타를 위한 독주곡)
체인 뱅크(electric guitar)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나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인 조르주 렌츠의 작품 Ingwe(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의 언어로 밤을 뜻하는 단어)는 락 음악의 대표 악기인 디스토션을 동반한 일렉트릭 기타를 위한 한 시간 남짓한 분량의 독주곡으로,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감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전자음향을 통해 표현되는 기발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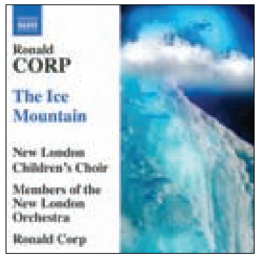
8.572601
레이턴:
엣 레수렉시트, 미사 데 글로리아, 찬송가 판타지
그렉 모리스(org)

20세기 영국 작곡가 케네스 레이튼은 특히 합창과 오르간 작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걸작을 남겼다. 본 음반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오르간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예수의 부활을 변주곡과 푸가의 형태로 그려낸 'Et Resurrexit', 부활절을 위한 세 이럼 찬트 선율을 기반으로 미사의 통상문들을 오르간 독주곡으로 옮긴 작품인 미사 데 글로리아, 그리고 여섯 개의 찬송가 판타지 중 세 작품을 골라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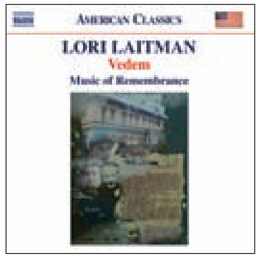
8.572588
마르티누:
가곡집 Vol.1
야나 발링게로바(ms)/ 조르조 쿠클(pf)

마르티누는 가곡들을 작곡하였지만, 그 대부분은 작곡가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다. 그의 작품은 모국의 체코의 문학작품들 외에도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다양한 텍스트에 기반하였다. 드보르작과 같은 자국 선배 외에도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정통 독일 리트의 영향도 함께 드러내는 그의 가곡들을 체코의 젊은 메조소프라노 야나 발링게로바와 마르티누 스페셜리스트 조르조 쿠클이 함께 연주하였다.



8.572777
코프:
아이스 마운틴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뉴 런던 어린이합창단/ 로날드 코프/ 뉴 런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뉴 런던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로날드 코프가 어린이들을 위해 완성한 오페라 '아이스 마운틴'은 스위스의 전래동화인 '노파와 죽음'을 바탕으로 인생을 사계절의 변화로 묘사한 엠마 힐의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스위스의 민요와 찬송가의 선율을 적절히 삽입한 친근하고도 서정적인 음악은 어린이들의 투명한 발성과 잘 어울린다.



8.559685
래이트맨:
베뎀, 아버지들
안젤라 니더로(ms)/ 노브쉐스트 어린이합창단/ 뮤직 오브 리멤버런스

'베뎀'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테레친 유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청소년들이 매주 비밀스럽게 발행했던 문학지로 그와 관련된 이들의 대부분은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말았지만, 이 잡지의 일부는 기적적으로 후대에 전해졌다. 레이트맨의 오라토리오 '베뎀'은 바로 그 잡지에 수록되었던 시를 텍스트로 완성한 감동적인 작품이다. '아버지들' 역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품이다.

8.660248-49 **[2CDs]**
보이토:
메피스토펠레
페루치오 풀라네토 외 여러 가수들/ 스테파노 란차니/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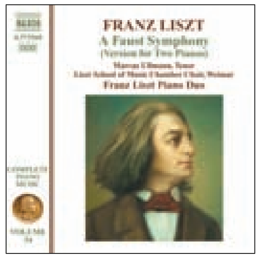
괴테의 '파우스트'는 독일 작곡가들이 감히 오페라로 만들기 두려워했던 까닭에 다른 나라 작곡가들에 의해 먼저 오페라로 완성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이토 최고의 걸작인 '메피스토펠레'다. 본 음반은 2008년 팔레르모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위대한 바리톤 페루치오 풀라네토와 그리스 출신의 대형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우가 각각 타이틀롤과 마르게리타를 열연하였다.

8.660280-81 **[2CDs]**
J 슈트라우스 2세:
이성의 여신
베로니카 그로이스 외 여러 가수들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박 신포니에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마지막 오페레타인 '이성의 여신'(Die Gottin der Vernunft)는 본 음반에 수록된 2009년의 실황이 있기까지 1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세인들의 기억 밖에서 보내야만 했던 비운의 작품이다. 번스타인의 '캔디드'를 연상케 하는 유머러스한 이 오페라타는 음악적으로도 작곡가 특유의 화려한 왈츠와 씩씩한 행진곡들이 곳곳에 삽입됨으로써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자태를 뽐낸다.

8.572736
훔멜:
오페라 선율에 의한 변주곡과 환상곡
마도카 이누이(pf)

훔멜은 모차르트의 제자, 하이든의 후임자, 베토벤의 라이벌이었다. 피아노비르투오조, 지휘자, 작곡가, 교사로 맹활약했으며, 재능 있는 음악 사업가이기도 했다. 본 신보에는 모차르트의 '후궁탈출', 글룩의 '아르미드', 케루비니의 '이틀'과 같은 다른 작곡가들의 오페라들과 자신의 자작 오페라들의 선율에 기초한 화려한 변주곡과 포푸리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8.572560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
마르쿠스 울만(te)/ 바이마르 리스트 음악원 합창단/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듀오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은 괴테의 동명 희곡에 등장하는 세 캐릭터(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를 각각 음악적으로 표현한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악장에는 테너 독창과 남성합창이 추가로 더해졌다. 본 신보는 작곡가 자신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는데, 개정버전의 테너독창과 남성합창까지도 온전히 추가된 형태로 연주되었다.

8.572604
로데: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에튀드 외
니콜라스 코엑케르트, 루돌프 코엑케르트(vn)

비오티의 제자였던 피에르 로데는 19세기 전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름이다.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기량을 기반으로 바이올린을 위한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 파가니니의 작품에 비견될 만한 걸작인 24개의 카프리스와 본 신보에 수록된 12개의 에튀드와 같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이 특히 유명하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3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9396
수자:
관악밴드를 위한 작품 Vol.9
사라 오빙(vn)/ 키스 브리언/ 노르웨이 왕립 해군 군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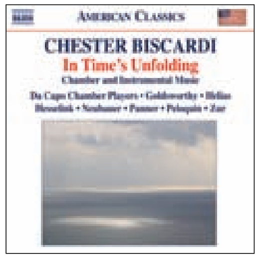
'행진곡의 왕' 존 필립 수자의 관악밴드를 위한 작품 전집의 9번째 음반. '자유의 깃발 행진곡', '미국 육군 포병 행진곡'과 같은 그의 전형적인 군대용 행진곡은 물론, 오페레타의 삽입곡들인 '메인에서 오리건까지', '허풍쟁이 서곡', '총 뒤의 남자', 인디언, 백인, 흑인의 캐릭터를 음악으로 표현한 연주회용 모음곡인 '서부의 주민들', 당대의 여러 인기 선율들을 모은 메들리 작품인 'When my dream come true' 등을 수록.

8.570978
슈니트케:
바이올린소나타 전곡
캐롤린 후에블(vn)/ 마크 웨이트(pf)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거목 알프레드 슈니트케는 총 4편의 바이올린소나타를 완성하였다. 그의 초기 실내악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1번과 작곡가 특유의 폴리스타일릭 테크닉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작품인 2번, 그리고 간결함이 돋보이는 죽기 4년 전의 만년작인 3번 외에도, 그의 죽음 이후에 발견된 학생시절인 1955년에 완성한 습작 바이올린소나타까지 모두 수록되었다.

8.572258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V.563, 현악트리오 KV.562e
헨닝 크라게루트(vn)/ 라스 안더스 톰터(va)/ 크리스토프 리히터(pf)

현악삼중주 편성을 위해 완성한 디베르티멘토 KV563은 모차르트의 창작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최고조에 달했던 1788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동료 프리메이슨이었던 요한 푸흐베르크를 위해 완성된 이 작품은 '디베르티멘토'라는 유희성이 강조된 작품의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의 실내악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같은 편성을 위한 미완성 단편인 KV562가 함께 수록되었다.



8.559639
비스카디:
In Time's Unfolding
다카포 챔버 플레이어즈 외 여러 연주자들

체스터 비스카디의 대표 실내악 작품인 피아노사중주는 2006년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었던 작품이다. 날카로운 타격음과 서정적인 선율이 교차하는 피아노곡 '미스티에레' 역시 그 때 함께 연주되었던 작품이다. '악마의 트릴' 소나타를 12음 기법으로 변형한 '타르티니',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Companion Piece',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The Viola had suddenly become a voice' 등을 수록.

8.572332
레스피기:
바이올린협주곡, 로시니아나, 현을 위한 모음곡
라우라 마르차도리(vn)/ 살바토레 디 비토리오/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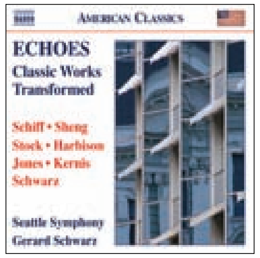
레스피기의 바이올린협주곡은 미완성상태로 방치되었던 작품으로 이 음반에서 지휘를 맡은 살바토레 디 비토리오에 의해 완성되어 2010년에 세계초연되었다. 멘델스존을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선율과 작곡가 특유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로시니의 피아노 작품들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한 모음곡 '로시니아나'와 바로크 시대의 향수를 담은 우아한 작품인 현을 위한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415
카셀라:
교향곡 3번, 엘레지아 에로이카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카셀라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3번은 시카고 심포니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위촉된 작품으로 2차 대전 초반인 1940년에 완성되었다. 힌데미트와 오네거와 같은 동시대 작곡가는 물론 당시 그가 한창 몰입하고 있던 말러의 영향까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엘레지아 에로이카는 1차 대전 중에 희생된 병사들을 위한 일종의 진혼곡으로, 제목 그대로 어두운 비감으로 채색된 작품이다.

8.572571
벵구에렐:
콘체르탄테, 타악기와 현을 위한 음악, 가을 협주곡 외
하우메 토렌트(guitar)/ 다니엘 토시/ 오케스트르 페르피냥 메디테라네

현존 스페인의 중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사비에르 벵구에렐의 작품들에서는 버르톡,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신 빈악파의 영향이 느껴진다.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의 협주곡들인 콘체르탄테와 가을 협주곡, 마림바, 비브라폰, 실로폰, 글로켄슈필의 대조적인 울림을 활용한 타악기와 현을 위한 음악,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포르타 페라다 이중협주곡 등을 수록.



8.559679
에코-변형된 클래식 작품들
(슈워츠, 하비슨, 커니스, 스톡 외)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7명의 미국 작곡가들이 편곡한 기존의 명곡들. 데이비드 쉬프는 스트라빈스키 불새 중의 지옥의 춤을, 브라이트 셍은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데이비드 스톡은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곡을, 존 하비슨은 텔로니우스 몽크의 '내 사랑 루비'를, 제러드 슈워츠는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Op.6-9를, 사무엘 존스는 루트킨의 찬송가를, 아론 커니스는 자신의 현악사중주 1번을 각각 편곡하였다.

8.572586
D.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Vol.14
두안두안 하오(pf)

나폴리악파의 대표인물인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아들인 도메니코는 바흐, 헨델과 같은 해인 1685년에 태어났다. 550편이 넘는 건반소나타가 그의 가장 큰 음악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를라티 소나타시리즈의 14번째인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소나타들 중 대작에 속하는 K217, K199를 비롯한 17편의 소나타가 수록되었다. 2009년 상하이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중국 피아니스트 두안두안 하오가 연주를 맡았다.

8.572142
몽푸:
피아노 작품집 Vol.6
조르디 마소(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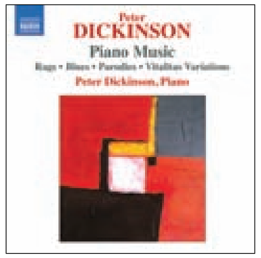
본 신보의 수록곡들은 연주자 조르디 마소가 최근 카탈루냐 도서관과 몽푸의 자택에서 재발견한 작품들로 세계 최초로 레코딩된 것들이다. 10대후반에서 20초반에 완성한 습작들로, 작곡가의 천부적인 재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라벨을 연상케 하는 '거지의 탄식', 고향 바르셀로나 인근의 풍광을 표현한 4개의 소품, 다양한 소재들을 개성적으로 풀어낸 5개의 인상 등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8.572637
샤르벤카:
피아노협주곡 4번, 폴란드 춤곡, 마타스빈타 서곡
프랑소와-사비에르 포이자(pf)/ 우카스 보로비츠/ 포츠난 필하모닉

샤르벤카는 후기낭만시대의 대미를 장식했던 위대한 피아노 비르투오조였다. 그는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4편의 협주곡들을 완성했는데, 그 중 4번은 하이페리언의 로맨틱협주곡 시리즈를 통해 재발견되면서 많은 음악애호가들을 흥분시켰던 바로 그 작품이다. 프랑스의 젊은 피아니스트 포이자가 이 난곡에 과감히 도전하였고, 작곡가의 고향인 포츠난의 오케스트라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8.570782
피아티:
무반주 첼로를 위한 12개의 카프리스 외
배수령(vc)

알프레도 피아티는 19세기의 걸출한 첼로 비르투오조이자 첼로 교습법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름이다. 무반주 첼로를 위한 12개의 카프리스는 초절기교와 더불어 첼로 특유의 감성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2005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국제 콩쿠르의 우승자인 한국계 캐나다 첼리스트 배수령(Soo Bae)이 캐나다 예술원이 제공한 1696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봉주르'로 이를 연주하였다.



8.572654
딕킨슨:
피아노작품집
피터 딕킨슨(pf)

영국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피터 딕킨슨의 크로스오버 풍의 재기 발랄한 피아노 작품들을 담은 음반. 맥도웰의 들장미의 선율을 각각 랙과 블루스 풍으로 재구성한 '들장미 랙'과 '블루 로즈', 사티의 그노시엔느를 편형한 '세 개의 사티 변형', 바흐의 전주곡을 블루스 풍으로 편곡한 '바흐 인 블루'를 비롯하여 그가 작곡한 랙 스타일과 블루스 풍의 소품들을 가득 담았다.

8.572466
레거:
오르간작품집 Vol. 11
한스-위르겐 카이저(org)

막스 레거는 바흐 이후 독일오르간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곡가다. 본 신보에는 12개의 오르간 소품 Op.80 중 8집에 수록된 7,8번을 제외한 열 개의 작품과 '내 주는 강한 성이오', '평화와 기쁨으로', '다 감사드리세'와 같은 귀에 익은 루터 코랄들의 선율에 기초한 13개의 코랄 프렐류드 Op.79b 전곡이 72개의 스톱을 장착한 풀다 대성당의 리거-자우어 오르간의 강력한 사운드로 녹음되었다.

8.572333
디 비토리오:
교향곡 1,2번, 레스피기아나, 클라리넷협주곡 외
벤저민 베이런(cl)/ 살바토레 디 비토리오/ 뉴욕 레스피기 챔버 오케스트라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의 지휘자 겸 작곡가 살바토레 디 비토리오는 자신이 창단한 챔버 오케스트라에 레스피기의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자국 선배 작곡가의 철저한 추종자이다. 그의 작품들 역시 레스피기의 화려한 관현악법과 이탈리아의 옛 작곡가들에 대한 열정을 뒤따른다. 각각 이탈리아와 독일의 낭만주의음악을 연상케 하는 두 편의 교향곡과 르네상스 아카펠라에 기초한 아베 마리아 등을 수록.

8.572410
페라라:
프렐루디오, 비극적 환상곡, 폭풍의 밤, 부를레스카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프랑코 페라라는 정명훈, 샤이, 무티 등을 가르쳤던 뛰어난 지휘 교수로 유명한 이름이다. 그는 창작에서도 자신의 천부적은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는데, 대표적인 관현악 네 작품이 본 음반에 세계최초로 레코딩되었다. 특히 비극적환상곡은 쇼스타코비치를 추모하는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 11번 3악장을 모델로 완성한 작품이다. 후기낭만주의의 악풍을 따른 폭풍의 밤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8.572420
할프테르: 현악사중주, 첼로소나타, 3개의 악장, 오초 티엔토스
브레톤 현악사중주단/ 존 스톡스(va)/ 프란시스코 호세 세고비아(pf) 외

로돌포 할프테르는 20세기 스페인의 또 다른 주요 작곡가인 에르네스토의 형으로 프랑코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동생과 달리 공화군 측에 가담했기에, 내전 직후 멕시코로 망명여 그 곳에서 활약하였다. 본 음반에는 신고전주의 성향에 히스패닉 리듬을 접목한 첼로소나타, 고전적인 현악사중주의 틀에 음렬주의를 덧입힌 현악사중주, 스스로 소리의 만화경이라고 언급한 작품인 'Ocho tientos' 등이 수록되었다.

8.570707
투리나:
가곡집
카롤리나 울리히(sop)/ 데보라 할라스(pf)

알베니스, 파야, 그라나도스와 더불어 20세기 초 스페인 국민주의 음악의 거물로 평가되는 호아킨 투리나는 천부적인 선율감각이 돋보이는 가곡들을 여럿 남겼다. 순수한 아름다움의 '아베 마리아', 사랑의 기쁨을 발랄하게 표현한 '사랑에 미친 여인들', 즐거운 유머를 담은 '내 뒤로 숨어' 등등의 개성적인 가곡들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칠레의 소프라노 카롤리나 울리히가 노래하였다.

8.660302
로시니:
오페라 〈결혼어음〉
비토 피안테, 율리야 삼소노바 외/ 크리스토퍼 프랭클린/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1810년 베니스에서 초연된 〈결혼어음〉은 로시니가 18세 때 완성한 1막의 코믹오페라다. 페데리치의 희곡에 기초 한 로시의 리브레토를 사용하였으며,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돈에 팔려서 원치 않는 이와 결혼해야할 운명의 한 여인이 기지를 통해 사랑하던 연인과 맺어진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신보는 2006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이다.

8.572641
브라이언:
교향곡 20번, 25번, 옛 선율에 의한 환상변주곡
앤드류 페니/ 우크라이나 국립 교향악단

영국 작곡가 하버갈 브라이언은 96세로 장수하는 동안 무려 32편의 교향곡을 완성했던 20세기의 숨겨진 심포니스트이다. 1962년에 완성된 교향곡 20번은 간결한 형식 안에 변화무쌍한 테마를 통해 풍부한 표정을 담아낸 작품이며, 1966년에 완성된 교향곡 25번은 작곡가의 후기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빼어난 선율미를 자랑한다.

8.559627
Breathing Lessons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미국 음악)
뉴 허드슨 색소폰 쿼텟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의 네 음역의 악기로 구성된 색소폰 앙상블을 위한 미국 현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재즈 기반의 리듬이 돋보이는 탄넨바움의 색스 쿼텟, 색채적인 표현이 강조된 샘슨의 'Breathing Lessons',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사우터의 튜바와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작품,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이워즌의 랩소디, 연주자들에게 헌정된 모릴의 바가텔 등을 수록.

8.557079
슈만:
가곡집 '미르텐' Op25, 6개의 시와 레퀴엠 Op.90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sop)/ 토마스 E 바우으(br)/ 우타 히엘셔(pf)

슈만에게 1840년은 '리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리트 걸작들이 이 해에 완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클라라를 위한 연가곡집인 '미르텐'(백일홍)도 포함된다. 이 연가곡집의 세 번째 곡인 '호두나무'는 과거 FM의 인기 클래식 프로그램의 시그널로 사용되어 많은 애호가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선율이기도 하다. 레나우의 여섯 편의 시와 작자미상의 중세시에 곡을 붙인 Op.90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406
한국 현대 피아노 작품집 (박영희, 윤이상, 강석희, 최우정, 김정길)
클라라 민(민유경)(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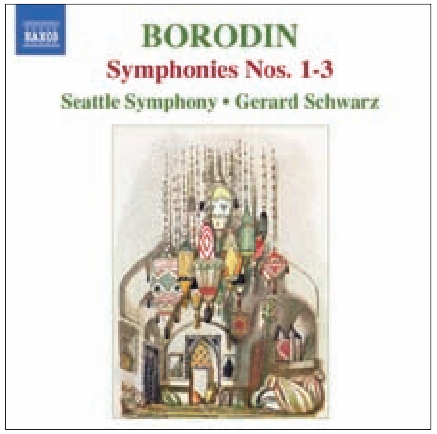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피아니스트 민유경이 한국 현대 음악계를 대표하는 다섯 작곡가들의 피아노 독주곡들을 녹음하였다. 윤이상의 5개의 연습곡과 간주곡 A, 재독 작곡가 박영희의 '파문', 전현직 서울대 음대 교수들인 강석희의 '피아노 스케치', 김정길의 '고풍' 중 '향합', '나막신', '옥비녀', 최우정의 전주곡 2,7,8번 등이 수록되었다.

8.572554
인체:
교향곡 2번 '콘스탄티노플 함락', 피아노협주곡, 관현악협주곡 외
캄란 인체(pf, cond)/ 이신 메틴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터키 작곡가 캄란 인체의 교향곡 2번은 1453년 오스만 술탄 모하메드 2세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묘사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정교회를 상징하는 챈트풍의 선율과 오스만 군을 상징하는 터키 풍의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추르나, 네이 등의 터키 민속악기와 터키 전통 합창이 덧붙은 이국적인 작품이며, 작곡가 자신이 독주를 담당한 피아노 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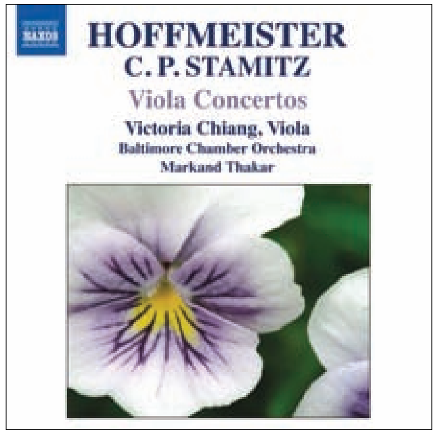
8.572623
마이야르:
히로시마에서의 생존, 합주협주곡, 실내협주곡
사라 주프르와(ms)/ 디오니시오스 더비스-부르니아스/ 로얄 필하모닉

르네 마이야르는 1955년 로마대상을 수상하면서 프랑스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작곡가다. 그의 두 초기작인 콘체르토 그로소와 콘체르토 카메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바로크음악의 영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기교적인 작품들이며, 최근작인 '히로시마에서의 생존'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극적으로 생존한 코코하마라는 여인의 실화에 기초한 칸타타 풍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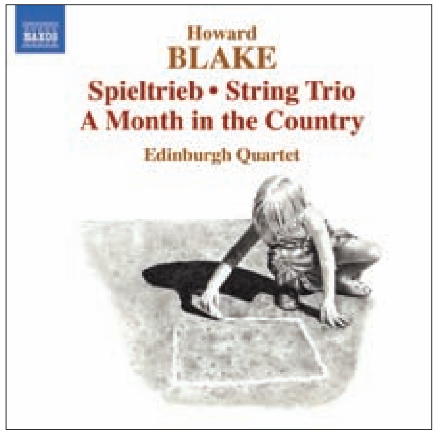
8.572786
보로딘:
교향곡 1-3번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러시아 5인조의 한 사람인 보로딘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의 독특한 정서를 충실히 반영한 여러 작품들을 통해 이 나라 국민주의 음악의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교향곡 2번은 차이코프스키의 후기 교향곡들과 더불어 러시아 교향곡의 정수로 평가받는 걸작이다. 본 음반에는 미완성 유작을 글라주노프가 마무리한 교향곡 3번까지 그의 모든 교향곡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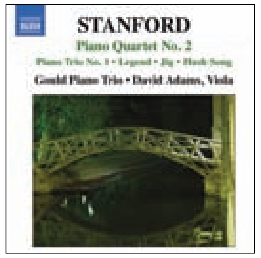
8.572162
슈타미츠, 호프마이스터:
비올라협주곡
빅토리아 치앙(va)/ 마컨드 타카/ 볼티모어 챔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과 첼로에 비해 독주악기로서 푸대접 받았던 비올라지만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협주곡은 이 악기만의 매력을 만끽하게 만든다. 만하임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카를 슈타미츠의 기교적인 협주곡 D장조는 입시나 콩쿠르 과제곡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작품이며, 18세기 후반에 활약한 작곡가 겸 음악출판인인 호프마이스터의 두 협주곡 역시도 비올라의 참 맛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8.572688
블레이크:
현악트리오, Walking in the Air, A Month in the Country
에딘버러 쿼텟

하워드 블레이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스노우맨'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신보에는 현악사중주를 위한 그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스노우맨 중의 빅히트싱글인 'Walking in the Air'의 현악사중주 편곡 버전과 더불어 동명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작곡된 'A Month in the Country', 발레음악 '레다와 백조', 드라마틱한 구성의 작품인 'Spieltrieb' 등을 수록.



8.572452
스탠포드:
피아노트리오, 피아노사중주, 전설 외
굴드 피아노트리오/ 데이비드 애덤스(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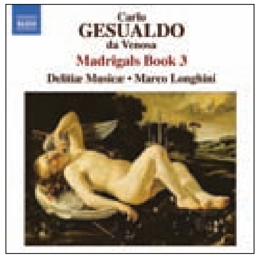
스탠포드는 7편의 교향곡, 다양한 독주악기를 위한 십 여 편의 협주곡, 그리고 7편 이상의 오페라를 완성했었으며, 실내악 분야에서도 걸출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한스 폰 뷜로우에게 헌정된 장대하고도 서정적인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1번과 민속음악 기반의 매력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피아노사중주 2번, 그리고 모국 아일랜드의 향토색을 드러내는 바이올린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687
빙엄:
야곱의 사다리, 전주곡과 봉헌 외 오르간 작품들
톰 윈페니(org)/ 그레이엄 로스/ 더 드미트리 앙상블

주디스 빙엄은 종교합창곡과 오르간작품 등을 통해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영국의 여류작곡가이다. 오르간과 현악합주를 위한 '야곱의 사다리'는 제목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에피소드를 협주곡 풍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자신의 미사 브레비스에서 발췌한 전주곡과 봉헌, 성모의 수태고지와 성탄을 다룬 'Ancient Sunlight' 외에도 종교적인 색채의 다양한 오르간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659
츄를리오니스:
피아노작품집 (전주곡, 즉흥곡, 소나타 외)
무차 루바키테(pf)

츄를리오니스는 화가이자 작곡가로서 19/20세기 전환기 리투아니아 예술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이었다. 낭만주의를 지향했던 그의 초기 피아노작품들에서는 이 나라의 독특한 민속음악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자신이 유학했던 나라들인 폴란드와 독일의 영향도 함께 드러난다. 특히 녹턴, 프렐류드, 마주르카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쇼팽의 그늘이 자연스레 느껴진다.



8.572136
제수알도:
마드리갈 3권
마르코 롱기니/ 델리티애 무지캐

베노사의 영주이자 아내를 살해한 사건으로 유명한 카를로 제수알도는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도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개성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1595년에 출판된 그의 마드리갈 3권은 그의 음악 스타일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감성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보여준다. 몬테베르디에 이어서 제수알도의 마드리갈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델리티애 무지캐의 연주다.

8.572717
이리나 쿨리코바 기타 리사이틀
(JS 바흐, 소르,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가야르도 델 레이, 타레가)

2008년 알함브라 기타 콩쿠르 우승자인 이리나 쿨리코바가 낙소스를 통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리사이틀 음반.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 1번을 연주자가 직접 편곡한 버전과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소나타 '보케리니 오마주', 소르의 판타지 Op.30, 가야르도 델 레이의 캘리포니아 모음곡 등을 수록하였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364
메노티: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 세바스티안 모음곡
여러 가수들/ 토마스 쉬퍼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우리 전래곡에 기초한 오페라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 유명한 메노티는 20세기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다. 크리스마스 오페라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은 그가 TV방영을 위해 완성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매년 학교나 교회 등을 통해 500회가 넘는 공연횟수를 기록하는 작품이다. 미국의 저명한 오페라 지휘자 토마스 쉬퍼스가 지휘봉을 잡은 1951년의 본 레코딩은 오래도록 이 작품의 레퍼런스로 군림했던 역사적 명연이다.

8.111366
디누 리파티 라스트 리사이틀
(바흐: 파르티타 1번, 모차르트: 소나타 8번, 쇼팽: 왈츠, 슈베르트: 즉흥곡)

33세라는 디누 리파티의 때이른 죽음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그의 마지막 리사이틀 실황인 1950년 9월 16일 브장송 라이브가 마크 낙소스에서 복각 출시되었다. 바흐의 파르티타 1번, 모차르트의 소나타 8번, 쇼팽의 왈츠, 슈베르트의 즉흥곡이라는 풍성한 레퍼토리와 리파티의 섬세한 서정이 마크 오버트-손의 훌륭한 복각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

8.111369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24개의 전주곡, 뱃노래 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pf)

마크 오버트-쏜의 손을 통해 재복각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쇼팽 레코딩 시리즈의 4번째 음반. 작곡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소나타인 2번 '장송행진곡'과 24개의 프렐류드 전곡은 1946년의 스튜디오 레코딩들이며, 1957년에 녹음된 뱃노래, 1958년에 녹음된 자장가와 3개의 유작 에튀드가 함께 수록되었다.

8.112064
크라이슬러 레코딩 전집 Vol.3
헨델, 바흐, 쇼팽,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외

본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소품들은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1914년부터 1916년 사이에 레코딩한 것들이다. 헨델의 '옴브라 마이 푸', 멘델스존의 '5월 산들바람', 하이든의 '황제', 짐발리스트와 함께 한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샤미나드의 '스페인 세레나데', 자작곡 '중국의 북' 등과 함께, 크라이슬러가 피아노를 연주한 유일한 녹음인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도 만날 수 있다.

Proprius

www.proprius.com

PRCD2059
텔레마니아 (텔레만의 협주곡과 실내악)
마리아 린달/ REBaroque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린달이 이끄는 REBroque는 1998년 결성된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모체로 하는 시대악기 앙상블이다. 2대의 바이올린, 4대의 바이올린, 알토 플루트와 바순, 바이올린과 바순 등의 다양한 악기 조합을 위한 협주곡들과 타펠무지크 중 사중주 등을 담은 본 음반에서 텔레만 음악 특유의 유희적인 즐거움을 Proprius가 자랑하는 최고의 음향으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LPO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lpo.co.uk

LPO-0052 [2 for 1.5]
말러: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율리아 바라디, 제인 이글린, 사진 벌락, 트루델리제 슈미트 야드비가 라페, 케네스 리겔, 아이크 빌름 슐테, 한스 조틴/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열광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교향곡 2번 '부활' 실황에 이어서 텐슈테트의 위대한 거장성을 담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말러 콘서트 실황이 출시되었다. BBC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1991년 1월 27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새롭게 마스터링한 것으로 27일과 28일 공연을 편집했던 EMI의 DVD와 달리 27일의 실황만을 온전히 수록하였다. 율리아 바라디와 케네스 리겔의 절창도 놓칠 수 없다.

LPO-0053
쇼스타코비치:
피아노협주곡 1,2번, 피아노오중주
마르틴 헬름헨(pf)/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1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우승자이자 Pentatone 레이블을 통해 발표한 음반들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 출신의 젊은 기대주 마르틴 헬름헨이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협주곡과 오중주를 연주하였다. 모차르트의 유희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쇼스타코비치의 두 협주곡과 런던 필 수석들과 함께한 오중주에서 이 젊은 연주자의 약동하는 기백과 탁월한 리듬감각이 빛을 발한다.

LPO-0054 [2 for 1.5]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2 for 1.5)
쿠체로바(sop), 스토틴(ms)/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런던 필과 합창단

2009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 동안 런던 로얄 페스티벌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편집 수록한 신보로, 현재 런던 필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거장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말러의 거대한 걸작의 위용을 한결 돋보이게 만든다. 자넷 베이커의 유력한 후계자로 영국 음악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스토틴과 슬로바키아의 신예 아드리아나 쿠체로바가 솔로를 맡았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6094
쉬츠:
마태수난곡
줄리언 포저(복음사가)/ 폴 힐러/ 아르스 노바 코펜하겐

가수에서 세계적인 합창 지휘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폴 힐러가 자신이 이끄는 아르스 노바 코펜하겐과 더불어 쉬츠의 아카펠라 종교합창곡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그의 만년(1666년)에 완성된 마태수난곡은 코랄수난곡 장르의 정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쉬츠의 원숙한 작곡기법이 총동원된 독일 루터교 음악의 위대한 걸작의 하나로 손꼽힌다. 복음사가를 맡은 줄리언 포저의 낭랑한 가창이 작품의 감동을 배가한다.

BR Klas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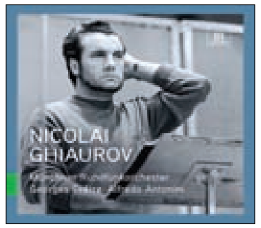
www.br-klassik.de

900107
루토스와프스키: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3번 '밤의 노래'
A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루토스와프스키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같은 제목의 버르톡의 유명한 걸작과 더불어 오케스트라 전 단원들의 뛰어난 기능성을 요구하는 난곡이다. 테너와 합창을 필요로하는 시마노프스키의 교향곡 3번 '밤의 노래'는 페르시아의 시인 무하마드 루미의 시를 기반으로 하는 이국적이고도 신비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알렉산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은 2차 대전의 종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외촉된 작품이다.

900303
미렐라 프레니 라이브
아드리아나 르쿠부르, 라 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카르멘, 마농, 아이다 등의 아리아

20세기 최고의 미미로 각광받았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BR의 '일요 콘서트'에서 노래했던 아리아들을 모았다. 1971년, 1983년, 1987년 3회의 실황을 모은 것으로, 라보엠, 토스카,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에프게니 오네긴, 마농, 아드리아나 르쿠부르 등의 아리아들을 노래하였다. 1987년의 콘서트는 남편 니콜라이 갸로프가 이전 결혼에서 얻었던 아들인 블라디미르 갸로프가 지휘를 맡았다.



900304
니콜라이 갸로프 라이브
파우스트, 보리스 고두노프, 돈 카를로, 시몬 보카네그라 등의 아리아

부드러운 저음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가리아 출신의 위대한 베이스 니콜라이 갸로프가 1966년과 69년 BR의 일요콘서트에 출연해서 불렀던 오페라 아리아들을 모은 음반. 최고의 가창을 보여주었던 배역들인 '보리스 고두노프', '시몬 보카네그라', '돈 카를로'의 필리포 2세의 아리아를 비롯하여, '파우스트', '사드코', '황제에게 받친 생명' 등의 주요 아리아들을 노래하였다.

900305
마가렛 프라이스 라이브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마탄의 사수, 노르마, 오텔로, 돈 카를로 등의 아리아

2011년 1월 28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웨일즈 출신의 위대한 소프라노 데임 마가렛 프라이스가 생전에 BR의 일요 콘서트에 출연해서 불렀던 모차르트, 베버, 로시니, 벨리니, 칠레아, 베르디 등의 유명 아리아들을 모은 음반. 1977년, 1981년, 1986년, 1991년의 녹음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이 가수의 음성과 가창 스타일의 변화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준다.

Soli Deo Gloria[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712 [2CDs]
JS 바흐:
요한수난곡 BWV245
마크 패드모어(복음사가)/ 한노 뮐러 브라흐만, 베르나르다 핑크, 캐서린 퍼지, 피터 하비/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바흐 칸타타 순례의 장도를 마감한 가디너의 사설 레이블 SDG가 바흐의 4대 종교합창곡의 하나인 요한 수난곡의 신보를 출시하였다. 2003년 3월 22일 독일 쾨니히슬루터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사가 마크 패드모어를 필두로, 베르나르다 핑크, 피터 하비, 한노 뮐러-브라흐만, 캐서린 퍼지 등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동원된 연주로, 가디너의 관록과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의 정밀한 앙상블이 위대한 걸작의 감동을 한층 더해준다.

SDG711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41번 '주피터'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2006년 2월 9일 런던 캐도건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본 신보는 콘서트 실황을 당일 콘서트 직후에 현장에서 관객들에게 판매한다는 'On the Night Live'라는 컨셉으로 기획되어 현장과 일부 통신판매로 영국내에서만 판매되었던 음원을 이후에 약간의 소음 보정을 거쳐서 인터내셔널로 정식 발매한 것이다. 모차르트의 최후기 교향곡들의 당당한 박력이 콘서트 현장의 생생한 열기와 함께 전달되어 온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6.220603 [Hybrid-SACD]
중국 협주곡(탕 지앙핑, 브라이트 셩, 마 수이룽, 첸 이)
미칼라 페트리(recorder)/ 란 수이/ 코펜하겐 필하모닉

리코더의 여제 미칼라 페트리가 현대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 명의 중국 또는 중국계 미국 작곡가들의 협주곡 풍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첸 이의 '옛 중국의 아름다움'은 페트리를 위해 완성된 오리지널 리코더 협주곡이며, 마 수이룽과 탕 지앙핑의 작품들은 원래 중국 전통 대나무피리를 위한 작품들을 리코더로 연주한 것이다. 브라이트 셩의 '플루트 달' 역시 플루트를 위한 작품을 리코더로 연주하였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30230 [2CDs]
말러:
교향곡 6번, 베베른: 파사칼리아, 변주곡스트라빈스키: 교향시 '꾀꼬리의 노래'
피에르 불레즈/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2004년 피에르 불레즈는 루체른 페스티벌의 디렉터인 미카엘 헤플리거와 더불어 전세계 각지로 부터 온 130 여 명의 음악도들로 구성된 비상설 악단인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였다. 본 신보는 2010년 루체른 섬머 페스티벌 중의 공연실황으로 거장이 가장 큰 열정을 쏟았던 세 작곡가들의 걸작들을 2장의 CD에 나누어 담았다. 이지적인 불레즈식 말러 해석의 신호탄이 되었던 작품인 말러 교향곡 6번의 리바이벌과 더불어 베베른의 관현악을 위한 파사칼리아와 관현악 변주곡, 자신의 초기 오페라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한 스트라빈스키의 교향시인 '꾀꼬리의 노래' 등을 수록한 본 신보에서 노거장의 원숙미와 젊은 오케스트라의 패기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7090 [4 for 1.5]
리스트:
관현악 작품집
유리 아르노비치, 하르투무트 핸헨, 야노스 페렌칙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카프리치오의 특별한 선물. 단테교향곡, 전주곡, 오르페우스, 헝가리아, 마제파, 타소, 라코치 행진곡, 헝가리랩소디 1~6번 등 등 작곡가의 주요 관현악곡들을 유리 아르노비치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커, 야노스 페렌칙이 지휘하는 헝가리 국립교향악단, 하르트무트 핸헨이 지휘하는 네덜란드 필하모닉, 언드라슈 코로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심포니 등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C7095 [3 for 1]
리스트: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예뇌 얀도(pf)/ 언드라슈 리게티/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카프리치오의 특별 선물. 낙소스의 간판 아티스트로 폭넓은 레퍼토와를 자랑했던 헝가리의 대표 피아니스트 예뇌 얀도가 피아노협주곡 1,2번, 헝가리 환상곡, 죽음의 춤, 방랑자환상곡, '아테네의 폐허' 환상곡, 베를리오즈 '렐리오'에 의한 대환상곡, '마탄의 사수' 환상곡 등등 작곡가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을 탁월한 기량으로 들려준다.

C7035 [3 for 1]
The Art of Belcanto
루치아 알리베르티(sop)/ 알프레도 크라우스(te)/ 레나토 브루손(br)

1992년 도밍고와 함께 내한공연을 가졌던 시칠리아 출신의 정상급 소프라노 루치아 알리베르티가 노래하는 벨리니와 도니제티의 고난도 콜로라투라 아리아집, 거물급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이 노래하는 모차르트와 베르디, 도니제티의 유명 아리아들과 중창들, 귀족적인 품위로 유명한 스페인의 위대한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리스트, 레스피기, 마스카니, 베르디의 희귀 가곡집 등의 3장의 독집을 함께 묶은 염가 음반.

C5072
두섹:
피아노협주곡 Op.22 & 49, 마리 앙투아네트
안드레아스 슈타이어(cond, pf)/ 콘체르토 쾰른

명실상부한 우리시대 최고의 고건반악기 연주자의 한 사람인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의 1992년 레코딩이 보다 깔끔한 외양으로 재발매되었다.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체코 작곡가인 두섹의 전형적인 고전 스타일의 피아노협주곡 두 곡과 낭송을 수반한 음악적 회화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작곡가와 친교가 있었던 런던의 악기 제작자인 존 브로드우드가 1806년에 제작한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하였다.

C5083 [2 for 1]
W.F. 바흐:
칸타타
슐릭, 슈베르트, 요헨스, 슈렉켄베르거/ 헤르만 막스/다스 클라이네 콘체르트

대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는 할레에 근무하던 시절 이 도시의 축일과 일요일을 위해 여러 칸타타를 완성했었는데, 그 중 4 작품을 본 음반에 담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바로크 종교음악 스페셜리스트 헤르만 막스와 그가 이끄는 시대악기 앙상블 다스 클라이네 콘체르트의 담백한 연주, 바르바라 슐릭을 비롯한 솔리스트들의 정갈한 가창이 이 작품들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C5066
후페르츠:
영화음악 〈메트로폴리스〉
프랑크 스트로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독일 표현주의의 거장 프리츠 랑의 1927년작 무성영화 〈메트로폴리스〉는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SF 영화들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작품이다. 최근 ZDF의 주도로 디지털로 복원되면서 후페르츠(랑의 또 다른 대표작인 '니벨룽겐'의 음악도 그의 솜씨다)의 영화음악 역시 새롭게 녹음되었는데, 바로 그 녹음이 본 신보에 수록되었다. 바그너의 라이트모티프 기법을 적극 활용한 후페르츠의 박력 넘치는 음악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C5087
살리에리:
라 베네치아나 (협주곡과 신포니아)
벨라 반펄비(vn)/ 야노스 발린트(fl)/ 러요슈 렌체슈(ob)/ 부다페스트 스트링스

모차르트의 의문의 죽음 이후 살리에리는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면서 작곡가로서의 그의 업적과 작품들까지도 평가절하되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라 베네치아나'와 바로크 합주협주곡의 영향을 담은 두 협주곡(바이올린, 오보에, 첼로를 위한 삼중협주곡, 플루트와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은 당시 그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재능의 작곡가였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148
베토벤:
교향곡 7번, 로망스 1,2번
우르술라 쇼흐(vn)/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 노이에 필하모니 베스트팔렌

절충주의형 연주 일색의 최근 베토벤 교향곡 신보들 중에서 중후한 스케일과 탄력적인 율동감으로 베토벤 교향곡 7번의 박력과 활기를 만족스럽게 표현해낸 지휘자 마티아스 푀르스터와 노이에 필하모니 베스트팔렌의 연주는 남다른 매력을 안겨준다. 베를린 필의 단원과 콘체르트헤보우의 악장을 역임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우르술라 쇼흐가 풍부한 표정을 담아 연주한 두 편의 로망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SM149
스크랴빈, 쇼팽:
전주곡
나탈리아 니콜라이(pf)

쇼팽과 스크랴빈은 각 12개의 장조와 단조 모두에 대한 24편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주곡집을 완성하였는데, 5도를 기준으로 한 조성배열 역시 동일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나탈리아 니콜라이는 쇼팽 작품의 섬세함과 서정성, 스크랴빈 작품의 열정과 화려함을 훌륭히 부각시킴으로써 거울상과 같은 이 두 작품집을 한층 흥미롭게 그려내었다.

SM154
JS 바흐:
이탈리아협주곡, 프랑스모음곡 5번, 파르티타 6번

미쿠 니시모토-노이베르트(pf)

1998년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에서 3등을 차지한 이후 주로 반주 분야에 활동해온 일본 출신의 피아니스트 미쿠 니시모토가 바흐만으로 자신의 독집을 장식하였다. 이탈리아협주곡의 또렷하고도 경쾌한 터치와 더불어, 파르티타 BWV830과 프랑스모음곡 BWV816을 구성하는 다양한 춤곡 악장들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능력이 발군이다. 뛰어난 레코딩은 오디오파일로도 손색이 없다.

Toccata

www.toccataclassics.com

TOCC-0118
에른스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세르반 루푸(vn)/ 얀 홉슨(pf)

Gramophone 2011년 4월호 Editor's Choice

19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빌헬름 에른스트의 작품을 담은 눈부신 음반. 에른스트는 자신이 연주 가능한 작품은 다른 사람들도 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작품을 쓴 듯하다. 물론 모든 연주자들이 가능하진 못했지만 세르반 루푸는 매혹적으로 그의 아름다운 소품들을 완수하였다.

– 제임스 인번 (그라모폰 에디터)

TOCC-0070
알캉:
피아노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골드스톤 & 클레모프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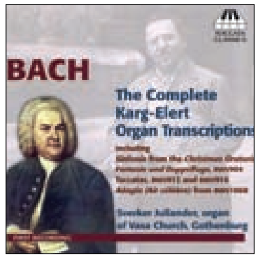
Gramophone 2011년 4월호 Editor's Choice

아믈랭 등의 노력으로 인해 프랑스의 피아노 작곡가 알캉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아직도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편이다. 두 대의 피아노와 피아노 연탄곡을 담은 이 특급 음반은 그의 명성을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우아하고도 기쁨에 찬 레코딩

– 제임스 인번 (그라모폰 에디터)

TOCC–0035
리스트:
교향시 피아노 편곡 (전주곡, 영웅의 장례, 이상)
리스토-마티 마린(pf)

리스트는 자신의 13편의 교향시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교향시는 리스트의 제자였던 체코의 피아니스트 아우구스트 스트라달이 피아노 독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이다. 원곡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두 손으로 표현하기 위해 극한치에 가까운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이 난곡들을 핀란드 출신의 신예 연주자 리스토 마티 마린이 훌륭히 연주해내었다.



TOCC0111
카르그-엘러트가 오르간을 위해 편곡한 바흐의 작품들
스베르커 율란데르(org)

1877년 라이프치히 인근에서 태어난 카르그-엘러트는 오르간 작품들로 후대에 기억되는 이름이다. 그는 창작곡 외에도 선배작곡가들의 작품을 오르간을 위해 편곡했는데, 신보에는 그가 오르간으로 편곡한 바흐의 작품들이 세계최초로 레코딩되었다. 원래 오르간곡인 BWV904 외에도 하프시코드곡인 BWV913, 914, 916,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중 신포니아, G 선상의 아리아 등의 편곡을 담았다.

Ondine

www.ondine.net

ODE1185-2
UNIKO (크로노스 쿼텟의 최신 화제작)
크로노스 쿼텟/ 키모 포효넨 (accordion)/ 사물리 코스미넨 (sound programming)

30년 이상을 현대음악의 전도사로 매진해왔던 크로노스 쿼텟이 핀란드의 유니크한 아코디언 연주자 키모 포효넨과 함께 완성한 독특한 일렉트로 클래시컬 앨범. 2003년 크로노스 쿼텟의 위촉으로 완성된 UNIKO는 2004년 헬싱키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이래, 모스크바, 노르웨이, 뉴욕 등지의 현대음악 페스티벌 등지에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Youtube를 통해 이와 관련 된 영상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ODE1182-2
코른골트:
교향곡 F#장조, 옛 스타일의 춤곡
욘 스토르고르스/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른골트는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신동음악가로 빈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이주 후에는 할리우드 영화음악 작곡가로 인생을 마감했다. 후기낭만 음악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그의 교향곡은 루즈벨트의 죽음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바이올린협주곡과 더불어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코른골트를 상징하는 걸작이다. 옛 스타일의 춤곡은 최근 재발견되어 이번에 최초로 녹음된 그의 20대 초반의 작품이다.

ODE1172-2
세게르스탐:
교향곡 81, 162, 181번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성한 턱수염이 인상적인 핀란드 지휘자 레이프 세게르스탐은 현재까지 250편에 가까운 교향곡을 완성한 경이적인 창조력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신보에 수록된 단악장 형식의 세 교향곡들은 모두 베르겐 필하모닉을 위해 완성된 이른바 베르겐 삼부작으로, '80번 다음'(81번), '베르겐을 위해 두배로…'(162번: 81번*2), '베르겐을 위해 숫자 100을 더하여'(181번: 81번+100)이라는 코믹한 부제들이 눈길을 끈다.

ODE1168-2
카밀라 닐룬드가 노래하는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아리아
카밀라 닐룬드(sop)/ 한누 린투/ 탐페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밀라 닐룬트는 2011년 바이로이트의 새로운 '탄호이저'에서 엘리자베트로 선택되면서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으로서 자신의 캐리어를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닐룬트 최초의 독집인 본 음반은 그의 장기인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아리아들로 장식되었다. '엘자의 꿈', '전당의 노래', '사랑의 죽음' 등의 대표 바그너 아리아들과 '다프네', '아라벨라', '살로메' 등에서 발췌한 주요 아리아들을 수록하였다.

ODE1103-2Q **[4 for 1.5]**
프로코피에프:
피아노소나타 1-9번 외 대표 피아노걸작들
마티 라에칼리오(pf)

9편의 피아노소나타를 비롯하여 'Visions fugitives', '토카타', '로미오와 줄리엣'의 피아노 편곡, '할머니의 이야기', '에튀드' Op.2 등 프로코피에프의 대표 피아노곡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핀란드의 피아니스트 마티 라에칼리오는 피아노 운지법에 대한 연구로 이름 높은 학구파 연주자로, 하노버 음대, 시벨리우스 음대를 거쳐 현재는 줄리어드의 교수로 여러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다.

ODE1190-2D **[2 for 1]**
JKF 추모 콘서트 (번스타인, 거쉰, 리버슨)
치몬 바르토(pf)/ 크리스토프 에셴바흐/ 와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1년 1월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취임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내셔널 심포니의 새 음악감독인 에셴바흐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 콘서트에서는 번스타인의 '케네디 취임을 위한 팡파르'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심포닉 댄스', 리버슨의 'JKF 추모', 거쉰의 피아노협주곡 등이 연주되었다. 얼 와일드가 독주를 맡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등이 연주되었던 1961년 JFK 취임기념 콘서트의 라디오 중계를 담은 보너스 CD가 함께 제공된다.

ODE1177-2
라우타바라: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페카 쿠시스토(vn)/ 파발리 윰파넨(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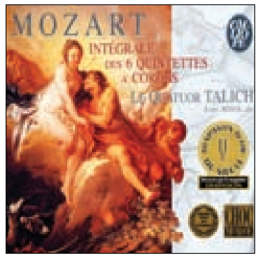
핀란드의 세계적인 현존 작곡가 라우타바라가 지금까지 완성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모두 모은 음반. 핀란드 전통 피들 선율에 기초하여 완성한 피아노 모음곡 '피들러'를 각 악장의 모티브가 되었던 오리지널 피들 선율과 함께 수록하였고, 시벨리우스 콩쿠르를 위한 과제곡들로 작곡된 무반주 바이올린곡 '바리에튀드'와 '야상곡과 춤곡',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난곡인 디티람보스 등을 수록.

ODE1179-2
시벨리우스:
교향곡 2,5번 (피아노 독주 버전)
헨리 시그프리드손(pf)

시벨리우스가 남긴 일곱 편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걸작인 2번과 5번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 수록한 독특한 신보. 1994년 바이마르 리스트 콩쿠르와 2005년 본 베토벤 콩쿠르 우승자인 핀란드의 젊은 기대주 헨리 시그프리드손이 직접 편곡과 연주를 겸하였는데, 단 한 대의 피아노만으로도 원곡의 감흥을 충실히 전달해주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경험해 보시라.

Calliope

www.indesen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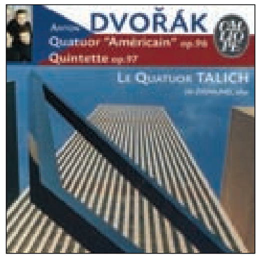


CAL 3231.3
모차르트:
여섯 개의 현악오중주
탈리히 사중주단, 카렐 레하크(비올라)

탈리히 사중주단의 창립자가 활동했던 전설적인 녹음모차르트 현악오중주를 녹음했던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탈리히 사중주단의 멤버는 오늘날과 모두 다르다. 제2 바이올린만 1994년에 현재 비올라를 연주하는 부카치가 합류했을 뿐이다. 그만큼 이 음반은 탈리히 사중주단의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며, 창립자인 얀 탈리히가 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탈리히 사중주단은 모차르트를 학문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닌, 인류를 위한 음악으로 해석한다. 모방할 수 없는 포근한 음색과 편안한 리듬, 아름다운 조화가 그 근거이며, 여러 수상들이 이를 증명한다. **디아파종 디스크 그랑프리 음악의 세계 쇼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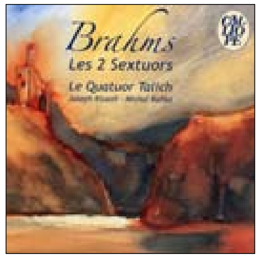
CAL 5313
멘델스존:
현악사중주곡
탈리히 사중주단

멘델스존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현악사중주곡50년의 역사를 지닌 탈리히 사중주단은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현악사중주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명성은 칼리오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녹음의 공이 크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곡은 작곡가의 명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탈리히 사중주단의 연주를 들으면 그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1823년에 작곡된 초기작품인 〈현악사중주 E♭장조〉는 모차르트 풍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며,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에 완성된 1947년 작품 〈현악사중주 6번 f단조〉는 베토벤을 연상케 하는 강인한 정신으로 가득하다.



CAL 9331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아메리카', 현악오중주 '아메리카'
탈리히 사중주단, 이르지 지그문드(제2 비올라)

드보르작의 근본에 다가간 탈리히 사중주단 드보르작을 대표하는 많은 명곡들은 1892년부터 1895년까지 뉴욕에 머무르던 시절에 집중되어있다. 〈현악사중주 '아메리카'〉와 〈현악오중주 '아메리카'〉가 바로 이 시기의 걸작들이다. 이 곡들은 미국의 민요와 흑인 영가, 인디언 음악 등이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그 근간은 물론 체코의 민속 음악이 자리하고 있다. 체코 정상의 사중주단인 탈리히 사중주단은 이러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살려낼 수 있는 연주자이다. 체코 민속 음악의 독특한 리듬을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연주하여 민속의상을 입은 체코의 포크 댄서들을 눈에 그리는 듯하다. **디아파종 음악의 세계 쇼크상**



CAL 9369
브람스:
현악육중주 1, 2번
탈리히 사중주단, 요제프 클루손(비올라), 미할 칸카(첼로)

탈리히 사중주단이 이룩한 또 하나의 역작브람스는 초기에 두 개의 현악육중주를 작곡하고, 중기에 세 개의 현악사중주를, 그리고 후기에 두 개의 현악오중주를 작곡했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은 현악육중주로, 탈리히 사중주단은 2007년에 이 곡을 녹음했다. 세계 정상급의 탈리히 사중주단은 칼리오페의 성공적인 녹음에서 연주자들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균형 잡힌 하모니를 들려주었는데, 이 곡에서 두 명의 객원과 함께 풍부한 음향을 더했다. 제1 바이올린의 얀 탈리히(주니어)는 탈리히 사중주단의 창립자인 얀 탈리히의 아들로서, 명쾌한 선과 강렬한 멜로디로 리드한다.

CAL 9379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나탈리 슈투츠만(콘트랄토), 잉어 쇠데르그렌(피아노)

콘트랄토의 음성으로 듣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슈베르트의 노래는 대부분 테너나 바리톤의 차지였다. 베이스가 부르는 슈베르트도 그리 희귀한 것은 아니다. 만약 여성이 부르는 슈베르트는 왠지 어색하다면, 칼리오페에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녹음하고 있는 나탈리 슈투츠만으로 그 편견을 깨자. 그녀는 콘트랄토의 두텁고 낮은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드라마틱한 표현과 내면적인 낭만 가곡의 감수성을 동시에 지닌 보기 드문 성악가이다. 슈베르트의 여러 연가곡 중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는 비교적 감정의 폭이 큰 작품으로, 슈투츠만의 목소리는 이 곡에서 더욱 돋보인다.

Dynamic

www.dynamic.it

CDS659
바흐:
골트베르크 변주곡
안드레아 바케티(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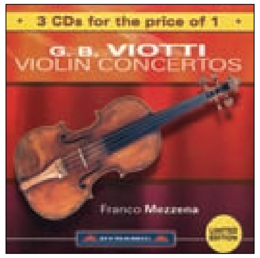
우리가 기억해야할 바흐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바케티글렌 굴드와 같이 바흐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온다. 다이나믹에서 꾸준히 바흐를 연주해오고 있는 안드레아 바케티도 그러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커플링되어있는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작은 건반음악집〉은 바흐가 아내를 위해 편집한 일종의 명곡집이다. 바케티는 이 악보집에 따라 〈골드베르그〉의 아리아를 다시 연주하였으며, 유명한 〈메뉴엣〉과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의 전주곡 C장조 등 다섯 곡을 단아하게 연주하였다.

CDS673
파가니니:
기타 작품집
귀도 픽트네르(기타)

파가니니 로맨틱 기타의 고혹한 매력기타 독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러한 파가니니의 기타 예술을 온전히 펼쳐 보이고 있다. 귀도 픽트네르는 파가니니의 37개의 기타 소나타와 기타 사중주곡들을 녹음하여 파가니니 기타곡의 전문가로 떠오른 연주자로, MS85부터 MS105까지의 독주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소나타, MS87〉이나 〈로도비스카 신포니아, MS98〉 등의 중후한 작품들은 그가 기타를 바이올린과 동등하게 보고 있음을 증명한다. 1822년 루이스 파노르모를 카피한 로맨틱 기타의 낭랑하고 밝은 음색으로 고전과 초기 낭만 시대의 고혹한 매력을 즐겨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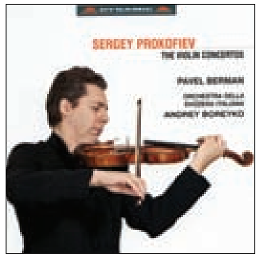
CDS613/1-2 [2CDs]
타르티니:
바이올린협주곡 Vol.16
조반니 굴리엘모(vn,cond)/ 라르테 델라르코

이탈리아의 실력파 시대악기 앙상블인 라르테 델라르코가 진행 중인 타르티니 바이올린 협주곡 전집의 16번째 음반. 18세기에 활약했던 여러 이탈리아 작곡가들 중에서도 바이올린에 가장 특화되었던 작곡가가 바로 타르티니였다. 그는 바이올린을 위해 135편의 협주곡과 200여 편의 소나타를 후대에 남겼다. '악마의 트릴', '버림받은 디도'와 같은 특징적인 부제를 가진 소나타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미덕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협주곡들의 매력도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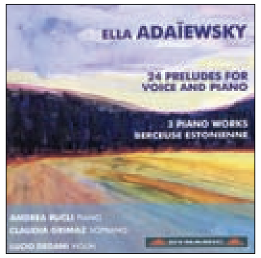
CDS680 [3 for 1]
비오티:
아홉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심포니아 페루시나, 프랑코 메체나(바이올린, 지휘)

LIMITED EDITION 이탈리안 클래식의 중심, 비오티 바이올린 협주곡 3FOR1비오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작곡가로도 큰 명성을 얻었는데, 자신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만큼 29개에 이르는 바이올린 협주곡들이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남아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제자인 프랑코 메체나는 심포니아 페루시나와 함께 역사적인 비오티의 장대한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녹음을 일구어냈다. 이 음반에는 최초 녹음도 다수 포함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전체 10장의 음반 중 세 장을 묶어 한 장 가격으로 발매하는 이 특별 한정판은 비오티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CDS 676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1, 2번 등
파벨 베르만(바이올린), 스비체라 이탈리아나 오케스트라, 안드레
이 보레이코(지휘)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베르만의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파벨 베르만은 17세에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실버 메달을 획득하고 20세에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골드 메달을 획득하여 약관의 나이에 세계 정상의 연주자로 우뚝 올라섰다. 프로코피에프의 두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의 진가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느린 패시지에서는 깔끔하고 명징한 프레이징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빠르고 격렬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고 다이나믹한 연주로 기교적인 완성도를 드러낸다. 희귀한 작품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에서는 숨은 매력을 최대한 끌어낸다.



CDS 633
아다옙스키:
목소리와 피아노를 위한 24 전주곡, 피아노 소품들
안드레아 루클리(피아노), 클라우디아 그리마스(소프라노), 루치오 데가니(바이올린)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낭만적 감수성을 일깨우다러시아의 여류 작곡가 엘라 아다옙스키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붐을 일었던 복잡하고 대형화된 음악보다는 투명하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열었다. 〈목소리와 피아노를 위한 24 전주곡〉은 이러한 아다옙스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쇼팽의 〈24 전주곡〉의 오마주로서 24개의 모든 조성을 사용하면서 베노 가이거의 시를 가사로 노래를 붙였다. 낭만적인 애수가 모든 곡을 관통하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안드레아 루클리의 터치는 신비롭다. 고풍스러운 춤곡들과 단아한 〈에스토니아 뱃노래〉도 인상적이다.

DM8010
Janacek:
Piano Works
안드레아 페스탈로차(피아노)

세련된 터치로 그려낸 야나체크의 피아노민속적인 아우라가 깃든 야나체크의 작품들은 기존의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작품들은 대부분 체코 연주자의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페스탈로차의 도전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 음반은 지금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페스탈로차의 1990년 녹음으로, 체코의 민속적인 특징을 넘어 학구적인 분석력과 뛰어난 리듬 감각으로 정련된 자신의 음악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의 세련되고 영롱한 터치는 '밤인사' 등과 같은 감상적인 작품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DM8011
Vivaldi:
The Best of La Cetra II
죠바니 굴리엘모(바이올린&지휘), 라르코 델라르코

비발디의 순수한 기쁨을 만나다 이 음반은 〈라 체트라 II〉 중 여섯 곡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2번과 11번을 처음과 끝에 배치했다. 다이나믹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고음악 앙상블 라르코 델라르코는 극단에 치우치는 자극적인 해석보다는 담백한 스타일을 택하면서 음악이 갖는 순수한 기쁨을 전달한다. 이것이 이들의 연주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DM8012
Bottesini:
Three String Quartet
엘리사 사중주단

세 개의 현악사중주로 보테시니의 낭만을 즐긴다더블베이스 연주자였던 죠바니 보테시니는 오늘날 더블베이스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페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낭만 작품들을 작곡했다. 이 음반은 보테시니의 고전적인 세 개의 사중주곡을 수록하여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보테시니의 진정한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 특히 이 곡들은 슈베르트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극적인 표현을 고조시키는 과감한 전조로 19세기 낭만의 정취를 담아내고 있다. 명확한 프레이징과 과감한 보잉을 가진 엘리사 사중주단은 이러한 보테시니의 매력을 드러내기에 최적의 앙상블이다.

DM8013
Brescianello:
Sonatas for Gallichone
테렐 스토네(갈리코네)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다, 브레샤넬로의 갈리코네 소나타 '갈리코네'라는 악기는 류트와 비슷한 모양의 18세기 악기로서, 튜닝이나 연주법은 기타에 가까웠다. 이 음반은 브레샤넬로의 갈리코네를 위한 18개의 모음곡 중 아홉 곡을 수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모음곡 형식과 이탈리아의 소나타 형식이 절묘하게 결합된 각 모음곡은 본래 아무런 명칭이 붙어있지 않았지만, 테렐 스토네는 당시의 유행에 비추어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또한 직접 내지를 작성할 정도로 이 곡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갈랑트 스타일의 감미로운 선율들은 '감미로운 음악' 시리즈에 숨겨진 보석이다.

DM8014
Vivaldi:
6 Concerti a Due Violini
죠바니 굴리엘모(바이올린&지휘), 라르코 델라르코

가슴으로 듣는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협주곡을 수록하고 있다. 스승의 제1 바이올린을 제자의 제2 바이올린이 모방하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피에타 고아원에 몸담았던 비발디의 헌신적인 모습이 투영되어있다. 다이나믹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고음악 앙상블 라르테 델라르코의 비발디 연주는 독주악기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경쟁하기보다는 음악이라는 유기체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충격보다는 편안함을, 날카로움보다는 따뜻함을, 낯선 표현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들려준다. 이들의 연주가 머리나 몸보다는 가슴에 먼저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DM8015
Fasch, Graupner, Graun
스테파노 발리아노(리코더), 수잔 켈링(메조소프라노), 파브리치오 치프리아니(바이올린), 콜레기움 프로 무지카

18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리코더 작품바흐와 동시대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파쉬, 그라우프너, 그라운 세 작곡가의 리코더 협주곡과 리코더 소나타, 연주회용 아리아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바흐의 그늘에 가려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자의 근거지에서 큰 명성을 누리던 18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었다. 이들은 바로크의 유산인 복잡한 대위법보다는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스타일에 따른 가벼운 곡들을 썼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즐겁고 가벼운 리듬 등으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DM8016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나탈리아 로메니코(바이올린), 올가 시트코벳스키(피아노)

감추어진 내면적 갈등과 낭만적인 애수를 포착해낸 로메니코의 연주노보시비르스크는 러시아 제3의 도시이자 예술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도시로서 러시아 남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곳 출신인 나탈리아 로메니코는 풍부한 감수성과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해석으로 러시아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로메니코는 이 음반을 위해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택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스타일이 작품들이지만, 로메니코는 패시지 하나하나에 감추어진 내면의 갈등과 낭만적인 애수를 포착해냈다. 러시아의 정상급 피아니스트인 올가 시트코벳스키의 반주로 그 표현력이 배가된다.

DM8017
리스트:
희귀한 피아노 작품들
그레고리오 나르디(피아노)

숨겨졌던 리스트의 환상적 세계가 드러나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 피아노 음악에 대한 조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희귀한 작품을 모은 이 음반은 숨겨졌던 리스트의 또 다른 세계를 드러낸다. 〈B-A-C-H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푸가〉와 〈바흐의 '울음, 탄식, 근심, 두려움'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는 리스트의 바흐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있으며, 20분에 이르는 서사시 〈청교도의 아련한 추억〉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낭만적인 애상이 깃든 〈기도〉와 한적한 여유가 가득한 〈뱃노래〉도 지극히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DM8018
바치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알도 오르비에토(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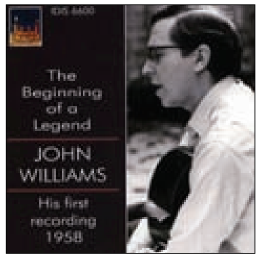
19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린의 낭만과 열정19세기 이탈리아는 베르디, 푸치니 등 오페라 작곡가들이 주름잡던 시대였다. 그러한 탓에 훌륭한 기악 작품들이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안토니오 바치니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담은 이 음반은 이 시대의 한 편린을 기록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약했던 바치니는 전 유럽을 여행하며 큰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협주곡은 이탈리아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던 슈만도 찬사를 보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완숙기인 1865년과 1867년에 작곡된 고전적인 소나타와 모르소들로, 낭만의 자유로운 활기와 쾌활한 이탈리아의 정서가 가득하다.

IDIS6610
Beethoven:
Symphony Nos. 1 & 5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클렘페러와 필하모니아, 전성기를 맞이하다오토 클렘페러가 영국의 필하모니아의 상임지휘자가 된 것은 1959년이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녹음은 1960년 5월 말과 6월 초에 빈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으로, 클렘페러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하던 시기의 기록이 된다. 과감한 다이나믹 표현에도 안정된 밸런스를 들려주는 이 연주는, EMI의 사적인 교향악단에서 영국의 대표 관현악단으로 부상시킨 거장 클렘페러의 능력을 증명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오랜 기간 이어졌던 슬럼프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클렘페러의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IDIS6611
Franck:
Symphony
세르지우 첼리비다케(지휘), 로마 RAI 심포니, 토리노 RAI 심포니

첼리비다케의 또 하나의 기록, 프랑크의 〈교향곡〉20세기의 중요한 지휘자인 첼리비다케는 브루크너의 연주로 큰 명성을 얻었다. 브루크너가 오르간의 음향을 관현악으로 재현한 것을 생각하면, 프랑스의 중요한 오르가니스트였던 프랑크의 〈교향곡〉을 첼리비다케로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1957년 로마 실황은 오르간다운 중후한 음색과 함께, 젊은 시절의 왕성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극적인 템포의 변화와 큰 폭의 다이나믹 운용에서 첼리비다케의 명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1960년 토리노에서 있었던 차이코프스키의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실황은 섬세하면서도 고요한 긴장감이 깃든 첫 시작부터 곡이 끝나는 순간까지 집중하게 될 것이다.



IDIS6600
John Williams:
The Beginning of a Legend
존 윌리엄스 1958년 최초 레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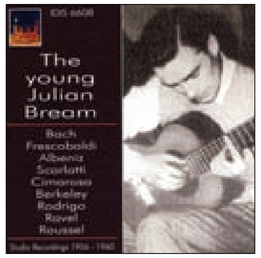
호주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는 독주자로서의 폭넓은 활동과 더불어 줄리언 브림과의 함께 남긴 주옥같은 여러 레코딩과 클래시컬 락 그룹 SKY의 리더로도 맹활약했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본 음반은 그가 1958년에 남긴 첫 레코딩을 복각한 것으로, 바흐의 모음곡 BWV1007,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소르의 변주곡,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폰체, 두아르테 등의 주옥같은 기타 레퍼토리들을 망라하였다.

DM8019
롤라: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 개의 이중주
살바토레 아카르도(바이올린),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비올라)

이탈리아 고전의 보물, 롤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고전 시대의 이탈리아 기악 음악은 보물창고와 같다.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밀라노에서 활동했던 알레산드로 롤라는 그 보물 중 하나이다. 그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비르투오조로 큰 명성을 얻었는데, 오늘날에는 파가니니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음반이 수록하고 있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이중주는, 두 악기 모두 그가 다루었던 악기였던 만큼, 화려하고 기교적이면서도 하모니와 각각의 개성을 훌륭히 살려내고 있다.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카르도와 비안키의 앙상블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DM8020
보테시니: 더블베이스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변주곡
오비디우 바딜라(더블베이스), 청 컹-유엔(바이올린)

더블베이스 협주곡에서 보테시니의 위대성을 발견하다19세기를 맹활약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죠바니 보테시니는 당시 큰 명성을 얻었던 더블베이스 연주자였다. 그래서 그의 두 개의 협주곡을 비롯한 더블베이스 작품은 가장 중요한 더블베이스 레퍼토리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곡들의 중요성을 특정 악기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슈베르트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극적인 표현을 고조시키는 과감한 화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표현력을 가진 오비디우 바딜라는 보테시니의 위대성을 증명하며,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변주곡〉에서는 자신의 기교를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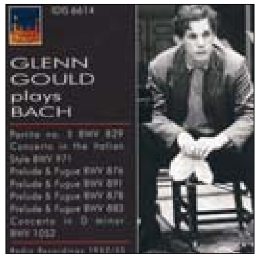


IDIS6608
The Young Julian Bream
줄리언 브림(기타)

20대 중반 젊은 시절의 줄리언 브림줄리언 브림이 20대 중반에 녹음한 기타 소품들로, 프레스코발디부터 버클리에 이르기까지 300년의 클래식 음악 역사를 꿰뚫고 있다. 브림은 부드러운 프레이징과 완벽한 기교로 그 어떤 낯선 작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드는 마력을 발휘한다. 바흐의 〈샤콘느〉를 비롯하여 스카를라티와 치마로사의 소나타,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등 잘 알려진 작품을 본래 기타곡으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기타 음악을 만들어냈다. 특히 라벨의 연주가 들려주는 그 어떤 연주보다도 애틋한 애수를 느껴보라.

IDIS 6612
베토벤:
교향곡 2, 5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클렘페러의 위대한 기록오토 클렘페러가 그의 오케스트라인 필하모니아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펼치기 시작했던 1960년 5월 29일과 30일에 빈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이다.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적 표현력을 확대시키면서도 작품의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템포를 엄격히 통제하는 거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향곡 2번〉은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연주가 되지 않은 곡 중에 하나이지만, 클렘페러는 섬세한 프레이즈로 전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면서 이 작품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정신을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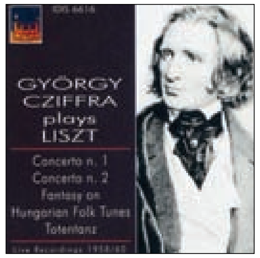


IDIS 6614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
글렌 굴드(피아노)

전설이 된 글렌 굴드의 1950년대 바흐 녹음글렌 굴드의 바흐가 전설이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골트베르크 변주곡〉이 준 충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은 바흐에 대한 깊은 애착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1950년대 초반의 바흐 녹음이 바로 그 증거이다. 1952년에 녹음된 〈이탈리아 협주곡〉은 바로크 음악에 대한 혜안을 보여주며, 1954년에 녹음된 〈파르티타 5번〉은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연상케 하는 개성이 넘치면서도 당찬 터치를 들을 수 있다. 1955년에 녹음된 〈협주곡 D장조〉에서 굴드의 바흐는 이미 완성되어있다.

IDIS 6615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오토 클렘페러(지휘)

1960년의 비엔나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클렘페러의 베토벤 합창 교향곡1960년 6월 7일, 비엔나 페스티벌에서 열렸던 클렘페러와 필하모니아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마지막 날에 연주된 〈교향곡 9번 '합창'〉이다. 이보다 이른 2일에 연주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도 함께 수록되었다. 이 때는 클렘페러가 필하모니아를 맡고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던 시절로, 새롭게 젊음을 얻은 듯 자신감 넘치는 다이나믹이 눈에 띄며, 동시에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는 거장의 풍모도 공존하고 있다. 립, 뵈체, 분덜리히, 크라스 등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합창 교향곡〉의 독창진은 이 음반의 가치를 더한다.



IDIS 6616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 2번 등
죄르지 치프라(피아노)

20세기 최고의 리스트 연주자 치프라의 전성기 시절 녹음죄르지 치프라의 삶은 지극히 드라마틱했다.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세계대전 참전 후 궁핍한 삶을 살면서 투옥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기에 성공하여 '제2의 리스트'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은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뿐이었다. 이 음반은 바로 이 시절인 1958~60년에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등을 수록하고 있다. 그의 특징인 에너지에 찬 육중한 음색과 섬세한 다이나믹을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대 후반의 절정의 기교를 감상할 수 있다.

M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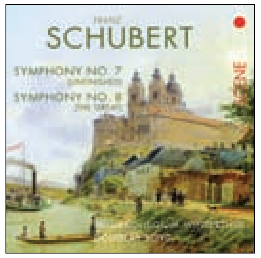
www.mdg.de

905 1635-6 [Hybrid-SACD]
줄리아니: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작품들
안드레아 리버크네흐트(fl)/ 프랑크 분가르텐(guitar)

MDG의 슈퍼 베스트 셀러였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갈랑트 뮤직의 후속작이 보다 우수한 음질의 Hybrid-SACD 포맷으로 발매되었다.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기타의 명인 마우로 줄리아니가 플루트와 기타를 위해 완성한 매력적인 포푸리와 변주곡, 그리고 서정미를 가득담은 노투르노들이 안드레아 리베르크네흐트의 감미로운 플루트와 프랑크 분가르텐의 영롱한 기타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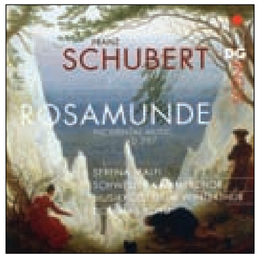
903 1632-6 [Hybrid-SACD]
쇼팽:
피아노협주곡 1,2번 (피아노와 현악오중주를 위한 편곡)
잔루카 루이지(pf)/ 앙상블 콘체르탄테 프랑크푸르트

쇼팽은 파리에 정착한 이후 상류층을 위한 살롱 음악에 최적화된 작곡가로 각광받았다. 그가 폴란드 시절에 완성했던 두 편의 협주곡들은 이러한 작은 규모의 살롱에서 연주하기가 불가능한 작품들이었지만, 그는 이들을 피아노와 현악오중주를 위한 편성으로 축약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였다. 필연적으로 스케일은 줄어들었지만, 작곡가 특유의 빼어난 선율미는 한층 더 돋보이게 되었다.



901 1636-6 [Hybrid-SACD]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교향곡 8번 '그레이트'
더글라스 보이드/ 무지콜레기움 빈터투르

슈베르트가 남긴 가장 걸출한 두 교향곡인 교향곡 7번 '미완성'과 교향곡 8번 '더 그레이트'를 훌륭한 음질의 SACD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음반. 162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전통의 악단인 무지콜레기움 빈터투르는 세계적인 오보에 연주자이자 현재 지휘자로도 성공적으로 변신한 더글라스 보이드를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한 이후 한층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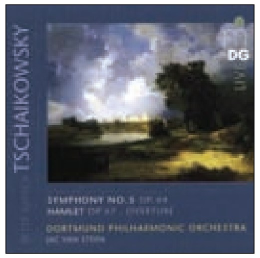


901 1633-6 [Hybrid-SACD]
슈베르트:
극부수음악 '로자문데'
세레나 말피(sop)/ 슈바이처 실내합창단/ 더글라스 보이드/ 무지콜레기움 빈터투르

슈베르트는 생전에 극음악 분야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헬미나 폰 헤치의 '로자문데'에 대한 극부수음악이다. 촉박한 시기로 인해 서곡은 이전 작품인 '마술 하프'의 서곡을 빌려왔으며, 귀에 익은 인기작인 발레-안단티노 외에도 영혼들의 합창, 사냥꾼들의 합창, 작곡가 특유의 로맨틱한 감성이 돋보이는 로만체 등의 매력적인 작품들로 가득하다.

307 1683-2
하이든:
현악사중주 '일출', '황제', '5도'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현악사중주단인 라이프치히 쿼텟이 진행중인 하이든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제3탄. 에르되디 백작의 위촉으로 완성된 여섯 편의 현악사중주(Op.76)는 하이든의 방대한 현악사중주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들에 속한다. 본 신보에는 Op.76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세 작품인 '황제', '5도', '일출'을 골라 담았다.



601 1668-2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환상서곡 '햄릿'
약 반 스텐/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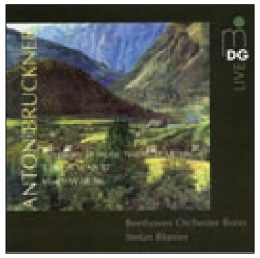
1887년에 결성된 독일의 중견 악단인 도르트문트 필은 네덜란드의 실력파 지휘자 약 판 스텐을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레코딩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호평을 받았던 드보르작 교향곡 6번에 이어 보다 대중적인 레퍼토리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후속작으로 선보인다. 2009년 6월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MDG가 자랑하는 고해상도 녹음이 실황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303 1665-2
가데:
피아노트리오 Op.42, 노블레테 Op.29 외
트리오 파르나수스

덴마크 작곡가 닐스 가데(1817-90)는 멘델스존의 후임으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감독을 맡았으며, 슈만, 요아힘 등과도 깊은 친분을 나눴다. 그는 슈만과 멘델스존의 로맨틱한 악풍을 충실히 계승하였는데, 그의 유일한 피아노트리오 완성작인 Op.42와 같은 편성을 위한 서정적인 소품 모음집인 노벨레테 Op.29, 그리고 피아노 사중주를 위한 스케르초 등에서 이러한 그의 음악 스타일이 잘 드러난다.

342 1685-2
베토벤/라벨/슈만:
피아노트리오
빈 피아노트리오

1988년 결성된 이래 정상급 실내악 앙상블로 군림해온 빈 피아노 트리오의 최신보. 앞서 차이코프스키/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음반으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와 BBC 뮤직매거진의 이달의 음반을 석권했던 이들이 지난 2010년 8월 마리엔뮌스터 성당에서 가졌던 연주회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각기 고전, 낭만, 근대의 피아노트리오를 대변할 만한 작품들인 베토벤, 슈만, 라벨의 걸작들로 프로그램을 꾸몄다.



937 1673-6 [Hybrid-SACD]
브루크너:
교향곡 0번, 행진곡, 3개의 관현악소품
슈테판 블루니어/ 베토벤 오케스터 본

교향곡 D단조는 원래 교향곡 2번이 됐어야했을 작품이다. 브루크너는 부정적인 평가에 상심하여, 이 작품을 버린 자식 취급했다. 이 작품은 틴트너와 같은 이가 '완성도 높은 걸작'으로 격찬했을 정도로 브루크너의 모든 음악적 특징들의 예조를 충실히 담고 있는 수작이다. 본 음반에는 이 비운의 교향곡과 더불어 1892년에 완성한 작곡가의 최초 관현악 작품들인 3개의 관현악소품과 행진곡의 최초 레코딩이 수록되었다.

947 1681-6 [Hybrid-SACD]
슈만:
판타지아 Op.17, 피아노소나타 1번
진 주(pf)

2009년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위한 연주회를 맡음으로써 화제를 모았던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진주의 MDG 데뷔 레코딩. 클라라를 향한 비밀스런 연서의 역할을 했었던 작품인 피아노소나타 1번 Op.11과 원래 소나타를 염두에 두었지만 자유로운 환상곡의 형태로 마무리된 판타지아 Op.17을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902 1694-6 [Hybrid-SACD]
카르트:
종교합창곡집
마리아 위르겐센/ 북독일 실내합창단

요하네스 에카르트는 르네상스 시대 독일 개신교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작곡가다. 그는 한 때 바이에른 궁정에서 당시 그곳의 카펠마이스터였던 라소의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음반에 수록된 미사 'Mon coeur se recommende a vous'는 바로 라소의 세속가곡을 정선율로 완성한 작품이다. 그와 함께 이후에 루터교 전례를 위해 완성한 독일어 텍스트의 폴리포니 합창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909 1664-6 [Hybrid-SACD]
이탈리아 앨범 (베르디와 푸치니의 아리아와 서곡들)
티모시 리처즈(te)/ 빌헬름 카이텔/ 민스크 오케스트라

웨일즈 출신의 티모시 리처즈는 1998년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로 웨일즈 국립 오페라에서 데뷔한 이후 드레스덴 젬퍼오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 베를린 코미셰오퍼, 글라인드본 등의 유럽 일급 오페라 무대들을 거치면서 매력적인 리리코 스핀토 테너로 각광받고 있다. 본 음반에는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맥베스', '외투', '라보엠', '투란도트' 등의 유명 아리아들이 수록되었다.

609 1674-2 **[3 for 2]**
헨델: 알레산드로 세베로
만차로: 돈 크레푸스콜로
마리 엘렌 네시 외/ 게오르게 페트로우/ 아르모니아 아테네아

그리스의 젊은 지휘자 게오르게 페트로우의 헨델 오페라 시리즈 최신보. 1738년에 초연된 3막 오페라 '알레산드로 세베로'에 도전하였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전작인 '주스티노', '베레니체', '아르미니오'에서 대부분의 음악을 빌려온 일종의 파스티치오 오페라로, 서곡과 레치타티보만 새롭게 작곡한 것이다. 19세기 그리스 작곡가인 만차로(그리스 국가의 작곡가다)의 모노드라마 '돈 크레푸스콜로'가 함께 수록되었다.

324 0087-2 **[재발매]**
도프라:
호른 육중주
데트몰트 호르니스텐

루이 프랑스와 도브라는 19세기 전반기 호른 비르투오조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만년에는 파리음악원에서 수많은 호른 연주자들을 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호른 앙상블을 위한 작품을 요청했던 제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라이하의 작품과 유사한 포맷의 작품인 6대의 호른을 위한 Grand Sextuor를 완성하였다. 여섯 대의 호른이 만들어내는 중후한 앙상블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다.

Indésens

www.indesens.fr

앵데장 (Indésens)은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음악 전문 레이블입니다. 설립자 브누아 도(Benoît d'Hau)가 트럼펫과 혼에 열정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앵데장은 집중적으로 관악기 작품의 음반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에 이르러 프랑스에서 관악기를 위한 많은 명작들이 작곡되어 이 시기의 작품들이 많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생상스와 풀랭크, 뒤티외의 모든 관악 작품들을 앵데장에서 들어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훌륭한 작곡가들의 다양한 스타일의 관악작품들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다른 지역의 작곡가와 바로크와 낭만 시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오케스트라와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프랑스 최고 관현악단의 수석 연주자들이 이 레이블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타악기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1차 발매분 15종을 소개합니다.

INDE001
Eric Aubier:
Great French Concertos
에릭 오비에(트럼펫), 마리우스 콩스탕(지휘), 파리 국립 오페라 관현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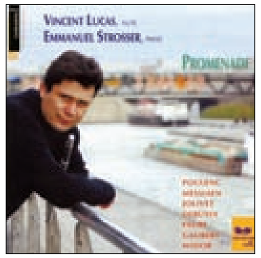
오비에의 본능이 깨어나다, 프랑스 트럼펫 협주곡모리스 앙드레의 제자로서 파리 음악원을 14세에 졸업한 천재적인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의 20세기 중반 프랑스 트럼펫 협주곡 음반. 현대의 작품들은 정확한 박자 감각과 폭넓은 표현력 등을 요구하는 작품들이 많다. 그렇기에 현대작품에서 오비에의 남다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 트럼펫의 고전 레퍼토리가 된 졸리베의 <트럼펫 협주곡 2번>과 <콘체르티노>에서 오비에는 졸리베의 재치 있는 리듬을 본능적으로 표현해내며, 데장클로와 토마지, 센느 등의 협주곡들도 심각하기보다는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불꽃 튀는 축제의 향연을 펼친다.

INDE002
Le Trombone Français
장 라파르(트롬본), 오쓰 유미(피아노)

우리가 만나야 할 프랑스 트롬본 작품들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트롬본 수석인 장 라파르가 프랑스 작곡가의 트롬본 작품들을 연주했다. 라파르는 따뜻하고 포근한 음색과 남성적인 박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색채로 묘사하는 프랑스 음악에 안성맞춤이다. 생상스의 <카바티나>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은 트롬본의 매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로쥬 부트리의 <광시곡>은 축제에 어울리는 리드미컬한 작품으로, 트롬본의 넓은 표현력에 감탄하게 된다.

INDE007
로시니: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유명 아리아 모음집
에릭 오비에(트럼펫), 루마니아 방송 관현악단, 아모리 뒤 클로셀(지휘)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오비에가 연주하는 로시니의 화려한 아리아로시니의 39곡의 오페라 중 <세비야의 이발사>를 제외하고는 무대에 올려지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신데렐라> 등 여러 작품들이 상연되어 화제가 되는 등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로시니의 화려하면서도 기교적인 아리아들이 재발견되고 있는데,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는 자신의 트럼펫으로 이들을 소화하는 모험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세비야의 이발사>, <신데렐라>를 비롯하여 서곡으로 잘 알려진 <기욤 텔>, <비단 사다리>, <도둑 까치> 등의 아리아를 화창한 아침의 신선한 햇살과 같은 오비에의 트럼펫으로 만나보자.



INDE009
Promenade
뱅상 뤼카(플루트), 에마뉘엘 스트로스(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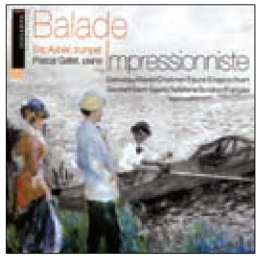
20세기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드넓은 세계파리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인 뱅상 뤼카가 연주한 프랑스 플루트 작품집이다. 플루트는 프랑스 인상주의를 표현하는 악기로 각광을 받았다. 뤼카 역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 <시링크스>와 함께 포레, 고베르 등 인상주의적인 작품을 부드럽고 환상적인 음색으로 연주했다. 그러나 뤼카는 비도르의 따사로운 <모음곡>과 풀렝크의 재치있는 <플루트 소나타>를 청량한 음색으로 연주하여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다양함을 웅변하고 있다. 메시앙의 <검은 티티새>와 졸리베의 <사자의 노래> 또한 새로운 경험이다.

INDE0011
Marc Trenel & Pascal Godart
마르크 트레넬(바순), 파스칼 고다르(피아노)

바순에 대한 프랑스인의 애정을 담아가장 중요한 바순 작품으로 비발디의 협주곡들과 함께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를 꼽는 것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프랑스 작곡가들은 바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는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를 비롯하여 알렉상드르 탕스망의 <소나티네>, 샤를 쾨클랭의 <세 개의 작품>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파리 오케스트라와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수석이자 파리 음악원 교수인 바순니스트 마르크 트레넬과 앵데장의 간판 피아니스트 파스칼 고다르는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앙상블을 들려준다.

INDE013
Poulenc:
Integrale
파리 오케스트라 관악기 수석 연주자들

풀렝크의 관악을 위한 실내악 전곡을 녹음한 기념비적인 음반프랑스 6인조의 중요한 멤버였던 프랑시스 풀렝크의 관악작품 전곡집이다. 이 음반은 플루트 독주를 위한 <유희>를 최초로 녹음하였으며,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소나타> 등 풀렝크 특유의 음악적 유머가 살아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들도 수록하고 있다. 이 음반은 풀렝크의 개성적인 화법과 각 작품의 독특한 뉘앙스를 훌륭히 살려낸 파리 오케스트라의 관악기 수석 연주자들의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기억될 것이다. 풀렝크는 25년간 관악작품을 쓰지 않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초기곡과 후기곡을 나누어 두 장의 CD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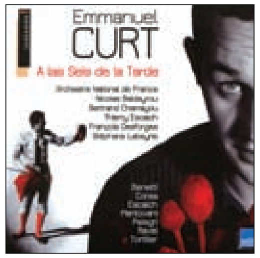


INDE014
인상주의자들의 발라드
에릭 오비에(트럼펫), 파스칼 갈레(피아노)

프랑스의 트럼페터 오비에가 노래하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오렌지 빛 발라드'프랑스 음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드뷔시를 위시한 '인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상주의는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플루트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악기로 등극했다. 하지만 프랑스 트럼펫의 거장 에릭 오비에는 트럼펫으로도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훌륭히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플루트 곡인 드뷔시의 <시링크스> 등을 트럼펫으로 연주한다는 것은 오비에만이 할 수 있는 경지이며, 포레의 <꿈을 꾼 후>와 라벨의 <아바네라>와 이베르의 <즉흥곡> 등 오비에의 트럼펫은 오렌지 빛 오후의 몽환을 노래한다.

INDE021
Saint-Saens:
Complete Chamber Music with Winds
파리 오케스트라 관악기 수석 연주자들

관악기를 사랑했던 생상스의 관악을 위한 실내악 전곡 음반생상스는 관악기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작곡가이다. 이미 불후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순 소나타>를 비롯하여 클라리넷, 오보에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다.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생상스의 관악을 위한 전곡집을 내놓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트럼펫을 위한 실내 협주곡과 같은 인상을 주는 <7중주>는 새로운 발견이다. 또한 혼과 플루트, 트롬본 등을 위한 소품들은 정성어린 선물이다. 이미 프랑스 음악에 있어서 정상의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은 풀렝크에 이어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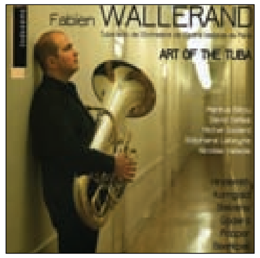


INDE024
Emmanuel Curt:
A las Seis de la Tarde
에마뉘엘 퀴르(타악기),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타악기로 만드는 꿈과 같이 신비한 세계타악기 연주자 에마뉘엘 퀴르의 앨범. 표지에 그려진 투우사에서 보듯이 이 앨범은 첫 곡 페르난도 페네야의 <로스 미우라스>부터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이어지는 디디에 르 베네티의 <위도> 역시 세 도시의 인상을 그리면서 환상적으로 이끈다.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인사>와 재즈 아티스트로 유명한 칙 코리아의 <뮤직매직>은 타악기만이 들려줄 수 있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아우라를 펼친다. 이탈리아 최고의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브루노 만토바니와 프랑스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티에리 에스케슈의 작품에서는 에마뉘엘 퀴르의 무게감을 확인할 수 있다.

INDE026
Eiichi Chijiiwa:
Solo Migration
비르투오조 무반주 바이올린의 화려한 세계

여러분은 무반주 바이올린 곡을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파리 관현악단의 부악장인 치지이와 에이치가 화려한 레퍼토리의 무반주 바이올린 곡을 녹음했다. 프랑스 작곡가인 미요와 졸리베, 마르티농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루마니아의 조르주 에네스쿠, 러시아의 스트라빈스키, 그리스의 크세나키스, 스위스의 오네게르, 벨기에의 이자이, 일본의 타이라 등 치지이와의 레퍼토리에는 욕심이 묻어난다. 하지만 욕심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곡에서 만나게 되는 그의 풍부한 표현력과 섬세한 감수성으로부터 그의 예술관에 설득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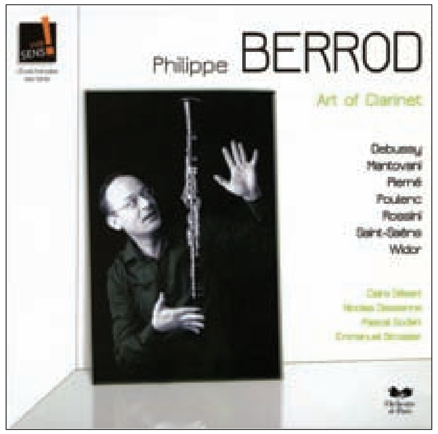


INDE027
Fabien Wallerand:
Art of the Tuba
튜바의 예술, 지금은 튜바의 매력에 빠져볼 시간!

여러분은 튜바 연주에 귀를 기울여본 적이 있는지? 오케스트라의 맨 뒤의 한쪽 구석에 앉아 시야에서 지나쳐버리기 쉬운 최저음 금관악기 튜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튜바 수석인 파비앙 와예랑은 이 음반을 통해 튜바의 매력을 세상에 알린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인 힌데미트의 <튜바 소나타>를 비롯하여 여러 튜바 작품과 함께 코른골트와 포퍼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튜바로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와예랑이 직접 작곡한 세 대의 튜바를 위한 <포도원>은 튜바뿐만 아니라 와예랑 자신의 매력도 함께 전달한다.

INDE029
Jacques Mauger:
Meditation
자크 모저(트롬본), 미카엘 마테스(오르간)

봄 햇살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트롬본의 매력파리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일본에서도 교수직함을 갖고 있는 자크 모쥬는, 오늘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롬보니스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잘 알려진 클래식 소품들을 녹음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나 구노의 〈아베 마리아〉, 생상스의 〈백조〉,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등은 주로 바이올린과 첼로와 같은 현악기로 연주하는 곡들이지만, 봄 햇살과 같이 포근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을 울리는 모쥬의 트롬본은 이 곡들이 간직하고 있지만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을 풀어놓는다.



INDE030
Philippe Berrod:
Art of Clarinet
클라리넷의 예술, 필리프 베로의 예술

파리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인 필리프 베로가 연주한 프랑스 클라리넷 작품집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드뷔시의 〈랩소디 1번〉과 생상스와 풀렝크의 〈클라리넷 소나타〉는 가장 중요한 프랑스 클라리넷 문헌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오늘날 들을 기회가 적은 피에르네의 〈칸초네타〉와 중요한 오르간 작품을 남긴 비도르의 〈서주와 론도〉는 전형적인 낭만 음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작곡가인 로시니의 〈서주, 주제와 변주〉와 만토바니의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기술〉은 베로의 예술이 프랑스를 넘어서있음을 증명한다.

INDE031
Frederic Chopin:
24 Preludes
코르토의 제자가 코르토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쇼팽의 전주곡

어렸을 적에 코르토의 가르침을 받았던 플로랑스 들라쥬가 쇼팽의 〈24개의 전주곡〉을 녹음했다. 코르토는 쇼팽의 제자로 알려진 에밀 데콩브에게 배웠으니, 들라쥬는 쇼팽의 계보를 잇는 피아니스트가 된다. 코르토의 피아노는 1896년에 제작된 스타인웨이 B 모델로, 오늘날의 피아노에 비해 가볍고 명징한 톤을 가지고 있다. 들랑쥬는 이러한 특징에 맞도록 모호한 레가토보다는 명확한 리듬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다이나믹으로 격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종종 쇼팽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예술가 모임의 단아한 풍모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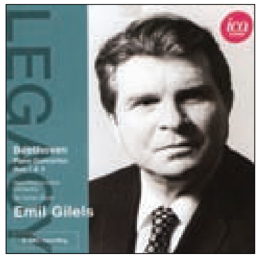
TUT005
Jacques Mauger:
Baroque Trombone Concertos
자크 모저(트롬본), 베르틸드 뒤푸르(지휘), 이 솔리스티 아추리

바로크 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 트롬본 협주곡바로크 시대에는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협주곡들이 많이 작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접할 기회가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파리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일본에서도 교수직함을 갖고 있는 트롬보니스트 자크 모쥬는 이 음반에서 바로크 시대의 트롬본 예술을 들려준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교회 소나타 형식을 갖춘 헨델의 협주곡과 모차르트의 아버지이자 당대 잘츠부르크 최고의 음악가였던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유산이다. 모쥬는 햇살이 쬐는 듯한 특유의 포근한 음색을 유지하면서 바로크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ICA(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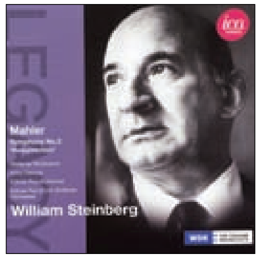
www.icartists.co.uk

ICA(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 굴지의 클래식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마리스 얀손스, 에사-페카 살로넨, 미츠코 우치다 등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았으며, 현재도 유리 바슈메트, 하르트무트 핸헨, 켄트 나가노, 마이클 틸슨-토마스, 안토니 비트, 니콜라이 데미덴코, 백건우, 다니엘 호프, 보로딘 쿼텟, 프랑소와 를루 등의 일급 아티스트 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음반 및 영상물 제작 쪽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의 최신 실황을 담은 Live 시리즈와 과거 거장들의 희귀 기록 들을 발굴하는 Legacy 시리즈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egacy 시리즈로서 10종의 FIRST CD RELEASE 타이틀과 함께 유리 바쉬메트의 음반을 선보입니다.. 에밀 길렐스, 윌리엄 스타인버그, 오토 클렘페러,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쿠르트 잔더링, 조르주 치프라,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 등 20세기를 빛냈던 거장들의 실황 녹음이 이루어졌으나 CD로 발매되지 못했던 귀중한 음원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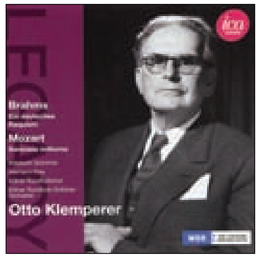
ICAC 5000
Emil Gilels:
Beethoven Piano Concertos Nos. 1 & 3
거장의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 에밀 길렐스의 베토벤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 에밀 길렐스. 1967년 7월에 런던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실황으로, 길렐스의 주요 레퍼토리였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3번이 수록되어있다. 길렐스는 이 연주에서 섬세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장중하면서도 유쾌한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거장의 기록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한다. BBC 스테레오 녹음은 깔끔하고 명징한 길렐스의 터치를 훌륭하게 담아내었다. 영국 지휘계의 거장인 아드리안 불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역시 길렐스의 연주에 유기적으로 반응한다.



ICAC 5001
William Steinberg: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음악 이상의 감격의 순간, 스타인버그가 지휘하는 부활 교향곡

쾰른 출생인 한스 빌헬름 슈타인버그는 나치를 피해 팔레스틴 지역으로 피신하여 후에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되는 팔레스틴 필하모닉을 창설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윌리엄 스타인버그'가 된다. 그가 다시 쾰른으로 돌아온 것은 1964년 11월의 일로, 정확히 1년 후인 1965년 11월에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지금의 WDR 교향악단인 쾰른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했다.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관현악단을 지휘한 사건은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매우 감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녹음은 바로 이 감격의 순간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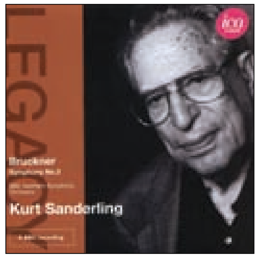


ICAC 5002
Otto Klemperer:
Brahm Ein Deutsches Requiem
클렘페러, 그뤼머, 프라이의 세기의 브람스 독일 레퀴엠

오토 클렘페러는 떠돌이 지휘자로 지내던 1950년부터 1954년 사이에 쾰른 방송 교향악단을 객원으로 지휘했으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시절 이후에도 종종 이 관현악단을 지휘했다. 1954년에 녹음된 모차르트의 〈세레나타 노투르나〉는 날렵하고 자유로운 독주 바이올린이 인상적이며, 1956년에 녹음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당시 최고의 성악가로 칭송받던 엘리자베스 그뤼머와 헤르만 프라이가 독창자로 참여하여 이 불멸의 기록을 남겼다. 전성기의 풍부한 성량에 아리아와 같은 극적인 표현을 실어 인상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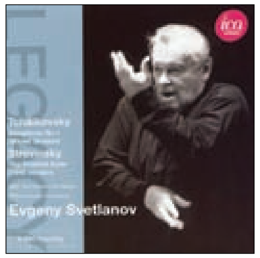
ICAC 5003
Arthur Rubinstein:
Brahms Piano Concerto No. 2
루빈스타인의 진면목을 확인하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루빈스타인은 쇼팽으로 유명하지만, 1966년 취리히에서 있었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연주의 실황 녹음은 루빈스타인의 더 큰 세계로 안내한다. 루빈스타인은 안정감 있는 해석으로 교향곡에 필적하는 이 곡을 리드하며, 그의 명확한 터치와 명징한 사운드는 거장의 예술세계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1963년 네덜란드의 네이메헨에서 있었던 리사이틀에서 연주한 쇼팽의 녹턴과 왈츠, 브람스의 랩소디와 카프리치오에서 변함없는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앵콜로 연주한 파야의 〈불의 춤〉에서 불꽃 튀는 그의 열정에 놀라게 될 것이다.



ICAC 5005
Kurt Sandering:
Bruckner Symphony No. 3
구 동독의 자존심, 쿠르트 잔더링의 예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냉전 시대. 하지만 그 동안에도 예술 교류는 지속되었다. 헤르베르트 케겔과 함께 동독의 거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쿠르트 잔더링도 서방세계에 종종 모습을 보였지만, 서방세계에서 발매된 음반의 수가 적어 신비에 싸여있었다. 이 녹음은 1978년 영국 뉴캐슬에서 있었던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실황으로, 중후한 음색과 전문가적인 깊은 탐구로 큰 찬사를 받아온 그의 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1982년 피어스 버튼-페이지와의 10분 정도 분량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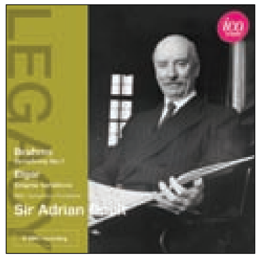


ICAC 5007
Evgeny Svetlanov:
Tchaikovsky Symphony No. 1
러시아의 살아있는 전설, 스베틀라노프가 펼치는 러시아의 환상

차이코프스키는 아름답고 세련된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토속적인 민요풍 선율에도 관심이 많았다. 〈교향곡 1번 '겨울의 몽상'〉은 이를 증명해주는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손을 거쳐 낭만적인 애틋한 선율로 탈바꿈되어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살아있는 전설, 스베틀라노프는 BBC 심포니를 통해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을 환상적으로 펼쳐놓았다. 2002년 녹음으로 음질도 훌륭하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는 1996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서, 디테일한 거장의 손길로 러시아의 색채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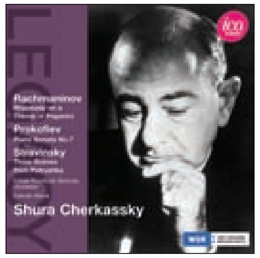
ICAC 5008
Georges Cziffra:
Cziffra in Prague 1955
철의 장막 뒤의 젊은 치프라가 연주하는 리스트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인 죄르지 치프라는 1968년에 프랑스로 망명하여 조르주 치프라가 되었다. 이 음반은 망명 전이었던 1955년 프라하에서 있었던 리사이틀의 귀중한 기록이다. 그는 이 연주회에서 CPE 바흐와 쿠프랭, 스카를라티 등 바로크와 고전 작곡가의 작품들과 함께, 메인 레퍼토리로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과 〈헝가리 광시곡 2번〉 등을 연주했다. 리스트는 치프라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준 레퍼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인 34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거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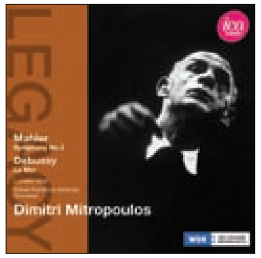
ICAC 5019
브람스: 교향곡 1번,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BBC 교향악단, 아드리안 볼트(지휘)

87세 노장의 예술혼으로 재탄생한 브람스 교향곡아드리안 볼트는 옛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90세까지 콘서트의 포디움에 올랐으며, 그 이후에는 스튜디오 녹음을 진행하는 등 스테레오 시대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브람스 〈교향곡 1번〉 녹음은 87세였던 1976년에 있었던 실황으로, 깔끔하고 깊이 있는 BBC 녹음으로 제작되었다. 니키쉬의 제자였던 시절부터 공부했던 곡인 만큼 섬세한 프레이즈 해석과 신중한 다이나믹, 안정된 템포 진행으로 거장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함께 수록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은 볼트의 전문이었으며, 85세 생일 때에 있었던 인터뷰도 귀중한 자료이다.



ICAC 5020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등
슈라 체르카스키(피아노), 쾰른 방송교향악단, 즈데네크 마칼(지휘)

진정한 체르카스키의 정수를 듣다러시아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인 슈라 체르카스키는 파데레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에게 인정을 받은 신동 피아니스트였지만, 성인이 되어도 신동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하지만 37세 때인 1946년에 함부르크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연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이 곡은 체르카스키의 중요한 레퍼토리가 되었으며, 이 음반에서 1970년 쾰른 연주를 들어볼 수 있다. 1950년대 초의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7번〉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연주에서는 그 시절의 환호를 느껴볼 수 있다.



ICAC 5021
말러:
교향곡 3번, 드뷔시: 바다
쾰른 방송교향악단, 디미트리 미트로풀로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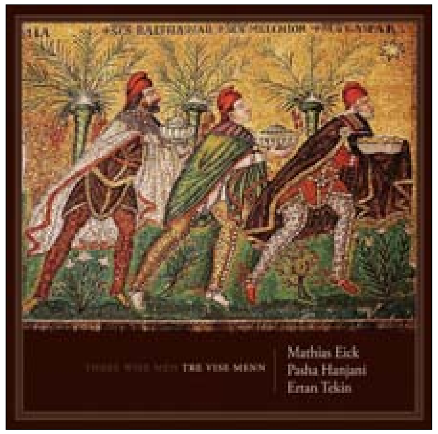
미트로풀로스 최후의 기록, 말러의 3번 교향곡바그너와 브루크너 등의 중후한 독일 음악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출신의 거장 지휘자 디미트리 미트로풀로스는 20세기 중반에 말러를 세상에 알린 파이오니어 중 한 사람이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말러의 〈교향곡 3번〉의 연주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인 1960년 8월 31일에 녹음된 것으로, 이보다 더한 말러에 대한 열정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대한 규모에도 흐트러짐 없이 중후한 무게감과 음악적 통일성을 유지하며, 천상의 부활로 인도한다. 일주일 전에 연주한 드뷔시의 〈바다〉 역시 표현의 깊이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ICAC 5023
브람스: 교향곡 3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노바야 로시야 국립 교향악단, 유리 바쉬메트(지휘)

바쉬메트의 감성적 매력이 더해진 브람스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최고의 비올리스트인 유리 바쉬메트는 자신이 창단한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에서 지휘자로서 자주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모스크바 솔로이스츠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현악단에서도 지휘자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전 레퍼토리를 통해 지휘자로서의 바쉬메트를 각인시켰다. 이 음반은 고전적이면서도 잘 알려진 교향곡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바쉬메트가 갖고 있는 젊고 액티브하며 신선한 이미지는 이 연주에서도 들어맞는다. 감각적인 템포와 주저함 없는 다이나믹, 프레이징의 과감한 표현으로 바쉬메트는 매력적인 개성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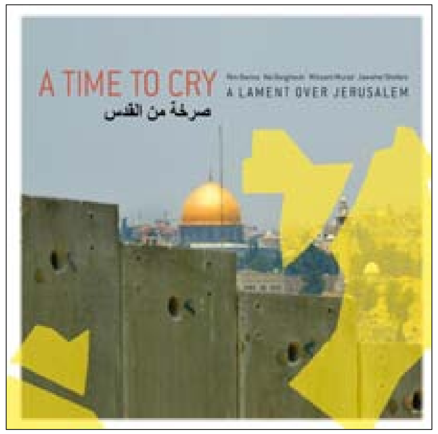
Kirkelig Kulturverksted (KKV)

www.kkv.no



FXCD 355
MATHIAS EICK & PASHA HANJANI & ERTAN TEKIN:
TRE VISE MENN
머티어스 이크 & 파샤 한자니 & 얼튼 데킨:
동방박사 세 사람

테헤란에 거주하는 파샤 한자니는 네이 연주자다. 그의 동료이며 오랜 친구인 이스탄불의 얼튼 테킨은 두둑 연주자로 활약하면서 여러 영화음악을 선보였다. 그리고 오슬로의 트럼페터 머티어스 이크는 피아노와 더블베이스는 물론 각양각색 악기를 연주한다. 이들 셋은 마치 동방박사가 된 듯 중동 사막을 여행하며 매우 오리지널하면서 유니크한 사운드로 캐럴을 들려주고 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두둑 피리가 두려운 진실을 목도하는 목동들에 어울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순결한 장미가 피어났네', '내 백성을 구하소서', '내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 와 같은 고전 성가를 들려주고 있다. 오슬로의 녹음실과 이스탄불 불가리안교회를 오가며 이룩한 정교한 음향과 내밀한 공명은 이 음반의 또다른 백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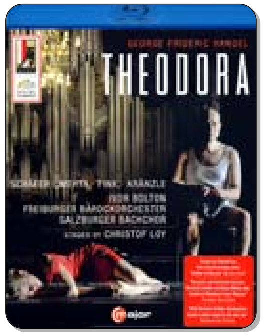
FXCD 359
A TIME TO CRY:
A LAMENT OVER JERUSALEM
통곡의 시간: 예루살렘 너머의 눈물

림 바나, 네이 버얼거우티, 위쌈 누러드, 자이헐 쇼파니 억압적인 이스라엘 정부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수십미터 장벽까지 둘러치면서 이 문명의 시간에 너무도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뮤지션이 인간애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며 여기 한 장의 음반을 선보였다. 평화를 갈망하는 팔레스타인 전래 민요들은 정의가 없는 전쟁과 온갖 지배욕망, 증오와 잘못된 종교관이 판을 치는 세계의 양심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 지중해와 이스라엘 음악에 깊은 내공을 갖춘 림 배너는 카리 브람네스와 함께 노르웨이 뮤지션들과 협연하기도. 어린 소녀인 네이 버얼거우티는 팔레스타인 예능경연대회 수상자이기도 하다. 위쌈 누러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약중인데 그가 부른 '예수의 슬픔'은 사막의 맵찬 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다, 자이헐 쇼파니는 갈릴리마을의 결혼과 장례식 전문 노래꾼이다. '눈물의 홍수'는 팔레스티나 주민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와 평화의 레퀴엠이다.

FXCD 365
KORET PA BOTSEN &
HENNING KVITNES:
BORTKOMNE JULESTJERNER
코레트 포 보스텐 & 헤닝 크비트느스

'노르웨이의 밥 딜런'이라 불리우는 것은 물론, 어떤 이들은 '마약을 끊고 성자가 된 톰 웨이츠'라고도 부르는 헤닝 크비트느스. 노르웨이 그레미상을 수상함은 물론 30여장에 육박하는 음반을 낸 작사 작곡가이자 가수다. 그가 얀 에릭 한슨 등이 활약하는 코레트 포 보스텐 중창단과 함께 평화의 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려주고 있다. 특히 "평화를 부탁해(Peace Call)"는 많은 사랑을 받아 노르웨이 교회의 새로운 가스펠 넘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통 노르웨이 찬송가 '요단강을 건너' 등과 같은 노래들에선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를 구사하며 수백만년을 운행하는 별처럼 웅혼하게 반짝거린다. 얼음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노르웨이의 겨울산천에 붉은 별이 뜨는 날을 상상해보라. 그날 어떤 수염이 더부룩한 아저씨가 들려주는 은은하고도 잔잔한 캐럴은 갈 곳 없는 영혼들에게 소중한 귀향과 성심의 위안을 가득 부어줄 것이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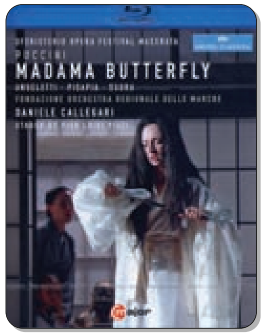
C-Major 705804

헨델: 테오도라

크리스틴 섀퍼(테오도라)/ 베준 메타(디디무스)/ 요제프 카이저(세티미우스)/ 베르나르다 핑크(이레네)/
요하네스 마르틴 크랜츨(발렌스)/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이버 볼튼/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오페라로 멋지게 변신한 헨델 만년의 걸작 오라토리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안티오크의 성녀를 소재로 한 '테오도라'는 1750년 3월에 초연된 영어 오라토리오다. 헨델 스스로는 이 작품에 큰 자부심을 가졌지만,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못했다. 결국 불과 3회만 공연된 이후 세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닥친 바로크음악 붐과 더불어 이 작품 역시도 새롭게 평가되었고, 이제는 만년의 풍부한 음악적 노하우가 응집된 헨델의 가장 완성도 높은 오라토리오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의 짜임새 있는 스토리 전개에 주목하여 오페라의 형태로 공연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1996년 글라인드본에서 공연된 괴짜 연출가 피터 셀라스의 프로덕션이 유명하지만, 본 영상물에 수록된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역시 그에 버금가는 뛰어난 무대를 자랑한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카운터테너의 한 사람인 베준 메타와 크리스티안 섀퍼, 베르나르다 핑크가 합세한 화려한 캐스팅,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탄탄한 반주가 크리스토프 로이의 세련된 연출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C-Major 706304

푸치니: 나비부인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라파엘라 안젤레티(초초상)/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핀커튼)/ 아눈치아타 베스트리(스즈키)/
클라우디오 스구라(샤플레스) 외/ 다니엘레 칼레가리/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레지오날레 델레 마르케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하는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최신 나비부인 프로덕션

중부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 축제가 펼쳐진다. 이 도시의 명물인 옥외경기장 스페리스테리오에서 펼쳐지는 이 오페라 축제는 베로나 아레나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축제로 손꼽힌다. 이 오페라축제의 예술감독이자 우리에게도 낯익은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피치가 2009년에 선보였던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특히 수입완제품으로 선보이는 본 영상물은 C Major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기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최신의 오페라 영상을 즐기지 못했던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의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이다. ForumOpera.com으로부터 우리시대의 가장 뛰어난 나비부인의 하나로 호평을 받은 라파엘라 안젤레티가 타이틀롤을 열연하였고, 본고장의 실력파 가수들인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와 클라우디오 스구라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다. 피치의 무대는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이며, 3막 전주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인무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C-Major 706104

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랜스 라이언(에네)/ 다니엘라 바르첼로나(디동)/ 엘리자베트 마토스(카상드르)/
가브리엘레 비비아니(코레브)/ 조르조 주네피니(팡테)/ 스티븐 밀링(나르발)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오르케스트라 라 코무니타트 발렌시아나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한 베를리오즈의 대작 오페라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가장 방대한 규모의 오페라라고 하면 마이어베어 풍의 프랑스 그랜드오페라와 바그너의 악극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던 괴작이 있었으니 바로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오페라는 트로이의 폐망을 다룬 1부와 탈출한 에네(에네아스)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동(디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2부로 구성된다. 본 영상물은 아크로바틱 서커스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무대미술과 의상을 동원하여 '21세기의 링'을 창조했던 발렌시아의 스탭들이 2009년에 다시금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완성한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 풍부한 무대와 기상천외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진정한 종합예술의 묘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거장 게르기에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스케일의 음악도 나무랄 곳이 없다. C major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담은 본 영상물은 이 장편 오페라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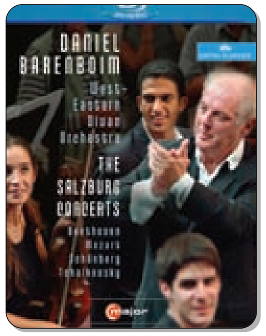
C-Major 706504

드보르작: 루살카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크리스틴 오폴라이스(루살카)/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왕자)/ 귄터 그로이스뵈크(물 요괴)/
나디아 크라스테바(외국 공주)/ 야니나 배클(예치바바) 외/ 토마슈 하누스/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쿠세이가 파격적으로 연출한 드보르작 최고의 오페라를 한글자막으로 만나다

드보르작은 오페라에도 상당한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현악이나 실내악에 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예외적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주의 계열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에 속하는 '루살카'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물의 요정이 인간의 육체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마무리된다는 이 오페라의 줄거리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와도 매우 유사하다. 1막에서 루살카가 부르는 '달의 노래'가 너무나 유명하며, 세 명의 나무요정과 물의 요괴가 펼치는 오페라의 서두는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의 도입부를 연상케 한다. 내놓는 작품들 마다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제의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혐오스러울 정도의 시각적 충격을 통해 자연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세계의 폭력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해내었다. 타이틀 롤을 노래한 크리스틴 오폴라이스의 혼신의 열연도 이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C-Major 706704

[2011년 8월 10일-15, 내한공연을 갖는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2007년 잘츠부르크 콘서트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쇤베르크: 관현악변주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 보너스 -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로소 K.297b)

다니엘 바렌보임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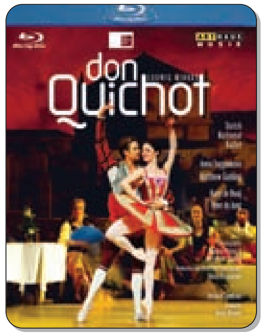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종교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음악의 위대함을 보여주다

서동시집(West Eastern Divan)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꿈꿨던 유태계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지성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1999년에 창단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학도들이 음악과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다. 이들은 두 민족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바렌보임의 헌신적인 조련을 통해서 음악적으로도 정상급 기성 오케스트라들에 뒤지지 않는 빼어난 성과들을 만들어왔다. 이들은 올 여름 우리나라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빅 프로젝트를 선사할 예정이기에, 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본 영상은 2007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탄탄한 양식미가 빛나는 베토벤의 서곡, 복잡다단한 악곡 구조가 거침없이 전개된 쇤베르크, 작곡가 특유의 로맨틱한 서정을 훌륭히 표현한 차이코프스키를 통해 이들의 뛰어난 음악적 성과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 유대인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1999년 이스라엘 및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권 출신 젊은 연주자들을 불러모아 만들었으며, 괴테의 시집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Blu-ray Disc

ARTHAUS MUSIK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562

발레 〈돈 키호테〉

스페인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네덜란드 국립 발레의 새 프로덕션

러시아는 특별히 남국 스페인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는데, 러시아 황실극장의 가장 대표적인 희극 발레 〈돈 키호테〉도 그 산물이다. 발레 제목과 달리 돈 키호테와 산초 판자는 극의 단서를 제공하는 과객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말괄량이 소녀 키트리와 그녀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이 발레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알렉산더 고르스키가 수정한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덜란드 국립발레의 2010년 실황인 영상물은 볼쇼이 발레의 젊은 예술감독이었던 알렉세이 라트만스키가 다시 손을 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제롬 카플랑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은 스페인의 남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생생하게 살렸다. 주인공 키트리를 추는 러시아 발레리나 안나 치간코바는 현재 가장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Arthaus 101 560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이렌 테오린(엘렉트라)/ 발트라우트 마이어(클리탬네스트라)/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크리소테미스)/ 로버트 갬빌(애기스트)/ 르네 파페(오레스트)/ 다니엘레 가티/ 빈 필하모닉

* Classicstoday 10/10

거물급 가수들과 화제의 연출가가 함께 빚어낸 최강의 엘렉트라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던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는 각 배역에 최적화된 정상급 가수들의 열연과 천재적 연출가의 눈부신 재능이 멋진 조화를 이룬 화제의 무대였다. 빈의 유력 일간지 Kurier는 이 무대를 2010년 최고의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꼽았다. 2008년 바이로이트에서 이졸데를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으로 각광받은 스웨덴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레네 테오린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존재만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는 대형 여가수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이중적인 심리상태의 클리탬네스트라를 열연하였다. 르네 파페의 당당한 모습도 누이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오레스트의 전형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을 연상케 하는 라이문트 바이어의 무대 위로 각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니콜라우스 렌호프의 감각적인 연출과 슈트라우스가 의도했던 강력한 음향 스케일을 거침없이 재현해내는 다니엘레 가티/ 빈 필하모닉의 탄탄한 반주도 명불허전이다.

Arthaus 108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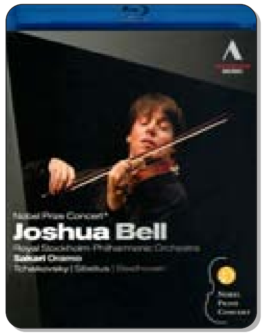
발레 〈드가의 작은 무희〉

드가의 조각상 '14살의 작은 무희'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제의 발레

프랑스의 에드가르 드가는 발레리나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그런데 유명한 조각상도 남겼으니 '14살의 작은 무희'가 그것이다. 그 모델이 가난한 벨기에 이민자의 딸이자 발레리나 지망생이었던 마리 반 괴템이라고 정확히 규명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닌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안무가 파트리스 바르는 이 모델에 대해 깊이 연구한 마르티네 카하네와 함께 스토리를 구상하고 2003년에 이 발레를 만들었다. 본 영상물은 2010년 실황이다. 배경이 되는 1880년대는 발레의 주도권이 러시아로 완전히 넘어가고 파리 극장가는 예쁜 무용수를 찾는 돈 많은 남자들이 기웃거리던 분위기였다. 그 시대상과 더불어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어린 발레리나 지망생의 서글픈 삶이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아주 개성이 강한 수작이다.

Blu-ray Disc

ACCENTUS MUSIC www.accent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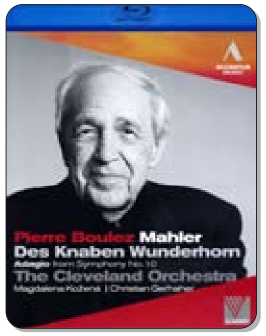
Accentus 10215

2010년 노벨상 기념 콘서트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8번조슈아 벨(vn)/ 사카리 오라모/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슈아 벨이 독주자로 나선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스톡홀름 콘체르트하우스에서 펼쳐지는 노벨상 연주회는 이제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는 하나의 훌륭한 이벤트로 정착하였다. 본 영상물은 2010년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연주회를 신흥 클래식 영상물의 명가 Accentus가 자랑하는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수록한 것이다, 베토벤의 당당한 레오노레 3번 서곡으로 시작된 본 콘서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조슈아 벨이 독주자로 나선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에서 정점을 이룬다. 혼신의 열정을 담은 그의 열연은 이 협주곡이 요구하는 현란한 기교와 섬세한 서정을 조화롭게 만족시킨다.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사카리 오라모는 자신의 장기인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으로 이 특별한 연주회를 화려하게 마감한다. 북구의 신비와 우아한 서정, 그리고 영웅적인 호방함을 겸비한 이 걸작은 시벨리우스 본인이 가장 아꼈던 작품의 하나로, 오라모의 장려한 연출과 로얄 스톡홀름 필의 정성스런 연주는 이 작품의 위용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Accentus 10231

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막달레나 코제나(ms)/ 크리스티안 게르하허(br)/ 피에르 불레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피에르 불레즈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실황

피에르 불레즈는 지휘와 작곡 양 분야 모두에서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시대의 거장이다. 특히 그의 분석적이고도 이지적인 말러는 많은 말러리안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2월 세브란스 홀에서는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불레즈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펼쳐졌다. 말러 최후의 작품인 교향곡 10번 중의 아디지오와 말러의 초기 교향곡들에 대한 지침서와도 같은 중요작인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가 연주된 이 콘서트의 실황은 앞서 DG를 통해 CD로 출시되어 크게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제 Accentus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화면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간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사운드가 빛나는 '아디지오'는 물론,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막달리나 코체나와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함께 노래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도 거장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자신의 말러관에 대한 불레즈의 인터뷰와 연주자들과 관객들 모두가 입을 모아 불레즈의 생일을 축하하는 훈훈한 장면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Accentus 1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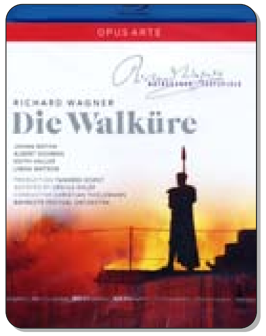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 슈체드린: 로맨틱 오퍼링 프랑크: 첼로소나타 / 드보르작: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

마르타 아르헤리치(pf)/ 미샤 마이스키(vc)/ 네메 예르비/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프랑크의 첼로소나타

2011년 2월 루체른의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샤 마이스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함께 쌓아왔던 깊은 음악적 교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카야의 남편이자 비제의 원작을 편곡한 '카르멘 모음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인 로디온 슈체드린이 이들 두 아티스트에게 헌정한 최신작인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로맨틱 오퍼링'이 바로 이날 콘서트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이들 두 거장을 서포트한 네메 예르비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작의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으로 이 콘서트의 처음과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관현악 콘서트 중간에 마련된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 두 사람만의 이중주무대다. 프랑크의 첼로소나타(바이올린소나타의 편곡)를 통해 두 거장이 펼쳐보이는 따뜻한 교감이 큰 감동을 만들어낸다.

OPUS ARTE www.opusar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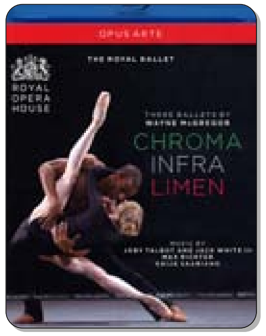
OpusArte OABD7081D

바그너: 발퀴레

알베르트 도멘(보탄)/ 요한 보타(지그문트)/ 에디트 할러(지글린데)/ 린다 왓슨(브륀힐데)/ 연광철(훈딩)/ 미호코 후지무라(프리카) 외/ 크리슈티안 틸레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바이로이트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최신 영상물

자타가 공인하는 게르만 마에스트로의 적통 크리슈티안 틸레만은 바그네리안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독일의 극작가 겸 연출가 탄크레트 도르스트와 더불어 2006년부터 다섯 시즌 동안 '니벨룽의 반지' 프로덕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그중 2010년 여름에 있었던 발퀴레의 공연실황(드레스 리허설이 아닌)을 담고 있다. 바이로이트의 최신 '링' 프로덕션의 단편을 안방에서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베이스바리톤 연광철이 훈딩으로 맹활약하는 모습 또한 만날 수 있다. 전설 속의 신들이 현실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모티브로 삼은 도르스트의 현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연출과 틸레만이 빚어낸 강력한 사운드, 요한 보타, 알베르트 도멘, 린다 왓슨, 연광철 등의 이시대를 대표하는 바그너 가수들의 열창을 최상의 화질과 사운드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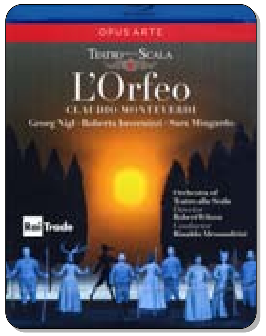
OpusArte OABD7083D

웨인 맥그리거의 세 가지 발레 – 크로마, 인프라, 리멘

로얄 발레단/ 배리 워즈워스 외/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영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천재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의 3대 걸작

웨인 맥그리거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이다. 그는 현대무용에 영화, 비주얼 아트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관을 가꿔왔다. 그는 2006년부터 런던 로얄 발레단의 상주안무가로 활약해왔는데, 본 영상물에는 그가 로얄 발레단을 위해 안무한 세 편의 단편 현대무용들이 수록되었다. 조비 탈봇의 미니멀 풍 음악에 기반을 둔 'Chroma'는 그에게 사우스 뱅크 쇼 어워드와 크리틱스 서클 내셔널 댄스 어워드를 수여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며, 비디오 아티스트 줄리언 오피가 디자인한 LCD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Infra' 역시 그에게 크리틱스 서클 내셔널 댄스 어워드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세계적인 여류 작곡가 칼리야 사리아호의 음악을 사용한 최신작 'Limen'이 함께 수록되었다. 린 벤저민, 마라 갈레아치, 타마라 로호, 최유희, 에드워드 왓슨, 에릭 언더우드 등의 로얄 발레단을 대표하는 간판 무용수들이 현대무용의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OpusArte OABD7080D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게오르크 니글(오르페오)/ 로베르타 인베르니치(무지카, 유리디체)/ 사라 밍가르도(메사제라, 스페란차) 외/ 리날도 알레산드리니/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로버트 윌슨의 세련된 무대음악으로 사람과 동물은 물론 신과 저승세계마저도 감동시켰던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큰 창조적 영감을 제공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인 페리의 '유리디체', 지금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명실상부한 가장 오래된 현역 오페라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오페라 개혁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었던 글룩의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등등이 바로 동일한 소재를 바탕으로 완성된 오페라 역사상의 중요한 작품들이다. 본 영상은 2009년 9월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시대악기 연주분야의 거물 리날도 알레산드리니의 화려한 연주와 로베르타 인베르니티와 게오르크 니글을 필두로한 정상급 바로크 전문 성악가들의 뛰어난 절창, 그리고 간결하고도 상징적인 무대와 절제된 동작으로 일본 전통극 풍의 무대를 꾸준히 시도하였던 미국 연출가 로버트 윌슨의 감각적인 미장센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프로덕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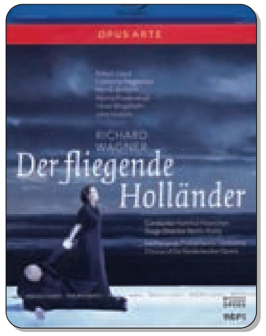
OpusArte OABD7076D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르네 플레밍(비올레타)/ 조셉 칼레야(알프레도)/ 토마스 햄슨(제르몽) 외/ 안토니오 파파노/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우리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하는 <라 트라비아타>

현역 최고의 베스트셀링 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한 최신의 '라 트라비아타' 영상물이 등장하였다. 플레밍이 비야손과 함께 등장했던 '라 트라비아타'의 영상물을 이미 존재하지만, 이 영상물은 그와 또 다른 각도에서 오페라 애호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이다. 2009년 6월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15년 전 안젤라 게오르규를 오페라계의 여신으로 등극케 했던 리처드 에어의 고전적이고도 우아한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지천명의 나이(50대)에 들어선 플레밍의 외모를 당시 20대 후반의 게오르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이 가수의 농익은 연기와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음성의 매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제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몰타 출신의 테너 조셉 칼리아가 노래한 알프레도와 캐릭터의 이중적인 성격을 노련하게 연기한 토마스 햄슨의 제르몽도 만족스럽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안토니오 파파노의 화려하고도 강력한 지휘도 이 영상물의 감동을 한층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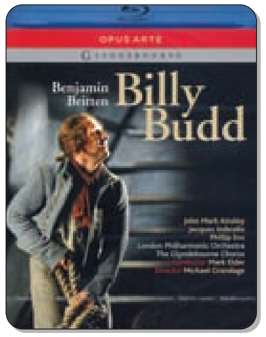
OpusArte OABD7084D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유하 우시탈로(화란인)/ 캐서린 나글레스타트(젠타)/ 로버트 로이드(달란트)/ 마르코 옌츠슈(에릭) 외/ 하르트무트 핸헨/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화제의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가 파격으로 빚어낸 첫 바그너 도전작

손대는 작품들마다 큰 화제를 낳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가 드디어 바그너의 광대한 세계로 발을 내밀었다. 2010년 2월 네덜란드 음악극장에서 처음 공개된 본 프로덕션은 쿠세이 특유의 도발적인 연출과 현재 최정상급 바그너 바리톤으로 주가 급상승 중인 핀란드의 저음가수 유하 우시탈로를 중심으로 한 정상급 출연가수들의 열연, 그리고 독일의 거장 하르트무트 핸센이 큰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박력 넘치는 관현악반주가 멋진 시너지를 만들어낸 공연이다. 내강외유의 가창과 연기로 향락적인 주위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왕따 캐릭터의 젠타를 열연한 캐서린 나글레스타트와 속물적인 면모를 지닌 대형화유람선의 선장으로 설정된 달란트를 연기한 로버트 로이드의 노련함도 만족스럽다. 쿠세이는 마리를 유모가 아니라 젠타를 깔보는 동네의 잘 나가는 아가씨로 캐릭터를 재설정하였는데, 슈퍼모델 뺨치는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인 마리나 프루덴스카야가 최적의 연기로 이를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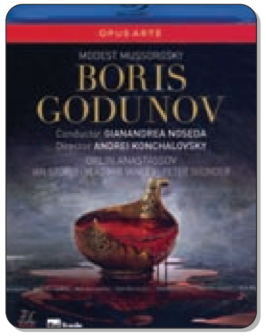
OpusArte OABD7086D

브리튼: 빌리 버드

자크 잉브라일로(빌리 버드)/ 존 마크 애인즐리(비어 선장)/ 필립 엔스(클래가트)/ 제레미 화이트(댄스커)/ 존 무어(도날드) 외/ 마크 엘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허울 좋은 규칙을 위해 희생되었던 한 젊은이의 슬픈 이야기

브리튼의 오페라 <빌리버드>는 '백경'의 작가로 유명한 허만 멜빌이 유작으로 남긴 동명의 단편소설을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 오페라는 그가 완성한 정규 규모의 오페라들 중에서 '피터 그라임즈'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1951년 초연 당시에는 4막의 다소 장황한 구성이었지만, 이후 브리튼은 2막의 보다 축약된 형태로 작품을 업그레이드하였다. 2010년 6월 글라인드본에서의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도 이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대영제국해군의 전함인 '불굴의 의지'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음울한 오페라는 순진무구한 젊은 선원 빌리 버드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선임하사관 존 클래거트 사이의 극심한 갈등이 낳은 우발적인 살인과 개인적인 양심과 집단의 규율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어선장의 내면적 고뇌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연출가 마이클 그랜디지는 대단히 사실적인 무대미술과 가수들의 연극적인 재능을 십분 활용한 연출을 통해 이 오페라를 지배하는 긴장된 갈등국면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내었다.



OpusArte OABD7087D

무소르크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본고장 연출가와 명가수들이 총동원된 러시아 오페라의 상징

러시아 민요와 정교회의 성가가 잘 녹아있고 무소르크스키의 독자적인 화성법과 관현악법이 구사된 〈보리스 고두노프〉는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라고 불린다. 무소르크스키는 심혈을 기울여 푸슈킨의 희곡을 직접 축약하는가 하면 공연을 거절당하자 전면적으로 개작하기도 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의 오페라임에도 결국 황실극장에서 초연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혼신의 역작인데다가 로마노프 왕조 이전의 혼란상을 다룬 것이고, 폴란드 침략에 저항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애국적 모습을 그린 덕분이었다. 2010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극장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주요 배역을 러시아 본토 출신으로 구성하고 지금은 미국 시민이 된 러시아 출신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가 연출하여 무소르크스키의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특히 상징적인 무대와 사실적인 의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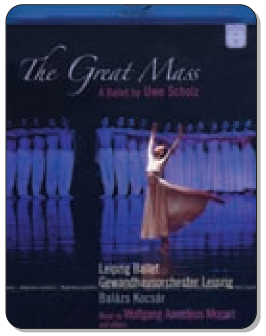
OpusArte OABD7085D

차이콥스키: 스페이드의 여왕

〈예브게니 오네긴〉을 능가하는 차이콥스키 최고의 걸작 오페라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중에서 대중적 인기는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장 높지만 〈스페이드의 여왕〉은 러시아 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깔고 있어서 보다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오페라는 신분상승의 욕구로 도박에 빠져버린 게르만이 순결한 연인 리자를 비극에 몰아넣고 자기 자신도 파멸시켜버리는 지독하게 어두운 이야기다. 타이틀 롤을 맡은 테너는 7개의 모든 장면에 출연하여 노래하는데, 이는 굉장한 지구력과 가창력을 요구한다. 2010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인 이 영상물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너 미샤 디디크는 리리코와 드라미티코를 넘나드는 놀라운 솜씨로 일대호평을 받았다. 또는 연출자 길베르트 데플로와 그의 오랜 동료인 무대장치가 윌리암 오를란디는 사실적인 무대와 의상, 상징적인 장치를 절묘하게 교차시켜 이 오페라의 가치를 남김없이 부각시켰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54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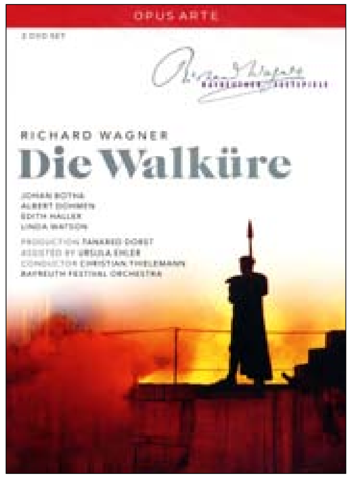
우베 숄츠 '모차르트 대미사'

재일교포 발레리나와 재독 소프라노가 주역으로 나선 추모공연

2005년 6월,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대미사'(K.427)가 발레로 공연되었다. 반년 전에 작고한 동 발레단의 예술감독 우베 숄츠(1958~2004)를 기리는 무대였다. 당시 두 한국인 예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만년의 우베 숄츠가 가장 총애한 뮤즈였던 라이프치히 발레의 간판스타 기무라 쿄코는 이정숙이란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재일교포로 이 공연에서도 무대를 지배한다. 또 라이프치히 오페라 소속의 소프라노 유은희가 모차르트 대미사를 노래하는 제1 소프라노로 나섰다. 워낙 병약했던 탓에 일찍 세상을 떠난 우베 숄츠는 지휘자를 꿈꾸었을 만큼 음악적 감수성이 빼어난 천재였으며 특히 20세기 안무가 중에서 대규모 군무를 구성하는데 최고로 불린 인물이다. 1998년에 초연된 이 발레에 그 특징이 잘 살아있다. 특히 마지막 '아뉴스 데이'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단원들이 춤을 그만 두고 바닥에 앉아 숄츠를 추억하는 장면은 형언할 수 없이 감동적이다.

OPUS ARTE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45D

바그너: 발퀴레

알베르트 도멘(보탄)/ 요한 보타(지그문트)/ 에디트 할러(지글린데)/ 린다 왓슨(브륀힐데)/ 연광철(훈딩)/ 미호코 후지무라(프리카) 외/ 크리스티안 틸레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바이로이트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최신 영상물

자타가 공인하는 게르만 마에스트로의 적통 크리슈티안 틸레만은 바그네리안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독일의 극작가 겸 연출가 탄크레트 도르스트와 더불어 2006년부터 다섯 시즌 동안 '니벨룽의 반지' 프로덕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그중 2010년 여름에 있었던 발퀴레의 공연실황(드레스 리허설이 아닌)을 담고 있다. 바이로이트의 최신 '링' 프로덕션의 단편을 안방에서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베이스바리톤 연광철이 훈딩으로 맹활약하는 모습 또한 만날 수 있다. 전설 속의 신들이 현실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모티브로 삼은 도르스트의 현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연출과 틸레만이 빚어낸 강력한 사운드, 요한 보타, 알베르트 도멘, 린다 왓슨, 연광철 등의 이시대를 대표하는 바그너 가수들의 열창을 최상의 화질과 사운드로 수록하였다.

[보조자료]

○ '발퀴레'는 '니벨룽 반지'의 첫 번째 밤을 위한 3막의 뮤직드라마다. (개시작인 '라인골트'는 시리즈의 전야를 위한 작품이다.) 신들의 몰락을 염려한 보탄은 인간과의 사이에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라는 쌍둥이남매를 얻는다. 남매는 어려서 서로 이별하였고, 지글린데는 훈딩의 아내가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지그문트는 지글린데의 집을 우연히 찾게 되고, 이들은 서로에게 반한다. 남매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다. 둘을 야반도주하고 아내를 뺏긴 훈딩은 보탄의 아내 프리카에게 하소연한다. 프리카는 보탄에게 이 사건을 추궁하고, 궁지에 몰린 보탄은 영웅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딸들인 발퀴레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브륄힌데를 불러 지그문트를 제거할 것을 명한다. 지그문트를 찾은 브륄힐데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연민을 품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 노한 보탄은 훈딩을 도와 지그문트를 살해하고, 지글린데는 지그문트의 씨를 복중에 품고 도망친다. 보탄은 자신을 배반한 브륄힌데를 마법의 불 속에 가두며 이 작품이 마무리된다.

○ 독일어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1959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과거의 독일거장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오페라극장의 연습반주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정상의 자리에 오른 정통 코스를 밟아왔다. 1997년 베를린 도이치오퍼의 음악감독에 오르면서 독일음악계의 기대를 모았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뮌헨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했다. 2000년 '마이스터징거'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하였고, 2006년부터는 '니벨룽의 반지'의 새로운 프로덕션(본 발퀴레가 그 중 일부다)을 지휘하였다. 현재 그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차기 카펠마이스터로 내정되었으며, 그의 임기는 2012/13 시즌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Opus Arte DVD OA 1044D

게오르크 니글(오르페오)/ 로베르타 인베르니치(무지카, 유리디체)/ 사라 밍가르도(메사제라, 스페란차) 외/ 리날도 알레산드리니/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로버트 윌슨의 세련된 무대음악으로 사람과 동물은 물론 신과 저승세계마저도 감동시켰던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큰 창조적 영감을 제공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인 페리의 '유리디체', 지금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명실상부한 가장 오래된 현역 오페라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오페라 개혁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었던 글룩의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등등이 바로 동일한 소재를 바탕으로 완성된 오페라 역사상의 중요한 작품들이다. 본 영상은 2009년 9월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시대악기 연주분야의 거물 리날도 알레산드리니의 화려한 연주와 로베르타 인베르니티와 게오르크 니글을 필두로한 정상급 바로크 전문 성악가들의 뛰어난 절창, 그리고 간결하고도 상징적인 무대와 절제된 동작으로 일본 전통극 풍의 무대를 꾸준히 시도하였던 미국 연출가 로버트 윌슨의 감각적인 미장센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프로덕션이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의 목가극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탄생은 159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지식인 그룹인 카메라타가 그리스 비극을 음악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된다. 야코포 페리, 줄리오 카치니 등이 오페라 탄생에 중대한 기여를 한 작곡가들이다. 그러나 오페라가 귀족의 궁전에서 나와 클래식 음악의 중심에 선 것에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1567~1643)의 공이 절대적이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는 만토바의 궁정악단에 재직하던 시기에 많은 오페라를 작곡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악보가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1607년에 초연된 〈오르페오〉가 유일하다. 만년의 몬테베르디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에 봉직하다가 이 도시에 세계 최초의 오페라 극장이 설립되자 두 편의 오페라를 더 작곡한다. 〈율리시즈의 귀환〉과 〈포페아의 대관〉이 그것이다. 이렇게 몬테베르디의 세 작품이야말로 초기 오페라 시대의 3대 걸작이자 그리스 비극 이상으로 장중한 분위기의 명작들이다.

○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반인반신 음악가인 오르페오는 님프들과 목동들의 축하 속에서 유리디체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다. 불행히도 유리디체는 독사에 물려 사망하고, 오르페오는 저승에 들어가 유리디체를 구해오리라 결심한다. 지옥의 여왕 프로세르피나의 호의에 힘입어 오르페오는 유리디체를 구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성공 직전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비탄에 빠진 오르페오 앞에 그의 아버지인 아폴로가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별들 가운데에 그를 자리잡게 한다.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Opus Arte DVD OA 1040D

르네 플레밍(비올레타)/ 조셉 칼레야(알프레도)/ 토마스 햄슨(제르몽) 외/ 안토니오 파파노/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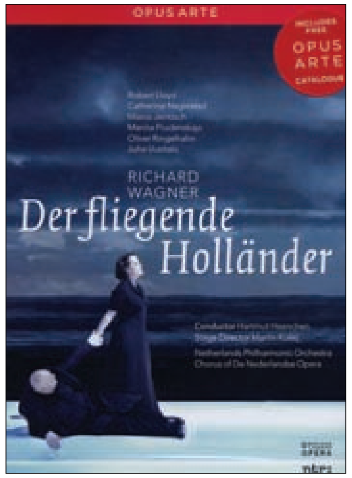
우리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하는 〈라 트라비아타〉

현역 최고의 베스트셀링 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르네 플레밍이 노래한 최신의 '라 트라비아타' 영상물이 등장하였다. 플레밍이 비야손과 함께 등장했던 '라 트라비아타'의 영상물을 이미 존재하지만, 이 영상물은 그와 또 다른 각도에서 오페라 애호가들의 구미를 자극할 것이다. 2009년 6월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15년 전 안젤라 게오르규를 오페라계의 여신으로 등극케 했던 리처드 에어의 고전적이고도 우아한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지천명의 나이(50대)에 들어선 플레밍의 외모를 당시 20대 후반의 게오르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물이 오를대로 오른 이 가수의 농익은 연기와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음성의 매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제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몰타 출신의 테너 조셉 칼리야가 노래한 알프레도와 캐릭터의 이중적인 성격을 노련하게 연기한 토마스 햄슨의 제르몽도 만족스럽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안토니오 파파노의 화려하고도 강력한 지휘도 이 영상물의 감동을 한층 더해준다.

[보조자료]

○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는 '춘희'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주세페 베르디의 인기 오페라다. 원작은 알렉상드르 뒤마(아들)의 소설 '동백꽃 여인'(La Dame aux Camilias)이며, 프랑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다. 초연은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오페라의 초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합창이 덧붙은 이중창 '축배의 노래', 유명 프리마돈나들의 필수 레퍼토리인 '아 그대인가', 제르몽의 아리아 '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마지막 막의 이중창 '파리를 떠나서' 등의 많은 인기곡들을 담고 있다.

○ 우윳빛의 풍요로운 음성과 지극히 우아한 자태로 관객을 사로잡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은 미국 펜실바니아 출신이다. 르네라는 프랑스 식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체코 이주민의 후손이고, 부모는 둘 다 음악교사였다. 플레밍 역시 교사가 되는 길을 가다가 뒤늦게 줄리어드음악원에 진학했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으면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보내기도 했다. 1990년대에 풍요롭고 부드러운 그녀 음성의 진가를 알아본 마에스트로 게오르그 솔티의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형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최고 권위의 오페라극장들과 유수의 음악축제들을 누비고 있다.



Opus Arte DVD OA 1049D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유하 우시탈로(화란인)/ 캐서린 나글레스타트(젠타)/ 로버트 로이드(달란트)/
마르코 옌츠슈(에릭) 외/ 하르트무트 핸헨/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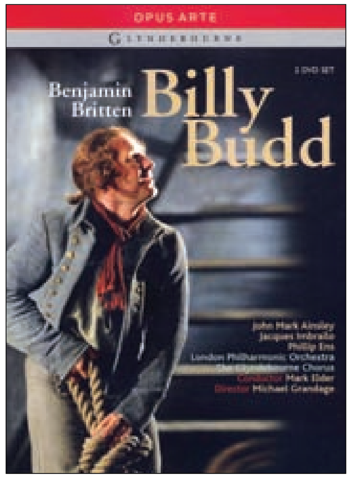
화제의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가 파격으로 빚어낸 첫 바그너 도전작

손대는 작품들마다 큰 화제를 낳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가 드디어 바그너의 광대한 세계로 발을 내밀었다. 2010년 2월 네덜란드 음악극장에서 처음 공개된 본 프로덕션은 쿠세이 특유의 도발적인 연출과 현재 최정상급 바그너 바리톤으로 주가 급상승 중인 핀란드의 저음가수 유하 우시탈로를 중심으로 한 정상급 출연가수들의 열연, 그리고 독일의 거장 하르트무트 핸센이 큰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박력 넘치는 관현악반주가 멋진 시너지를 만들어낸 공연이다. 내강외유의 가창과 연기로 향락적인 주위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왕따 캐릭터의 젠타를 열연한 캐서린 나글레스타트와 속물적인 면모를 지닌 대형호화유람선의 선장으로 설정된 달란트를 연기한 로버트 로이드의 노련함도 만족스럽다. 쿠세이는 마리를 유모가 아니라 젠타를 깔보는 동네의 잘 나가는 아가씨로 캐릭터를 재설정하였는데, 슈퍼모델 뺨치는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인 마리나 프루덴스카야가 최적의 연기로 이를 뒷받침하였다.

[보조자료]

○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바그너 최초의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앞서 '요정', '연애금지', '리엔치' 등을 완성했지만, 바이로이트 무대에 상연되는 작품들 중에서는 이 '네덜란드인'이 가장 연대가 앞선 작품이다. 1843년 드레스덴에서의 초연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탄호이저', '로엔그린'의 연이은 성공으로 독일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한 이후인 1865년에 다시 공연되면서 이 작품 역시 크게 호평을 받게 되었다.

○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 마틴 쿠세이는 그간 내놓는 작품들마다 농도 높은 선정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파격으로 숱한 논란거리를 만들어왔던 악동 연출가이다. 그의 연출작들 중에서 상당수가 국내에 DVD로 출시되었는데,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부인'(네덜란드 오페라), R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빈 슈타츠오퍼), 슈만의 '게노베바'(취리히 오페라) 그리고 M22 모차르트 오페라 전집에 포함되었던 '돈조반니'와 '황제 티토의 자비'가 모두 그의 대표적인 연출작들이다.- 유하 우시탈로는 행위예술과 비디오아트를 접목함으로써 큰 화제를 몰고 왔던 발렌시아의 '링' 사이클에서 보탄을 열연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바그너 가수로 주목받았던 핀란드 출신의 베이스-바리톤이다. 그는 본 영상에서도 강렬한 외모와 풍부한 성량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네덜란드인의 모습을 훌륭히 연기해내었다.



Opus Arte DVD OA 1051D
[2DVDs]

브리튼: 빌리 버드

자크 잉브라일로(빌리 버드)/ 존 마크 애인즐리(비어 선장)/ 필립 엔스(클래가트)/
제레미 화이트(댄스커)/ 존 무어(도날드) 외/ 마크 엘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허울 좋은 규칙을 위해 희생되었던 한 젊은이의 슬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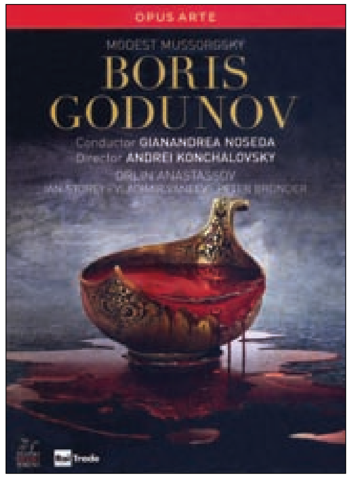
브리튼의 오페라 〈빌리버드〉는 '백경'의 작가로 유명한 허만 멜빌이 유작으로 남긴 동명의 단편소설을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 오페라는 그가 완성한 정규 규모의 오페라들 중에서 '피터 그라임즈'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1951년 초연 당시에는 4막의 다소 장황한 구성이었지만, 이후 브리튼은 2막의 보다 축약된 형태로 작품을 업그레이드하였다. 2010년 6월 글라인드본에서의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도 이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대영제국해군의 전함인 '불굴의 의지'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음울한 오페라는 순진무구한 젊은 선원 빌리 버드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선임하사관 존 클래거트 사이의 극심한 갈등이 낳은 우발적인 살인과 개인적인 양심과 집단의 규율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어선장의 내면적 고뇌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연출가 마이클 그랜디지는 대단히 사실적인 무대미술과 가수들의 연극적인 재능을 십분 활용한 연출을 통해 이 오페라를 지배하는 긴장된 갈등국면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내었다.

[보조자료]

○ 영국 근현대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벤저민 브리튼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오페라, 오페레타, 음악우화극 등을 포괄해서 모두 2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오페라들이 그리 큰 인기가 없는 편이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영국뿐만 아니라 대서양 양안의 주요 오페라하우스들에서 빈번하게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규규모 오페라인 '피터 그라임즈', '빌리 버드', '베니스에서의 죽음', 실내오페라인 '루크레티아의 겁탈'과 '나사의 회전', 그리고 중간규모의 오페라인 '한여름 밤의 꿈'이 특히 유명하다.

○ 오페라 '빌리 버드'는 허만 멜빌의 유작인 동명의 단편소설을 내용으로 완성한 오페라다. 오페라는 과거를 회고하는 노년의 비어선장의 모습을 담은 프롤로그로 시작된다. 시간은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던 17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사관 클래거트가 새로 승선한 선원들을 면접하는 중이다. 그중에는 잘생기고 순박한 청년 빌리 버드도 포함되었다. 선원들은 대부분 그에게 호감을 가지지만, 클래거트는 그의 선한 면모가 영 맘에 들지 않는다. 이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클래거트는 빌리에게 반역혐의를 씌운다. 빌리는 우발적으로 클래거트를 타살한다. 많은 이들이 빌리를 변호하지만, 비어선장은 빌리를 교수형에 처한다. 작품은 빌리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책하는 노년의 비어선장의 모습을 담은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무소르크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Opus Arte DVD OA 1053D

본고장 연출가와 명가수들이 총동원된 러시아 오페라의 상징

러시아 민요와 정교회의 성가가 잘 녹아있고 무소르크스키의 독자적인 화성법과 관현악법이 구사된 〈보리스 고두노프〉는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라고 불린다. 무소르크스키는 심혈을 기울여 푸슈킨의 희곡을 직접 축약하는가 하면 공연을 거절당하자 전면적으로 개작하기도 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의 오페라임에도 결국 황실극장에서 초연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혼신의 역작인데다가 로마노프 왕조 이전의 혼란상을 다룬 것이고, 폴란드 침략에 저항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애국적 모습을 그린 덕분이었다. 2010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극장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주요 배역을 러시아 본토 출신으로 구성하고 지금은 미국 시민이 된 러시아 출신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가 연출하여 무소르크스키의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특히 상징적인 무대와 사실적인 의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원작인 알렉산더 푸슈킨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는 160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 황제를 지낸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원래 신분이 낮은 귀족이었으나 누이동생을 왕자비로 만든 바람에 보야르(대귀족)가 된 보리스는 어린 황태자 드미트리가 암살됨으로써 후계자가 없어진 황제 표트르가 사망한 후 제위에 오른다. 그러나 농민과 중소귀족들은 점차 그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신하들도 그를 떠나기 시작한다. 특히 파계승 그리고리는 자신이 드미트리라고 자칭하고 폴란드 제국의 힘을 빌려 반란군을 일으킨다. 보리스는 양심의 가책과 민심의 이반으로 고뇌하다가 1605년에 변사하고 가짜 드미트리가 모스크바에 들어가는데, 동란 중에 피폐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성장한 민중은 침묵 속에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당시 푸슈킨은 셰익스피어에 심취해 있었는데, 보리스 고두노프가 비록 러시아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맥베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외세의 침략을 초래하는 폭군의 이야기인 것이다.

웨인 맥그리거의 세 가지 발레 – 크로마, 인프라, 리멘

Opus Arte DVD OA 1048D

로얄 발레단/ 배리 워즈워스 외/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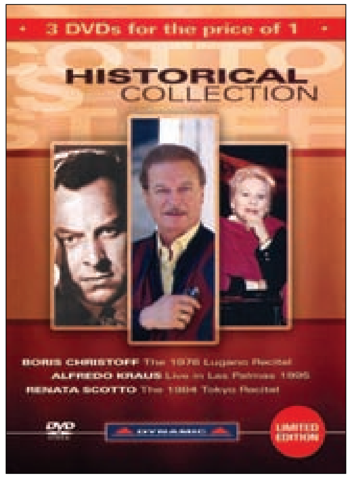
영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천재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의 3대 걸작

웨인 맥그리거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이다. 그는 현대무용에 영화, 비주얼 아트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관을 가꿔왔다. 그는 2006년부터 런던 로얄 발레단의 상주안무가로 활약해왔는데, 본 영상물에는 그가 로얄 발레단을 위해 안무한 세 편의 단편 현대무용들이 수록되었다. 조비 탤봇의 미니멀 풍 음악에 기반을 둔 'Chroma'는 그에게 사우스 뱅크 쇼 어워드와 크리틱스 서클 내셔널 댄스 어워드를 수여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며, 비디오 아티스트 줄리언 오피가 디자인한 LCD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Infra' 역시 그에게 크리틱스 서클 내셔널 댄스 어워드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세계적인 여류 작곡가 칼리야 사리아호의 음악을 사용한 최신작 'Limen'이 함께 수록되었다. 린 벤저민, 마라 갈레아치, 타마라 로호, 최유희, 에드워드 왓슨, 에릭 언더우드 등의 로얄 발레단을 대표하는 간판 무용수들이 현대무용의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Dynamic DVD

www.dynamic.it

스페셜 박스 오페라 한정판
– 보리스 크리스토프: 1976년 루가노 리사이틀
– 알프레도 크라우스: 1995년 라스 팔마스 라이브
– 레나토 스코토: 1984년 도쿄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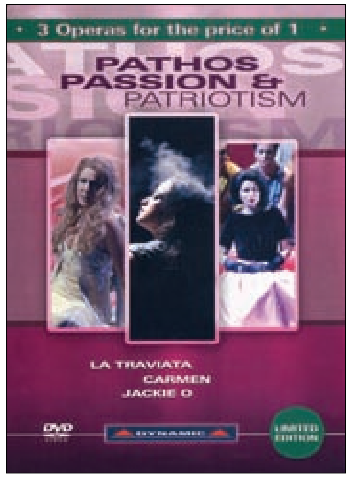


Dynamic DVD 33683
[3DVD for 1]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세 가수들을 함께 만나다

각각 낱장으로 발매되었던 3장의 DVD를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샬리아핀의 후계자로 불렸던 불가리아 출신의 위대한 베이스인 보리스 크리스토프가 1976년 스위스의 루가노에서 가졌던 리사이틀에서는 자신의 장기와 같은 오페라배역들인 보리스 고두노프와 필리포 2세(돈 카를로)의 아리아들 외에도, 〈세비야의 이발사〉 중 '소문은 미풍처럼',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중 '사랑스런 여인을 원해', 무소륵스키의 가곡 '호팍' 등이 수록되었다. 우아한 미성과 귀족적인 풍모를 자랑했던 스페인의 명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가 1996년 도쿄에서 가졌던 리사이틀 DVD에서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음성과 원숙한 표현력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가곡들을 노래하는 그의 노익장을 만나볼 수 있다. 풍부한 표현력과 뛰어난 연기로 사랑받았던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레나타 스코토가 자신의 애창 가곡과 아리아들을 노래했던 1984년 도쿄 리사이틀 DVD도 함께 포함되었다.

스페셜 박스 오페라 한정판
–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2DVDS]
– 비제 〈카르멘〉 [2DVDS]
– 재키 O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Dynamic DVD 33685
[3 Operas for the price of 1]

친치아 포르테가 선사하는 정통 리리코 콜로라추라의 감동!

오페라와 그 가수에 대한 관점도 시대에따라 변하기 마련이어서 비올레타 역은 정통 콜로라추라 소프라노를 위한 레퍼토리라는 인식으로부터 조금 무거운 소프라노가 더 극적인 감동을 선사한다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있다. 마리아 칼라스가 그 출발이었고 오늘날에는 칼라스보다 덜 무겁지만 안젤라 게오르규, 안나 네트렙코 등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여기, 이탈리아의 새로운 스타 친치아 포르테가 전통회귀적인 관점에서 비올레타에 도전한다. 그녀의 비올레타는 1950년대의 명가수들을 연상시키는 고전적인 것으로서, 조금 고색창연한 스타일이 아닌가싶기도 하지만 비올레타에 손색이 없는 우아한 외모와 훌륭한 연기로 이런 문제를 극복한다. 정통 리리코 소프라노가 선사하는 비올레타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수 있는 명연이다. 상대역 알프레도를 부르는 사이미르 피르구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유럽정상권의 정통 리리코 테너로 꼽힌다. 벨기에의 남부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왈로니의 아름다운 왕립 오페라에서 열린 2009년 3월의 최신 실황이다. 벨칸토 오페라의 스페셜리스트 파올로 아리바베니가 지휘를 맡았고 스테파노 마초니스 디 프랄라페라가 어두운 미감에 휩싸인 분위기로 연출을 이끌었다.

Dynamic DVD 33670

보테시니: 에로와 레안드로

베로니크 메르시에르(에로)/ 잔 루카 파솔리니(레안드로)/ 로베르토 스칸두치(아리오파르네)/
알도 살바뇨/ 오케스트라 필아르모니카 델 피에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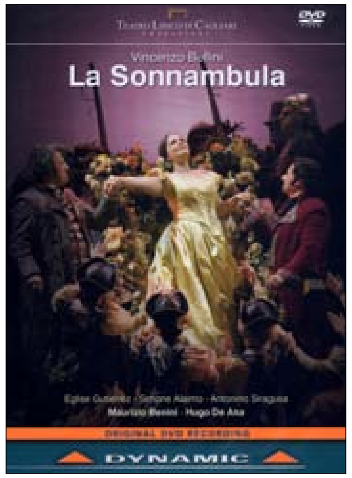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 보테시니가 완성한 아름다운 선율의 오페라

불세출의 더블베이스 연주자로 유명한 조반니 보테시니는 지휘자와 작곡가, 그리고 음악교육자로도 19세기 이탈리아 음악계에 큰 몫을 담당했었다. 그는 베르디와 각별한 사이였으며, 당대의 여느 이탈리아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 열의를 보였다. 그는 모두 네 편의 오페라를 완성했는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에로와 레안드로〉다. 〈메피스토펠레〉의 작곡가이자 베르디의 애제자로 유명한 아리고 보이토의 리브레토에 기초한 이 오페라는 1879년 초연 이후 26회나 반복 공연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작곡가의 사망 이후에는 급속도로 세인들의 관심권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본 영상물은 2009년 9월 작곡가의 고향인 크레마의 테아트로 산 도미니코에서 있었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이 작품 최초의 영상물이기도 하다. 스위스 출신의 신예 소프라노 베로니크 메르시에르와 실력파 테너 잔 루카 파솔리니, 그리고 베테랑 바리톤 로베르토 스칸두치가 참여한 탄탄한 캐스팅이 돋보이며, 간결하고도 현대적인 그레고리오 주리아의 무대도 인상적이다.

[보조자료]

○ 조반니 보테시니는 1821년에 이탈리아 크레마에서 태어나 1889년에 사망한 이탈리아의 음악가다. 오케스트라의 더블베이스 연주자로 음악계에 입문한 그는, 베르디의 충고를 받아들여 서양음악사에서 흔치 않은 더블베이스 솔리스트로 맹활약하였다.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서 드높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렀다. 이후 그는 파리와 런던에서 지휘자로도 활동했으며, 작곡가로도 더블베이스를 위한 작품들뿐만 아니라 협주곡이나 오페라 등도 완성하였다. 이집트에서 베르디 대신 〈아이다〉의 초연을 지휘했던 것도 바로 보테시니였다.

○ 〈에로와 레안드로〉(Ero e Leandro)는 보테시니가 완성한 4편의 오페라 중에서도 당대에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다. 이 3막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라키아의 지배자인 아리오파네는 비너스신전의 여사제 에로를 짝사랑하지만, 그녀는 레안드로와 사랑하는 사이다. 질투에 눈이 먼 아리오파네는 레안드로를 내쫓고 에로를 탑에 가둔다. 레안드로는 에로를 만나기 위해 헬레스폰트 해협을 헤엄쳐 건너지만, 둘의 만남은 아리오파네 에게 발각된다. 레안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아리오파네가 에로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슬픔을 못이긴 에로는 아리오파네 앞에서 숨을 거둔다.



Dynamic DVD 33616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엘리세 구티에레스(아미나)/ 안토니노 시라구사(엘비노)/ 산드라 파스트라나(리사)/ 시모네 알라이모(로돌포)/ 가브리엘라 콜레키아(테레사) 외/ 마우리치오 베니니/ 테아트로 리리코 디 칼리아리

아름다운 무대 미술 위로 펼쳐지는 벨리니의 전원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La Sonnambula)은 '노르마', '청교도'와 더불어 벨리니를 대표하는 3대 걸작으로 손꼽힌다. 서사적이고 비장한 분위기의 다른 두 걸작과 달리 이 '몽유병의 여인'은 아름다운 스위스의 전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인들의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아기자기한 작품이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 루치아가 광란의 장면에서 자신의 모든 기량을 발산하듯이, 이 작품에서의 아미나 역시도 몽유병을 구실로 화려한 콜로라투라의 매력을 맘껏 뽐낸다. 마치 영국 화가 터너의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후고 데 아나의 아름다운 무대미술이 인상적인 본 영상은 2008년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주도 칼리아리의 테아트로 리리코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벨칸토 콜로라투라 레퍼토와에서 주목받고 있는 쿠바 출신의 소프라노 엘리세 구티에레스, 이탈리아의 중견 바리톤 시모네 알라이모, 미성의 신예 테너 안토니노 시구라스, 미모의 레제로 소프라노 산드라 파스트라나 등의 균형 잡힌 캐스팅을 자랑한다.

[보조자료]

○ 물방앗간 여주인 테레사의 양녀인 아미나와 마을의 젊은 지주 엘비노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곧 혼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마을의 영주인 로돌포 백작이 등장하여 아미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자, 엘비노는 질투하게 된다. 몽유병이 있던 아미나는 잠자는 와중에 로돌포 백작의 숙소를 찾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엘비노는 격분하여 결혼을 파기하려 한다. 로돌포의 중재로 엘비노와 마을 사람들은 아미나의 몽유병 증세를 목격하게 되고, 그간의 오해로 해결된다. 둘은 행복하게 맺어지며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 여주인공 아미나를 노래한 쿠바 출신의 미국 소프라노 엘리세 구티에레스는 현재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벨칸토 콜로라투라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예다. 2004년 핀란드의 미리암 헤린 콩쿠르의 여성부에서 우승(이때 김우경이 남성부 우승자였다)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청교도', '몽유병의 여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등의 정통 벨칸토 오페라들을 통해 각광을 받았다. 취리히 오페라, 산타페 오페라, 시애틀 오페라,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테아트로,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벌 등에 출연하였으며, 2009년에는 '샤모니의 린다'를 통해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 데뷔하였다.

Dynamic DVD 33586
[2DVDs]

비발디: 모테추마

비토 프리안테(모테추마)/ 마리-엘렌 네시(미트레나)/ 라우라 케리치(테우틸레)/ 프란치스카 고트발트(코르테스)/ 테오도라 바카(라미로) 외/ 앨런 커티스/ 일 콤플레소 바로코

2002년 재발견된 비발디의 오페라가 최초로 DVD로 발매되다

바로크 기악곡 분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비발디는 오페라의 창작에도 대단히 열정적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닥친 바로크 음악의 붐과 더불어 그의 여러 오페라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여겨졌던 3막 오페라인 '모테추마'다.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즈의 침략을 받은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 모테추마의 비극을 다룬 이 오페라는 지난 2002년 우크라이나에서 2차 대전 직후 소련군이 약탈해간 베를린 징-아카데미의 컬렉션들 틈에서 재발견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실체가 드러났다. 1막 전반부와 3막의 상당부분은 끝내 유실되었는데, 알레산드로 치콜리니가 이를 재구성하였다. 본 영상은 2008년 1월 페라라의 테아트로 코무날레에서 있었던공연을 담은 것으로, DG에서 이 작품 최초의 레코딩을 남긴 장본인인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 앨런 커티스가 지휘봉을 잡았다. 원색의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간결한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발디 특유의 화려한 선율이 바로크 오페라 애호가들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

[보조자료]

ㅇ 비발디는 사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속음악의 대표 격인 오페라에도 크나큰 열정을 쏟았었다. 그는 무려 100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그 정체가 확인된 작품은 50여 종 미만이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작품은 20여 종 남짓하다. 바로크 오페라의 붐과 더불어 그의 오페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나, 그의 오페라의 대부분이 극악의 성악기교를 요구하기에 아직도 실제 무대에 오르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오토네 인 빌라', '올림피아데', '파르나체', '오를란도 푸리오소', '그리셀다'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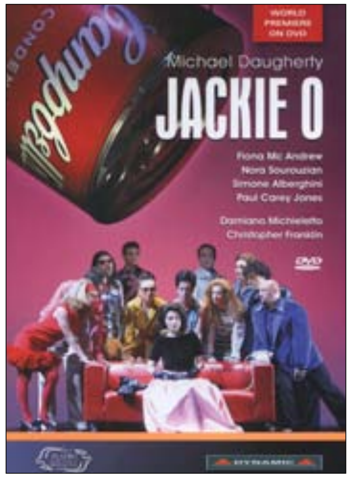
ㅇ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난도 코르테즈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을 침략했던 1519년 무렵이다. 페르난도의 침략으로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자신 역시 포로가 될 운명에 처한 아즈텍의 왕 모테추마와 그의 아내 미트레나, 하지만 그들의 딸 테우틸레는 페르난도의 동생이자 스페인 군대의 장교인 라미로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리고 스페인 군대에 계속 항전할 것을 결심하는 아즈텍 군의 리더 아스프라노가 오페라의 등장인물들이다. 이들 여섯 등장인물들 사이의 애증관계가 우연적인 여러 사건과 오해들을 거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어나가다가 용서와 화해를 기반으로 해피엔딩을 이루는 바로크 오페라의 전형적인 플롯을 따르고 있다.

Dynamic DVD 33614
[2DVDs]

비제: 카르멘

매력적인 가수들이 모인 〈카르멘〉의 가장 성공적인 야외 프로덕션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야외오페라의 본산인 베로나 여름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레퍼토리의 하나이다. 베로나를 맹렬히 뒤쫓고 있는 이탈리아 동부 마체라타의 스페리스테리오 페스티벌도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야심에 찬〈카르멘〉을 선보였다. 단테 페레티가 연출과 무대 디자인을 맡았고 동 페스티벌의 총감독인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의상을 디자인하는 동시에 자신과 많은 작업을 함께 한 안무가 게오르게 이안쿠를 참여시켰다. 2008년 여름 실황인 본 영상물은 뛰어난 가수 진으로도 흥미롭다. 최근 세계 성악계의 강자로 떠오른 그루지아를 대표하는 메조소프라노 니노 수르굴라제는 매혹적인 외모와 깔끔한 가창력으로 새로운 카르멘 상을 창조했고, 베트남 혈통의 프랑스 테너 필리프 도는 돈 호세의 순진한 캐릭터를 서정적인 소리로 살려냈다. 게다가 2007년 늦가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를 불러 절찬을 받은 러시아의 새로운 미녀 소프라노 이리나 룽구를 미카엘라 역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즐거움이다. 전체적으로 스페인의 풍광이 강조된 연출은 아니지만 야외 오페라로서의 미덕이 충분히 살아나는 매력적인 영상물이다.



Dynamic DVD 33605

재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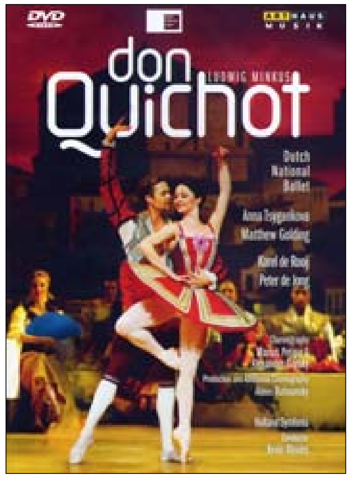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 그리고 칼라스가 주인공인 화제의 오페라

오페라 팬이라면 마리아 칼라스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사랑이 재클린 케네디로 말미암아 파국을 맞았다는 것을 잘알 것이다. 케네디는 오나시스와 결혼하면서 '재키 O'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방면에 거쳐 활약하는 미국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1954~)의 〈재키 O〉는 재키, 칼라스, 오나시스의 실화에 픽션을 더해 만든 작품으로 1997년 초연된 이래 최근엔 유럽에서도 환영받는 20세기 오페라의 히트작이며 1960년대 미국 팝문화를 짙게 드리우는가 하면 〈라 트라비아타〉같은 유명 오페라의 명장면도 패러디한다. 세 주인공 외에 앤디 워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등 유명인사가 등장한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현실인지 꿈결인지 모호하지만 재키와 칼라스가 화해한다든가, 죽은 케네디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바람기를 용서한다든가 하는 설정도 의미심장하다. 정신을 차린 재키가 미국으로 돌아가 봉사할 것을 결심하는 장면은 과연 미국 오페라다운 결말이다. 본 영상물은 이탈리아 초연 프로덕션인 2008년 볼로냐 시립 가극장 실황이다. 간결하지만 효과적인 무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분장과 의상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Arthaus DVD

ARTHAUS MUSIK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561

발레 〈돈 키호테〉

스페인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네덜란드 국립 발레의 새 프로덕션

러시아는 특별히 남국 스페인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는데, 러시아 황실극장의 가장 대표적인 희극 발레 〈돈 키호테〉도 그 산물이다. 발레 제목과 달리 돈 키호테와 산초 판자는 극의 단서를 제공하는 과객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바르셀로나의 말괄량이 소녀 키트리와 그녀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이 발레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알렉산더 고르스키가 수정한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덜란드 국립발레의 2010년 실황인 영상물은 볼쇼이 발레의 젊은 예술감독이었던 알렉세이 라트만스키가 다시 손을 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제롬 카플랑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은 스페인의 남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생생하게 살렸다. 주인공 키트리를 추는 러시아 발레리나 안나 치간코바는 현재 가장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보조자료]

ㅇ 발레 〈돈 키호테〉의 10대 감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벨 연구소 선정 '인류 최고의 문학' 1위, 노던 출판사 선정 '최고의 희극소설'에 빛나는 〈돈 키호테〉를 원작으로 한다. 둘째, 그러면서도 〈돈 키호테〉의 언저리를 취급한다. 주인공은 키트리와 바질이며, 돈 키호테는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하다. 셋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한다. 러시아에 있어서 스페인은 이상향이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투우사, 집시의 이미지를 발레에 구현했다. 넷째, 러시아 황실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프티파의 초기 걸작이다. 다섯째, 희극 발레의 대표작이다. 키트리의 구혼자 가마슈의 캐릭터와 멋쟁이 투우사 에스파다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한다. 여섯째, 춤이 끊어지지 않은 뛰어난 구성미를 자랑한다. 이는 주로 알렉산더 고르스키의 공적이다. 일곱째, '돈 키호테의 꿈' 장면을 통하여 초현실적인 세계를 그린 발레 블랑을 삽입했다. 여덟째, 20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에서만 공연되다가 1970년대 이후에야 서구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작품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널리 공연되는 5대 발레의 하나로 꼽힌다. 아홉째, 개성 있는 '그랑 파드되'가 일품이다. 결혼식 장면임에도 스페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열 번째, 이국적인 음악의 달인이었던 루트비히 밍쿠스의 음악을 사용한다.

Arthaus DVD 101 559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이렌 테오린(엘렉트라)/ 발트라우트 마이어(클리탬네스트라)/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크리소테미스)/ 로버트 갬빌(애기스트)/ 르네 파페(오레스트)/ 다니엘레 가티/ 빈 필하모닉

* Classicstoday 10/10

거물급 가수들과 화제의 연출가가 함께 빚어낸 최강의 엘렉트라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던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는 각 배역에 최적화된 정상급 가수들의 열연과 천재적 연출가의 눈부신 재능이 멋진 조화를 이룬 화제의 무대였다. 빈의 유력 일간지 Kurier는 이 무대를 2010년 최고의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꼽았다. 2008년 바이로이트에서 이졸데를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으로 각광받은 스웨덴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레네 테오린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존재만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는 대형 여가수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이중적인 심리상태의 클리탬네스트라를 열연하였다. 르네 파페의 당당한 모습도 누이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오레스트의 전형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을 연상케 하는 라이문트 바이어의 무대 위로 각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니콜라우스 렌호프의 감각적인 연출과 슈트라우스가 의도했던 강력한 음향 스케일을 거침없이 재현해내는 다니엘레 가티/ 빈 필하모닉의 탄탄한 반주도 명불허전이다.

[보조자료]

ㅇ 슈트라우스는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에 기초하여 완성한 호프만스탈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엘렉트라'를 완성하였다. 오페라의 이야기 배경은 트로이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당당히 개선하지만, 아내 클리탬네스트라와 그녀의 내연남 애기스트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한다. 아가멤논의 큰 딸 엘렉트라는 남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기만을 학수고대하지만, 여동생 크리소테미스는 복수에 미온적이다.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오보로 엘렉트라의 복수극도 위기를 맞지만, 결국 엘렉트라와 오레스트는 친모와 그 연인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완결한다.

ㅇ 다음은 10/10의 최고점을 부여한 Classicstoday의 리뷰를 요약 번역한 것이다. "니콜라우스 렌호프에 의해 효과적으로 연출된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의 이 익사이팅한 퍼포먼스는 스토리 그 자체를 무시무시하게 전개해나간다. 이레네 테오린의 엘렉트라는 내가 접한 동일 배역들에 비해 따뜻하면서도 한층 더 인간적이다. 그녀의 연기는 광기와 내면의 상처를 함께 보여주며, 음성은 놀랄 만큼 잘 다듬어졌다.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의 크리소테미스는 매우 인간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르네 파페는 어둡고도 응집된 음성으로 자객 오레스트를 연기하였다. 클리템네스트라의 최후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거북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이다." – *Robert Levine Classicstoday.com*

Arthaus DVD 107 506
[2DVD Box + Arthaus 카탈로그]

마르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오 + 아름다운 엘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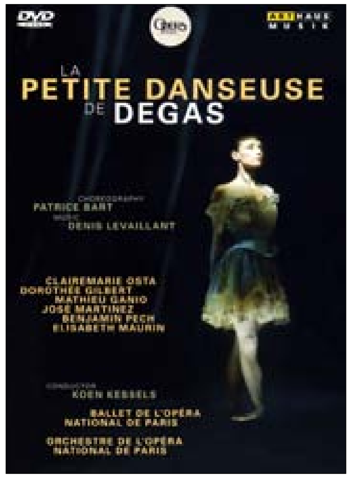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한 오펜바흐의 양대 걸작 오페레타들

마르크 민코프스키는 바로크시대 극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들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본 Box는 그가 Arthaus를 통해 선보였던 오펜바흐의 양대 걸작 오페레타들의 영상물을 함께 모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타이틀로 익숙한 최고의 히트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는 1997년 리옹 국립오페라에서의 실황으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부상하던 시점의 나탈리 드세이의 싱그러운 매력과 그녀의 남편인 바리톤 노랑 나우리, 정상급 오트 콩트르 장 폴 푸셰쿠르의 코믹한 열연이 돋보인다. 트로이전쟁의 배경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아름다운 엘렌'은 영국의 국보급 소프라노 데임 펠리서티 로트가 타이틀 롤을 열연한 2000년 파리 샤틀레극장에서의 실황이다. 두 프로덕션 모두 그리스의 신화를 현대적인 배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놓은 로렝 펠리의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인다. 춤과 노래와 코미디가 한껏 어우러진 프랑스 오페레타의 떠들썩한 난장을 만나보시라.

[보조자료]

○ '지옥의 오르페'는 그리스의 고전인 오르페오와 유리디체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각색한 것이다. 오르페(오르페우스)는 리라대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직업음악가이며, 아름다운 부인 우리디스(유리디체)가 있음에도 늘 다른 아낙네들에게 군침을 흘린다. 우리디스 역시 맞바람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우리디스는 아리스테라는 미청년으로 변신한 플뤼통과 불륜행각을 벌이다가 저승으로 끌려가고, 오르페는 자유를 기뻐한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쥐피테르(주피터)에게 우리디스를 살려줄 것을 간청한다. 하지만 쥐피테르 역시 우리디스의 미모에 혹하게 되고, 자신의 여자로 만들 궁리를 한다. 오르페는 우리드스를 이끌고 지옥을 빠져나가게 되나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쥐피테르가 던진 천둥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만다. 결국 오르페는 우리디스로부터 벗어나고, 쥐피테르 역시 우리디스를 가지게 되는 황당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아름다운 엘렌' 역시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작품이다. 스파르타의 비너스 신전 앞에서 스파르타의 왕비 엘렌(헬레나)은 예언자 칼카스로부터 주노, 아테나, 비너스 중에서 비너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한 파리스에게 비너스가 그 답례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인 자신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한다. 파리스가 등장하고, 남편 메넬라오스가 슬슬 지겨워졌던 엘렌은 파리스와 사랑에 빠진다. 메넬라오스의 방해로 파리스는 결국 추방당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비너스는 모든 아내들의 절개를 흔들게 만듦으로써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결국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메넬라오스는 엘렌을 포기하고, 엘렌은 파리스와 함께 비너스의 성지인 시테라로 향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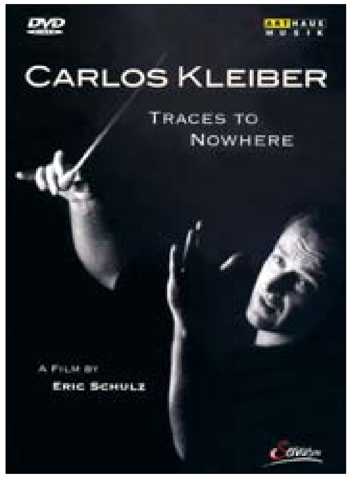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543

발레 〈드가의 작은 무희〉

드가의 조각상 '14살의 작은 무희'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제의 발레프랑스의 에드가르 드가는 발레리나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그런데 유명한 조각상도 남겼으니 '14살의 작은 무희'가 그것이다. 그 모델이 가난한 벨기에 이민자의 딸이자 발레리나 지망생이었던 마리 반 괴템이라고 정확히 규명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닌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안무가 파트리스 바르는 이 모델에 대해 깊이 연구한 마르티네 카하네와 함께 스토리를 구상하고 2003년에 이 발레를 만들었다. 본 영상물은 2010년 실황이다. 배경이 되는 1880년대는 발레의 주도권이 러시아로 완전히 넘어가고 파리 극장가는 예쁜 무용수를 찾는 돈 많은 남자들이 기웃거리던 분위기였다. 그 시대상과 더불어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어린 발레리나 지망생의 서글픈 삶이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아주 개성이 강한 수작이다.

[보조자료]

○ 이 발레의 모티브를 제공한 드가의 조각 '14살의 작은 무희'는 지금은 청동으로 남아있지만, 원래는 피부색과 유사한 밀랍으로 빚은 인형이며, 여기에 가발을 씌우고, 무용복을 입히고 천으로 된 무용화를 신겼다. 인형의 체형과 자세, 그리고 표정은 당시 이상적으로 생각한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예술이 이보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혹은 "우리 딸이 무용수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등의 악평을 받고 큰 상처를 입은 드가는 두 번 다시 이 작품을 전시하지 않았다. 조각상의 모델 마리 반 괴템은 가난한 벨기에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다. 재단사였던 아버지를 도와 생계전선에 나선 마리는 아버지가 죽자 두 언니와 함께 무용학교에 들어갔다. 돈이 필요했던 모친은 세 자매에게 화가의 모델이 될 것을 강요했고 심지어 도둑질이나 매춘까지도 해야 했다. 끝내 마리는 고객의 지갑을 훔친 죄로 체포되었고 이후로는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드가는 죽는 날까지 마리의 조각을 작업실에 가지고 있었다. 한 고객이 그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구입하고 싶어 하자 드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한다. "제 딸인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Arthaus DVD 101 553

카를로스 클라이버: 아무 곳으로도 향하지 않은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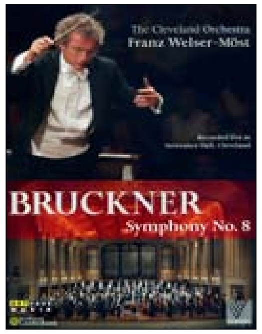
"지휘자 중의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누구인가?

2004년 7월의 어느 날, 늙고 병든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차를 몰고 뮌헨을 벗어났고 알프스를 넘어 그의 별장이 있는 슬로베니아의 콘즈시카에 도착했다. 거기서 친구에게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편지를 썼고, 며칠 후 안으로 잠긴 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금슬 좋았던 슬로베니아 출신의 발레리나 아내와 사별한 지 반년만의 일이었다. 클라이버 탄생 80주년이 된 2010년에 제작된 에릭 슐츠의 이 다큐멘터리는 은둔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나 음악만큼은 늘 최고를 만들어냈던 특별한 지휘자의 마지막 여정을 추적한다. 미카엘 길렌, 플라시도 도밍고, 브리기테 파스벤더, 오토 쉔크, 만프레더 호넥 등 동료와 친구는 물론 인터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클라이버의 누나 베로니카의 증언도 들어있다.

[보조자료]

○ 최근 영국의 음악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이 현역 지휘자 100명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휘자 3명을 선정해 달라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위 카를로스 클라이버, 2위 레너드 번스타인, 3위 클라우디오 아바도, 4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5위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최상위에 올랐다. 특히 공연회수가 많지 않았고 레퍼토리의 폭도 결코 넓지 않았던 클라이버가 1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잡지는 평가했는데, 늘 주술적인 흡인력으로 음악적인 본질을 끄집어낼 줄 알았던 클라이버의 면모를 후배 지휘자들이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대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와 미국 출신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신과는 복잡미묘한 관계였던 부친의 사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겉으로는 늘 웃음을 지었으나 내면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남자였다. 바람기가 많았으나 발레리나 출신의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했고, 그녀가 먼저 죽자 삶의 마지막 의욕을 잃었다. 최후를 맞이한 슬로베니아 역시 아내의 조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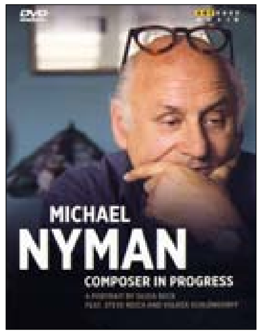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581

브루크너: 교향곡 8번 (1887년 노바크 판본)

프란츠 벨저-뫼스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의 오리지널 버전을 담은 최초의 영상물

교향곡 5번, 9번, 7번에 이은 프란츠 벨저-뫼스트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브루크너 교향곡 DVD의 네 번째 출시작. 2010년 8월 클리블랜드 세브란스 홀에서 있었던 교향곡 8번의 실황을 담았다. 교향곡 8번은 교향곡 역사상 가장 웅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거작의 하나로, 혹자는 이를 두고 브루크너 교향곡의 에베레스트라고 칭하기도 했다. 브루크너는 1887년에 이 작품을 완성하였지만, 지휘자 헤르만 레비의 비평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수정 끝에 1890년에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 개정판에 기초한 1890년 노바크 판본과 개정판의 골격에 오리지널 버전의 일부를 접목한 하스 판본이 가장 널리 연주되는 이 교향곡의 판본들이지만, 벨저-뫼스트는 이 영상을 위해 노바크가 정리한 1887년 버전을 선택하였다. 이 버전에 의한 몇몇 CD가 이미 존재하지만, 영상물로는 이번 신보가 최초다. 구성이 다소 번잡한 오리지널 버전의 약점을 만회하는 벨저-뫼스트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리드가 돋보이는 이 영상물은 브루크너 마니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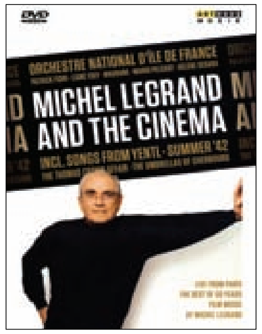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483

마이클 니만: Composer in Progress

클래식과 락의 세계를 가장 멋지게 접목시켰던 마이클 니만의 음악세계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은 제인 캄피온 감독의 피아노의 배경 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이전부터 영국의 실험주의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와의 긴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프로스페로의 서재',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 등의 음악을 완성했었다. 또 그보다 앞서는 현대음악에 관한 명저 '실험주의 음악: 케이지와 그 이후'의 저자이자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음악계에 처음 도입했던 음악학자 겸 저술가였다. 락 음악을 방불케 하는 박력 넘치는 그루브와 감각적인 서정미를 겸비한 그의 음악 스타일은 크로스오버의 가장 성공적인 예로 많은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의 음악 이력과 음악 외적인 다양한 활동상을 담은 5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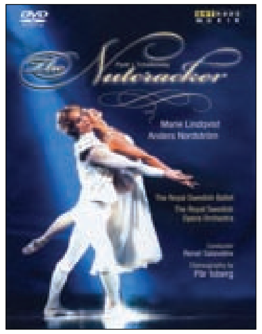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549

미셸 르그랑과 영화

프랑스 영화음악의 상징, 미셸 르그랑의 2009년 자작자연 콘서트

파리음악원에서 정통 클래식을 공부한 미셸 르그랑(1932~)은 젊은 시절부터 빼어난 유러피안 재즈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1950년대에 영화음악에 관심을 갖고 〈셰르부르의 우산〉 등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프랑스 영화음악가 인데도 할리우드의 오스카상에 열세번이나 노미네이트되고 그중 세 차례나 수상했을 정도로 말이다.이 영상물은 르그랑 자신이 직접 2009년 파리의 살 플레옐에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또 수많은 게스트 아티스트와 공연한 실황이다. 직접 피아노 앞에 앉거나, 지휘대 위에 서거나, 또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며 콘서트를 진행한다. 〈셰르부르의 우산〉,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42년의 여름〉,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로슈포의 젊은 소녀들〉, 〈옌틀〉 등 반세기에 걸친 르그랑 영화음악의 진수를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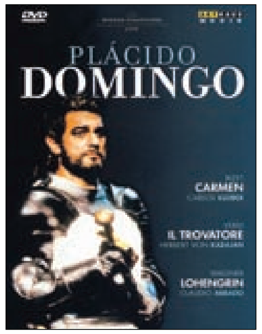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086

[PAL 방식 DVD]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로얄 스웨덴 발레단

스웨덴의 전래 크리스마스 동화로 다시 태어난 로맨틱 발레의 대표걸작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내용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용 공연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각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원래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지만, 본 DVD에 수록된 스웨덴 왕립 발레단의 1999년 공연 실황은 이 작품에 새로운 스토리를 부여하였다. 스웨덴의 동화작가 엘자 베스코프의 '페테르와 로타의 크리스마스'를 이 작품에 접목한 것이다. 페테르와 로타라는 이름의 남매와 엉클 블루가 각각 클라라와 드로셀마이어의 자리를 대체하며, 스웨덴 전래의 크리스마스 상징물인 크리스마스염소의 가면을 쓴 불쏘시개(Charcoal Burner)가 호두까기인형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바노프 안무에서 여주인공역할을 맡는 별사탕요정의 자리는 엉클 블루의 가정부가 대신한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2막의 디베르티스망도 신선한 감흥을 안겨준다.



Arthaus DVD 107 505
[4DVD Box Set]

빈 슈타츠오퍼에서의 플라시도 도밍고

– 카르멘 –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의 1978년 프로덕션
– 일 트로바토레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의 1978년 프로덕션
– 로엔그린 –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의 1990년 프로덕션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사람의 위대한 마에스트로와 함께 한 도밍고의 열창과 열연

파바로티와 쌍벽을 이루었던 20세기의 위대한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대표 영상물 3종을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 영상 모두 단품으로 발매되었던 시기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던 타이틀로 특히 박종호의 '불멸의 오페라' 시리즈에서도 모두 ***의 추천을 받았던 영상들이다. 제피렐리가 연출한 비제의 〈카르멘〉과 카라얀이 지휘와 연출을 겸한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는 도밍고의 최전성기 시절인 1978년의 영상들로 시대에 비해 화질과 음질이 우수한 편이며, 바그너의 〈로엔그린〉은 그가 본격적으로 바그너에 몰입하던 시기인 1990년의 기록이다. 위대한 가수의 열연과 열창을 만나는 기쁨과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세 마에스트로들인 카를로스 클라이버(카르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일 트로바토레), 클라우디오 아바도(로엔그린)의 지휘를 각각 담고 있다는 점도 이 Box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다. **〈카르멘〉과 〈로엔그린〉은 PAL 방식, 〈일 트로바토레〉는 NTSC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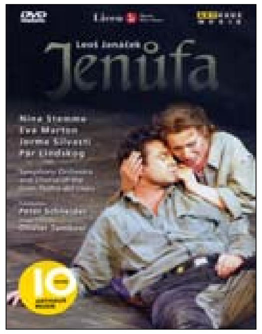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217

라 실피드

발레 블랑의 신기원을 이룬 1832년의 명작을 정교하게 재현한 공연

로맨틱 발레를 상징하는 것은 백색의 긴 튀튀를 입은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른바 발레 블랑(ballet blanc)이다. 이는 토슈즈를 사용한 포 앵트 기교와 결합하여 더없이 환상적인 천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발레 역사에서 발레 블랑의 기원을 연 작품으로는 필리포 탈리오니의 〈라 실피드〉(1832)가 꼽힌다. 그러나 그의 안무는 전하지 않고 덴마크의 오귀스트 부르농빌이 안무는 물론 음악까지 바꾼 작품이 널리 알려져 왔다. 프랑스의 피에르 라코트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1971년에 〈라 실피드〉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성공하고 이듬해 이 작품이 초연된 파리 오페라 발레 무대에 올렸다. 본 영상물은 필리포 탈리오니의 딸이자 1832년 초연 당시 라 실피드를 추었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파리 오페라 발레가 다시 무대에 올린 2004년 7월 실황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 사람인 오렐리 듀퐁이 탈리오니를 재현했고,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연소 에투알(주역)인 매튜 가니오가 제임스 역을 맡았다.

[구, TDK DVWBLSYL 과 동일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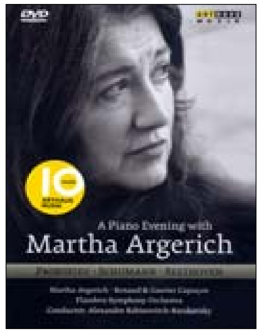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183

야나체크: 예누파

처절한 드라마를 서정적으로 그려낸 야나체크의 대표 오페라

모라비아태생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1854~1928)는 9개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이중 〈예누파〉,〈카타 카바노바〉, 〈영리한 암여우 이야기〉, 〈마크로풀로스 사건〉,〈죽은 자의 집에서〉는 20세기오페라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중에서도 첫 걸작인〈예누파〉가 최고의 인기작이다. 이 오페라의 원제는 〈그녀의 양녀〉이다. 여기서 양녀는 예누파이므로 딸과 계모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예누파는 사촌인 스테바 부리아를 사랑하여 그의 아이까지 갖게되었지 만 버림받는다. 또 다른 사촌인 클레메뉴가 예누파를 사랑하는데 격한 질투심이 발동한 바람에 예누파의 얼굴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힌다. 예누파는 계모의 도움으로 몰래 아들을낳지만 계모는 클레 메뉴와 맺어주기 위해 아이를 살해하고 만다. 두 사람의 결혼직전에 영아 살해가 밝혀지는데 예누파는 계모를 용서하고 클레멘뉴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줄거리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웨덴 소프라노 니나 슈테메의 아름다움과 투명한 음색이 돋보이는 2005년 바르셀로나리세우 극장 실황이다. 환갑을 넘긴 대스타 에바 마르톤이 전처의 딸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계모 역을 열창한다. 올리비에르 탐보시의 연출은 대단히 극적이고 무대도 동유럽의 전원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구, TDK DVWW-OPJENU 와 동일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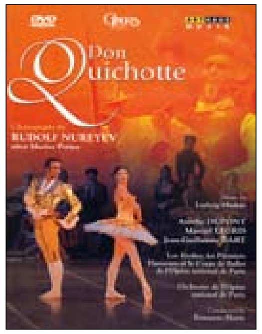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221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하는 피아노의 저녁

2005년 25회 La Roque d'Antheron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실황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차세대 거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의 형제 음악가 르노 카푸숑과 고티에르 카푸숑의 열연을 뛰어난 고해상도의 화면과 DTS 서라운드의 입체음향으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회.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식'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한 콘서트는 아르헤리치가 독주를 맡은 같은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열기를 더해간다. 이어지는 작품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르노 카푸숑의 참신한 패기와 아르헤리치의 노련한 원숙미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이채롭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카푸송 형제와 아르헤리치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 낸다.

[구, TDK DVWWCOMARG 와 동일 영상물]



Arthaus DVD 107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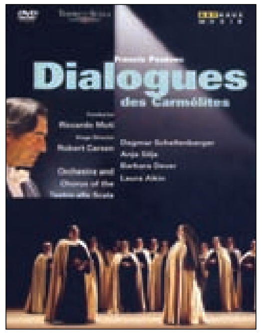
루돌프 누레예프: 발레 〈돈 키호테〉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고 스타가 재현하는 루돌프 누레예프의 유산

발레 〈돈 키호테〉는 밝고 유쾌한 발레의 대명사이며 특히 피날레의 그랑 파드되(2인무)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배경인 이 발레의 주인공은 여관집 딸 키트리와 그녀의 연인인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다. 돈 키호테와 산초 판자는 극의 단서를 제공하는 조역으로 등장할 뿐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단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는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수이자 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지낸 루돌프 누레예프가 재 안무한 〈돈 키호테〉를 레퍼토리로 갖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간판스타 마뉘엘 레그리(바질),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로 꼽히는 건강한 테크니션 오렐리 듀퐁(키트리)이 주역을 맡고 있다.

[TDK DVUS-BLDQ 와 동일 영상물]

풀랑: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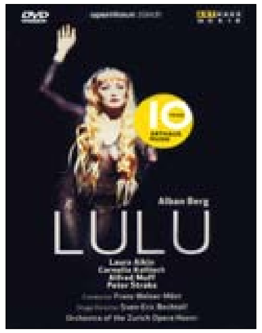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315

초연 50주년을 맞은 20세기의 가장 감동적인 오페라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오페라 중에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풀랑의 〈카르멜파 수녀들의 대화〉는 예외다. 프랑스 오페라임에도 1957년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니 2007년으로 겨우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젊은 작품'이지만 드라마로도 뛰어나고, 현대 작곡가로는 드물게 친근한 곡을 만들었던 풀랑의 음악도 아름답다. 이 오페라는 완전히 종교적인 작품이며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 치하의 카르멜 파 수도원이 배경이다. 귀족의 딸로 수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블랑슈는 아버지마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자 공포에 젖어 수녀들의 무리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동료 수녀들이 체포되어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오자 스스로 단두대에 나타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린 수녀와 함께 담담하게 순교를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장면에 단두대의 칼날이 연이어 떨어지는 음향은 납량특집 효과로도 충분할 것이다. 초연 당시 이탈리아어로 공연했던 라 스칼라 극장은 2004년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불어 원전판을 무대에 올렸다. 원로 소프라노 안나 실랴가 수녀원장 역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고 창의력 넘치는 연출가 로버트 카슨이 종교적 분위기와 죽음의 공포가 잘 살아난 무대를 만들어냈다.
[구, TDK DVWWOPDDC 와 동일 영상물]

알반 베르크: 룰루



Arthaus DVD 101 565

초연 당시의 2막판으로 오랜만에 회귀한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실황

무조음악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알반 베르크의 〈룰루〉는 1937년 초연된 이래 현대 오페라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손꼽혀왔다. 특히 1979년에 프리드리히 체르하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3막을 완결지음으로써 현재는 3막판의 상연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실황(2002년 12월)은 이 오페라가 초연된 도시답게 2막판으로 회귀하고 있다. 체르하의 작업이 워낙 뛰어났기에 2막으로 돌아간 것이 반드시 정통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휘자 프란츠 벨저-뫼스트는 스페셜 피처로 제공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2막판이 갖는 장점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설명한다. 스벤-에릭 베흐톨프의 연출은 작품의 무대를 초연 당시에 유행했던 음울한 아르 데코 풍으로 다루었으며, 심리적 묘사나 성적인 상징에서 자극적인 요소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타이틀 롤의 라우라 아이킨은 연출자의 의도에 부응하여 룰루의 변신을 숨 가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가창력도 무척 정확하고 능수능란하다.
[TDK DVUS-OPLULU 와 동일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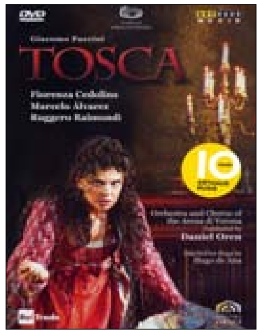
모차르트: 황제 티토의 자비

Arthaus DVD 107 181

이 시대의 정상급 네 디바들과 거장 아르농쿠르의 역사적인 만남

2003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 본 영상물은 현재 유럽 오페라계를 호령하고 있는 4명의 최정상급 디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상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베젤리나 카사로바가 암살자 세스토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부여하였고, 매력적인 용모의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이 관능적인 비텔리아를 열연한다. 얼마 전 DG와의 전속계약으로 음악계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던 엘리나 가란차의 냉철한 안니오,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가는 바바라 보니의 세르빌라가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4명의 여전사들 에게 고뇌에 찬 열연으로 당당히 맞서는 미카엘 샤데의 티토, 여기에 거장 아르농쿠르의 노련한 지휘가 더해졌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캐스팅의 오페라 실황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낯익은 잘츠부르크 승마학교(Felsnreitschule)의 구조를 적절히 활용한 엔스 킬리안의 독특한 무대와 심리극적인 요소를 강조한 마르틴 쿠세이의 비범한 연출 또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TDK DVWW-OPCLETI 와 동일영상물]**

푸치니: 토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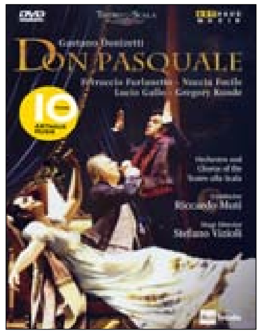


Arthaus DVD 107 195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펼쳐진 최고가수와 최고연출가의 압도적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의 고대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은 2013년이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베로나 페스티벌은 진화를 거듭하여 공연 수준에 있어서도 톱클래스에 올라섰다. 베로나 페스티벌의 지휘자로는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 오렌이 간판스타다. 거대한 스케일과 명확한 완결성을 이끌어낸다. 연출가로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후고 데 아나의 명망이 높다. 2006년 페스티벌에서 이 두 거장이 힘을 합쳐 심금을 울리는 푸치니의 걸작 〈토스카〉를 멋지게 창조해냈다. 무대만 볼만한 것이 아니라 연주수준에 있어서도 근래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당연히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탈리아에서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있는 피오렌차 체돌린스(코스카), 파바로티와 도밍고의 뒤를 잇는 대형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 (카바라도시), 이탈리아 베이스바리톤의 상징인 루제로 라이몬디(스카르피아)가 주요 배역을 맡아 1800년 6월의 어느 하루 동안 펼쳐지는 사랑과 질투, 음모와 살인의 드라마를 멋지게 그려냈다. 정치적 격동과 개인사가 얽힌 비극이 서사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잘 살린 역동적인 카메라워크도 일품이다. **[구, TDK DVWW-OPTOV 동일영상물]**

도니체티: 돈 파스콸레



Arthaus DVD 107 207

희극 오페라의 진정한 걸작을 격찬 받았던 라 스칼라 공연으로!

도니체티는 가장 비극적 오페라는 물론〈사랑의 묘약〉처럼 유쾌한 가작도 만들었다. 다만 〈사랑의 묘약〉은 전형적인 희가극이 아니라 일종의 로맨틱 코메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니체티를 대표하는 희가극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돈 파스콸레〉라는 것이다.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던 만년의 작품이지만 극에 담긴 해학과 활기는 놀라울 정도다. 돈 파스콸레는 아내가 돈을 낭비할까봐 결혼도 마다한 구두쇠! 재산을 조카 에르네스토에게 물려줄 생각이지만 조카는 노리나라는 과부를사랑한다. 가진 것 없는 과부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한 파스콸레는 이 결혼을 극력 반대하고 대신 자신이 젊은 여인과 결혼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에르네스토와 파스콸레의 주치의가 짜낸 계략! 젊은 여인의 정체는 바로 노리나였던 것이다. 하루만에 여자의 낭비벽에 질린 파스콸레는 원래대로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인와 결혼하라고 허락하는데...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1994년 라 스칼라 실황이다. 대표적인 바소 부포(희극적 베이스) 페루치오 푸를라네토가 타이틀 롤을,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귀여운 여인' 누치아 포칠레가 노리나를 부른다. 악보대로 요구하는 무티의 의도를 완벽하게 처리한 출연진의 역량이 돋보이는 결정판이다.
[구, TDK DVWWOPDPSC 와 동일영상물]

푸치니: 마농 레스코

Arthaus DVD 107 275

최고의 명가수 마리아 굴레기나와 호세 쿠라의 드라마틱한 만남

〈마농 레스코〉는 푸치니의 초기작이지만 그의〈로미오와 줄리엣〉이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요, 〈보니와 클라이드〉라 불리기도 한다. 세상의 상식과는 격리된 듯한 두 남녀의 무분별한 사랑이지만 그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악보에 담아낸 걸작이다. 특히 뉴올리온즈의 황야에서 죽어가는 마농의 피날레 씬은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다. 1998년 라 스칼라 무대에 오른 〈마농 레스코〉는 큰 화제를 모았다. 우선 한창 떠오르는 스타로 각광받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와 '마리오 델 모나코'의 재래라고 불린 아르헨티나의 신예 드라마틱 테너 호세 쿠라가 한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대접받는 이들의 7년 전의 모습은 싱그럽기까지 하다. 또한 라 스칼라의 수장이지만 푸치니 오페라에는 잘 나서지 않았던 리카르도 무티가 직접 지휘봉을 잡아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릴리아나 카니니의 연출은 사실성을 기초로 하되 무척 절제된 무대를 설계했으며 여류답게 섬세한 동선과 감각적인 연기를 이끌어 냈다. **[구, TDK DVWW-OPMLES 동일영상물]**

푸치니: 투란도트

Arthaus DVD 107 319

최전성기의 에바 마르톤과 호세 카레라스가 열창한 절정의 무대

1981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그림자 없는 여인〉이 공연되었을 때 헝가리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에바 마르톤은 황후 역으로, 그보다 25년이나 선배인 스웨덴의 비르기트 닐손은 염색집 아낙으로 출연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투란도트였지만 전성기가 지난 닐손은 마르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투란도트를 불러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이렇게 위대한 선배로부터 직접 후계자로 낙점 받은 마르톤은 닐손을 능가하는 위대한 투란도트로 우뚝 서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마르톤이 〈투란도트〉를 처음 불렀던 시기인 1983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을담고 있다. 역시 마르톤이 부른 1988년 메트로폴리탄 실황판이 최고의 〈투란도트〉로 꼽혀왔으나 마흔 살의 보다 싱싱한목소리로 열창하는 이편은 음악적인 긴장감을 더한다. 칼라프 왕자를 부르는 호세 카레라스도 대단이다. 워낙 '피를 토하는 듯한 열창'으로 유명한 카레라스인데, 마치 자기 목을 내어 놓고 도박하듯 투란도트에게 구혼하는 망명왕족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고 있다. 〈투란도트〉의 새로운 결정판으로 인정해도 좋을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다. 지휘자 로린 마젤은 독특한 직관력을 발휘하고 빈 슈타츠오퍼의 무대는 신화시대 중국의 인상을 잘 살려냈다.

[구, TDK DVWW-CLOPTUR 동일영상물]

베르디: 가면무도회

Arthaus DVD 107 271

조수미가 세계적 명성을 얻는 디딤돌이 된 1990년 잘츠부르크 공연실황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카라얀에게 발탁되어 〈가면무도회〉에 출연한 것이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카라얀이 곧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수미의 잘츠부르크 출연은 게오르그 솔티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이 영상물은 바로 그 실황이며 조수미는 가벼운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역인 오스카를 부른다. 〈가면무도회〉는 실제로 벌어졌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에서 취재한 것이며,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남자 테너 주역이 고귀한 인품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플라시도 도밍고가 '위대한' 구스타보 3세에 딱 어울리는 노래와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잘츠부르크 대축제극장의 넓은 무대를 십분 활용한 존 슐레진저의 연출도 구스타프의 인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역인 조세핀 바스토우(아멜리아), 레오 누치(레나토)의 경우도 가장 전성기의 모습이 담겨있다.

[구, TDK DVUS-CLOPUBIM 동일영상물]

리하르트 쉬트라우스: 카프리치오

Arthaus DVD 107 327

음악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해묵은 논쟁에 대한 유쾌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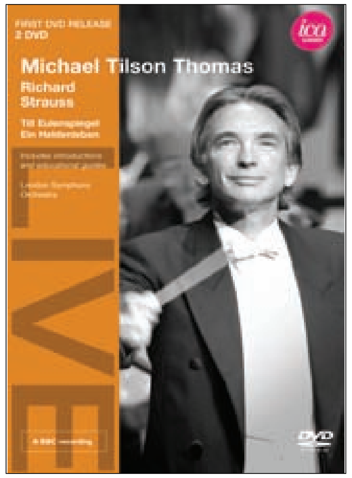
음악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하는 것은 오페라 태동기 이래 끊임없이 반복된 명제이다. 1786년에는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바람에 모차르트가 〈극장 지배인〉을, 살리에리가 〈음악이 첫째, 말은 둘째〉를 작곡하기도 했다. 리하르트 쉬트라우스의 마지막 오페라는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고전주의 스타일의 명징함을 추구했고, 단막이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영상물은 2004년 여름 파리 국립 오페라 실황이다. 십년 가까이 이 극장을 이끌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위그 갈 (Hugues R. Gall)의 임기 마지막 작품이었기에 오페라가 제작되는 과정이 담긴 작품을 선택한 것이다. 천재 연출가 로버트 카슨은 그 의미를 멋들어지게 담았다. 주역인 르네 플레밍은 객석에 앉아 있다가 무대위로 올라간다. 무대에서는 오페라를 제작하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위그 갈이 봉직한 파리 오페라 극장의 내부를 상징한다. 플레밍 뿐 아니라 안네 소피 폰 오터, 디트리히 헨셸, 라이너 트로스트, 제랄드 핀리 등 초호화 출연진이 위그 갈의 명예로운 퇴장을 배웅한다.

[구, TDK DVWW-OPCAPR 와 동일영상물]

ICA (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DVD

www.icartists.co.uk

R. 슈트라우스: 틸 오이렌슈피겔, 영웅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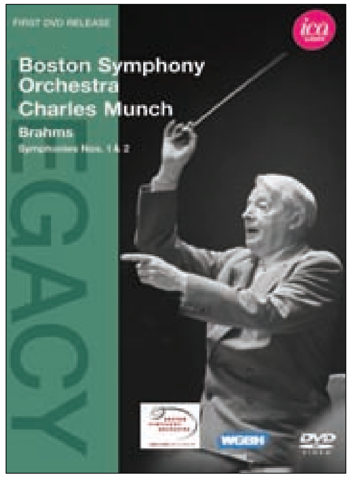
ICAD 5031 **[2DVDs]**

마이클 틸슨 토마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틸슨-토마스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감상하는 슈트라우스의 두 교향시

번스타인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각광받았던 마이클 틸슨-토마스는 1987년부터 1995년 사이에 런던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로 활약하면서 영국 음악계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청소년 음악회'를 통해 번스타인이 했던 것처럼, 그도 해박한 음악적 지식과 타고난 발변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클래식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현재 틸슨-토마스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키핑스코어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본 영상은 그가 런던시절에 가졌었던 유사한 포맷의 영상 두 편을 함께 수록하였다. '틸 오이렌슈피겔'은 그가 상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86년 12월에 녹화된 TV 방영용 필름으로, 연주에 앞서서 다양한 예시가 동반된 1시간 가까운 상세한 해설을 통해 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하였다. '영웅의 생애'는 그가 임기를 마치기 한 해 전의 기록으로, 바비칸 센터에서 있었던 렉쳐 콘서트를 담은 것이다. 작품의 당당한 스케일을 잘 살려낸 연주에 앞서서 30분 분량의 작품에 대한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샤를 뮌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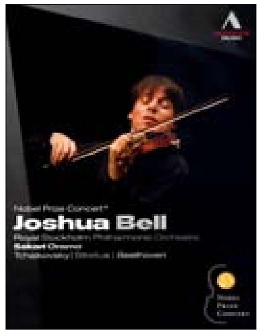
ICAD 5029

독일적 구성력과 프랑스적 감수성을 결합시킨 샤를 뮌슈의 브람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샤를 뮌슈(1891~1968)의 특징은 그가 독일과 프랑스의 영토를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한 알사스 지방 출신이란 사실에서 출발한다. 음악 명문가에서 태어난 독일계 프랑스인이었으니 피에 흐르는 독일적인 구성력과 성장과정에서 습득한 프랑스적인 감수성을 겸비한 특별한 개성을 갖게 된 것이다. 1937년부터 맡은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를 유수의 악단에 올려놓은 뮌슈는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 쿠세비츠키의 후임으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 되었다. 이때부터 1962년까지 동 악단에서 황금시대를 맞이하면서 베를리오즈로 대표되는 기존의 장기 외에 풍부한 레퍼토리를 추가하게 된다. 브람스의 연주에서도 독일 음악의 적통에 어울리는 엄격한 구성력 위에 우수에 휩싸인 브람스 특유의 서정을 풍부하게 재현하고 있다. 1960년과 그 이듬해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흑백 화면이지만 음질을 양호하다.

Accentus DVD

www.accent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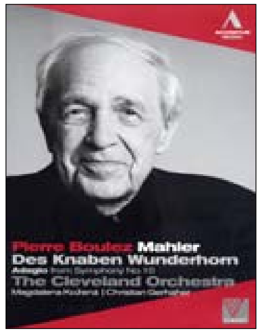
ACC 20215

2010년 노벨상 기념 콘서트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8번조슈아 벨(vn)/
사카리 오라모/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슈아 벨이 독주자로 나선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스톡홀름 콘체르트하우스에서 펼쳐지는 노벨상 연주회는 이제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는 하나의 훌륭한 이벤트로 정착하였다. 본 영상물은 2010년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연주회를 신흥 클래식 영상물의 명가 Accentus가 자랑하는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수록한 것이다. 베토벤의 당당한 레오노레 3번 서곡으로 시작된 본 콘서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조슈아 벨이 독주자로 나선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에서 정점을 이룬다. 혼신의 열정을 담은 그의 열연은 이 협주곡이 요구하는 현란한 기교와 섬세한 서정을 조화롭게 만족시킨다.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사카리 오라모는 자신의 장기인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으로 이 특별한 연주회를 화려하게 마감한다. 북구의 신비와 우아한 서정, 그리고 영웅적인 호방함을 겸비한 이 걸작은 시벨리우스 본인이 가장 아꼈던 작품의 하나로, 오라모의 장려한 연출과 로얄 스톡홀름 필의 정성스런 연주는 이 작품의 위용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ACC 20231

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막달레나 코체나(ms)/ 크리스티안 게르하허(br)/ 피에르 불레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피에르 불레즈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실황

피에르 불레즈는 지휘와 작곡 양 분야 모두에서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시대의 거장이다. 특히 그의 분석적이고도 이지적인 말러는 많은 말러리안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2월 세브란스 홀에서는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불레즈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펼쳐졌다. 말러 최후의 작품인 교향곡 10번 중의 아다지오와 말러의 초기 교향곡들에 대한 지침서와도 같은 중요작인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가 연주된 이 콘서트의 실황은 앞서 DG를 통해 CD로 출시되어 크게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제 Accentus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화면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간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사운드가 빛나는 '아다지오'는 물론,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막달리나 코체나와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함께 노래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도 거장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자신의 말러관에 대한 불레즈의 인터뷰와 연주자들과 관객들 모두가 입을 모아 불레즈의 생일을 축하하는 훈훈한 장면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ACC 20224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 슈체드린: 로맨틱 오퍼링
프랑크: 첼로소나타 / 드보르작: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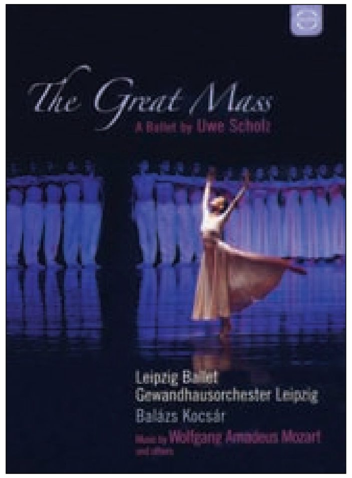
마르타 아르헤리치(pf)/ 미샤 마이스키(vc)/ 네메 예르비/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프랑크의 첼로소나타

2011년 2월 루체른의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샤 마이스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함께 쌓아왔던 깊은 음악적 교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카야의 남편이자 비제의 원작을 편곡한 '카르멘 모음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인 로디온 슈체드린이 이들 두 아티스트에게 헌정한 최신작인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로맨틱 오퍼링'이 바로 이날 콘서트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이들 두 거장을 서포트한 네메 예르비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작의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으로 이 콘서트의 처음과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관현악 콘서트 중간에 마련된 아르헤리치와 마이스키 두 사람만의 이중주무대다. 프랑크의 첼로소나타(바이올린소나타의 편곡)를 통해 두 거장이 펼쳐 보이는 따뜻한 교감이 큰 감동을 만들어낸다.

EuroArts DVD

www.euroarts.com



EuroArts DVD 2054608

우베 숄츠 '모차르트 대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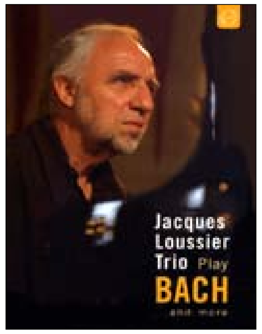
재일교포 발레리나와 재독 소프라노가 주역으로 나선 추모공연

2005년 6월,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대미사'(K.427)가 발레로 공연되었다. 반년 전에 작고한 동 발레단의 예술감독 우베 숄츠(1958~2004)를 기리는 무대였다. 당시 두 한국인 예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만년의 우베 숄츠가 가장 총애한 뮤즈였던 라이프치히 발레의 간판스타 기무라 쿄코는 이정숙이란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재일교포로 이 공연에서도 무대를 지배한다. 또 라이프치히 오페라 소속의 소프라노 유은희가 모차르트 대미사를 노래하는 제 1 소프라노로 나섰다. 워낙 병약했던 탓에 일찍 세상을 떠난 우베 숄츠는 지휘자를 꿈꾸었을 만큼 음악적 감수성이 빼어난 천재였으며 특히 20세기 안무가 중에서 대규모 군무를 구성하는데 최고로 불린 인물이다. 1998년에 초연된 이 발레에 그 특징이 잘 살아있다. 특히 마지막 '아뉴스 데이'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단원들이 춤을 그만 두고 바닥에 앉아 숄츠를 추억하는 장면은 형언할 수 없이 감동적이다.

[보조자료]

○ 우베 숄츠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신동의 재능을 발휘했으나 춤의 표현 방식에 관심을 갖고 13살에 드라마 발레의 개척자 존 크랑코가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발레학교에 입학한다. 불과 한 달 만에 크랑코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크랑코의 뮤즈이자 이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마르시아 하이데가 그의 멘토가 된다. 숄츠는 취리히 발레(1985~1991), 라이프치히 발레(1991~2004)의 예술감독을 지내면서 그가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과 춤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외모만 보아도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병약했던 숄츠는 오랜 투병 끝에 2004년 11월, 비극적인 샘을 마감했다. 그는 모차르트를 특별히 사랑했으며, 그 자신이 '20세기 발레의 모차르트'로 불려도 좋을만한 인물이었다.

○ 이 작품에 쓰인 음악은 모차르트의 '대미사'가 주축이지만 그 외에도 많다. 시작은 서양음악의 출발점이라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이용했고 모차르트의 '아다지오와 푸가 c단조', '아베 베룸 코르푸스', 그리고 옛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 현대작곡가들인 죄르지 쿠르탁(1926~), 토마스 얀(1940~), 아르보 패르트(1935~)의 작품 중에서 발췌했다. 유태계 독일작가 파울 셀란(1920~1970)의 시도 인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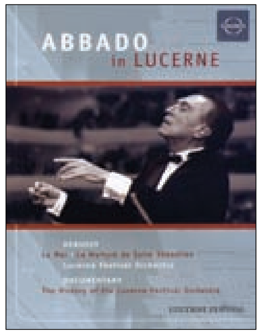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4068

자크 루시에 트리오의 바흐 and more

자크 루시에의 바흐, 정통 클래식 음악에 더해진 즉흥연주

클래식을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제법 많지만 프랑스의 자크 루시에(1934~)만큼 오랫동안 인정받은 경우는 드물다. 그는 1959년(26세)부터 재즈 트리오로 일련의 바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1970년대 후반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바흐 탄생 300주년인 1985년에 새 멤버를 맞이하면서 바흐를 넘어 다른 클래식 작곡가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원곡의 핵심을 놓치지 않되 점점 클래식 음악에서 배제되어 온 즉흥연주를 재즈 특유의 기법으로 살려내는 것이 자크 루시에의 가장 큰 매력이다. 1997년부터 현재 멤버인 앙드레 아르피노(드럼), 베노이트 뒤노아 드 세공작(베이스)으로 고정되었는데, 이 영상물은 바흐가 봉직했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2004년 여름에 열린 실황으로 이들이 자주 연주하는 바흐의 푸가, 가보트, G선상의 아리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5번은 물론 드뷔시, 사티, 라벨 등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에 다시금 독특한 뉘앙스를 담아냈다.



EuroArts DVD 2053469

루체른의 아바도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윈-윈 스토리카라얀 사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2002년 스스로 이 영광스런 자리를 그만두고 루체른 페스티벌에 매진하기로 한다. 어렵게 위암을 이겨낸 후의 새 출발이었다. 1938년부터 시작된 루체른 페스티벌은 오랫동안 스위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란 자체 악단을 운영하다가 연주력 문제로 1993년에 해체했는데, 아바도는 자신의 실력과 인품을 보고 몰려든 세계 최고의 연주가들로 2003년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창단하게 된다. 물론 여름에만 운영되는 악단이다. 본 영상물은 수많은 세계적 지휘자들이 거친 스위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영욕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창단에 얽힌 다큐멘터리를 51분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첫 해에 아름다운 첨단 공연장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에서 있었던 드뷔시 갈라 콘서트로 〈성 세바스탄의 순교〉, 〈바다〉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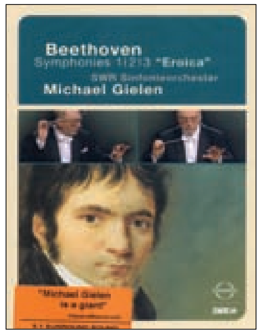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1888

말러: 대지의 노래 + 발트라우트 마이어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발트라우트 마이어(ms)/ 토르스텐 케를(te)/ 세묜 비슈코프/ 쾰른 WDR 방송교향악단

우리시대의 위대한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노래하는 '대지의 노래'

독일 출신의 거물급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에 관한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와 그가 독창을 맡은 말러의 '대지의 노래'를 함께 수록한 영상물. 〈파르지팔〉 중의 쿤드리로 1984년에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마이어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대 최고의 바그너 히로인의 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본 다큐멘터리는 레오노레, 암네리스, 지글린데, 쿤드리 이졸데 등등을 비롯한 그간 마이어가 맡았던 주요 오페라 배역들을 테마로 이 가수의 폭넓은 음악세계와 무대 뒤 일상에서의 여러 모습들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대지의 노래'는 2001년 쾰른의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세묜 비슈코프가 지휘하는 WDR 방송교향악단이 반주를 맡았다. 풍부한 표정을 머금은 마이어의 노래와 더불어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헬덴 테너 토르스텐 케를의 열창 또한 대작의 감동을 배가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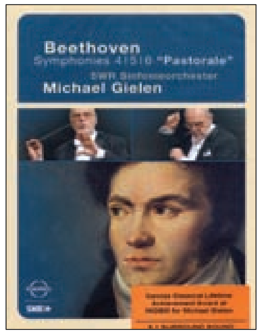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0609

베토벤: 교향곡 1,2,3번

미카엘 길렌/ SWR 방송교향악단

미카엘 길렌의 이지적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만나다

과거 라이선스 전집 Box로 국내에 소개되었던 미카엘 길렌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가 낱장의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져왔던 미카엘 길렌은 이지적이고도 절제된 심미안을 통해 베토벤 교향곡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는데, 본 DVD에 수록된 실황연주들 역시 이러한 지휘자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2000년 전후에 녹화된 영상들인 관계로 4:3의 화면비율에 화질도 최근 기준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운드 측면에서는 특별한 불만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길렌의 가장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인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으로 교향곡 1번과 3번은 2000년 2월 바덴바덴의 페스트필하우스, 교향곡 2번은 1998년 6월 프라이부르크의 콘체르트하우스에서의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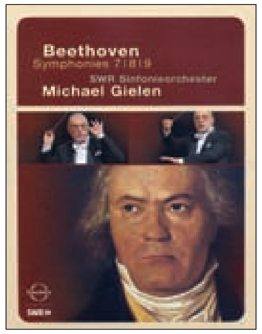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0639

베토벤: 교향곡 4,5,6번

미카엘 길렌/ SWR 방송교향악단

미카엘 길렌의 이지적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만나다

과거 라이선스 전집 Box로 국내에 소개되었던 미카엘 길렌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가 낱장의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져왔던 미카엘 길렌은 이지적이고도 절제된 심미안을 통해 베토벤 교향곡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는데, 본 DVD에 수록된 실황연주들 역시 이러한 지휘자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2000년 전후에 녹화된 영상들인 관계로 4:3의 화면비율에 화질도 최근 기준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운드 측면에서는 특별한 불만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길렌의 가장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인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라이부르크 콘체르트하우스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황들로 교향곡 5번과 6번은 1997년 12월, 교향곡 4번은 2000년 1월의 기록들이다.



EuroArts DVD 2050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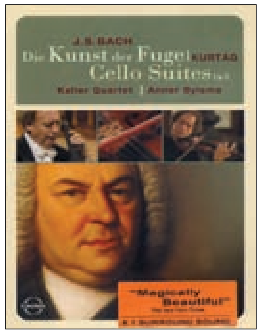
베토벤: 교향곡 7,8,9번

레나테 베흘(sop)/ 이본 나에프(ms)/ 글렌 윈슬레이드(te)/ 한노 뮐러-브라흐만(bass)/ 베를린 방송합창단/ 미카엘 길렌/ SWR 방송교향악단

미카엘 길렌의 이지적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만나다

과거 라이선스 전집 Box로 국내에 소개되었던 미카엘 길렌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가 낱장의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져왔던 미카엘 길렌은 이지적이고도 절제된 심미안을 통해 베토벤 교향곡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는데, 본 DVD에 수록된 실황연주들 역시 이러한 지휘자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2000년 전후에 녹화된 영상들인 관계로 4:3의 화면비율에 화질도 최근 기준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운드 측면에서는 특별한 불만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길렌의 가장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인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라이부르크 콘체르트하우스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황들로 1998년 6월(7번), 1999년 7월(8번), 2000년 1월(9번)의 기록들이다.

바흐 〈푸가의 기법〉 외



EuroArts DVD 2050759

독일 바로크 음악의 결정체 〈푸가의 기법〉이 현대의 쿠르탁과 만나다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원 출신으로 구성된 켈레르 콰르텟은 1990년 두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국제적인 현악사중주단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헝가리 현대작곡가 죄르지 쿠르탁(1926~)의 탁월한 해석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쿠르탁은 20세기 작곡가 중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바흐의 곡을 편곡하여 직접 연주할 정도로 말이다. 켈레르 콰르텟은 바흐의 유작이자 푸가와 카논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푸가의 기법〉을 연주하면서 쿠르탁과 연결시키기로 했다. 14개의 푸가와 4곡의 카논으로 남겨진 〈푸가의 기법〉을 다 연주하지 않는 대신 곡 중간에 쿠르탁의 다양한 소품을 삽입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어 두 대가 간의 정서와 기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보도록 한 것이다. 덤으로 실린 바로크 첼로의 거장 안너 빌스마가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제1번과 제5번은 또 하나의 진수성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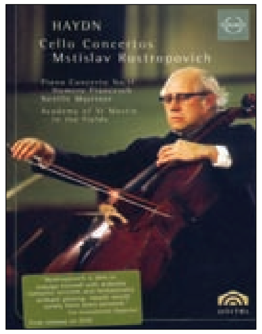
바흐: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EuroArts DVD 2050316

이 곡의 산실 쾨텐 궁에서 연주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바흐는 쾨텐의 궁정악단에 봉직한 시절에 이탈리아 콘체르토를 모방한 곡들을 썼다. 그 대표작이 6곡의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다. 그러나 내용까지 모방한 것은 아니어서 콘체르토 그로소 형태에 의한 2번, 4번, 5번은 독주 그룹과 현악 합주의 화려한 협주로, 3번, 6번은 합주부로만 연주하며, 1번은 급-완-급의 3악장 뒤에 미뉴엣 악장이 계속된다. 이처럼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란 콘체르타토 원리, 즉 악기군 끼리 경쟁한다는 당시 기악의 일반 원리에 의한 곡으로서 근대적인 협주곡의 의미와는 다르다. 특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로크 기악의 집대성이자 오늘날까지 그 신선함을 잃지 않았다.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 당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최근의 풍조인데, 세계 최고의 바로크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이 영상물은 특별히 바흐가 봉직한 쾨텐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궁전에서 연주된 것이 또하나의 매력이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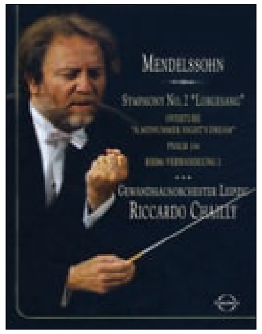


EuroArts DVD 2072068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가 연주한 첼로 협주곡의 고전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는 파블로 카잘스 이래 가장 중요한 첼리스트이자 뛰어난 지휘자요, 정치적으로는 소비에트에 반기를 든 반체제 인사이기도 했다. 그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두 곡을 연주한다. 1975년 런던의 헨리 우드 홀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로스트로포비치는 직접 지휘도 맡았다.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치의 궁정악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적어도 5곡 이상의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그의 곡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곡이다. 1760년대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1번은 1961년에야 악보가 처음 발견되었고, 원숙기인 1783년에 작곡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제2번은 오랫동안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받다가 하이든의 자필 악보가 발견되어 논란을 잠재웠다. 오늘날 이 두 곡은 하이든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명작으로 통한다. 한편 하이든은 피아노 협주곡도 많이 남겼는데, 그중 대표작인 제11번을 오메로 프란세슈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 모차르트 못지않은 질서정연한 구성미가 일품이다.

멘델스존: 교향곡 제2번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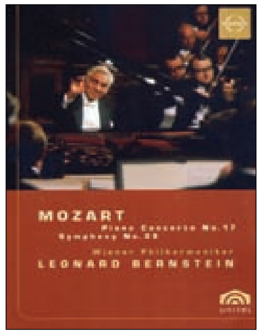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4668

리카르도 샤이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8년 이후 유럽 평론가들은 세계 최고 악단으로 베를린 필이나 빈 필에 앞서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를 꼽는다. 그 최대의 공로자는 1988년부터 16년간 이 악단을 이끌면서 말러, 브루크너, 브람스 등 정통 독일 음악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은 이탈리아 출신의 리카르도 샤이(1953~)일 것이다. 상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샤이는 계관지휘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는 2005년 8월부터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맡아 그 화려한 전통에 비해 다소 침체되었던 동 악단을 환골탈태시키는 중이다. 그 성과는 2011년 3월의 내한 연주회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곡을 주로 다룬 본 영상물은 샤이가 라이프치히에 부임한 직후인 2005년 9월 실황이다. 멘델스존은 1840년대에 동 악단에서 활약하면서 근대적 지휘자의 모델을 제시했으니 샤이가 지향하는 롤 모델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모차르트: 교향곡과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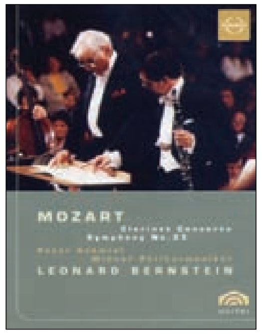


EuroArts DVD 2072098

번스타인의 본격적인 피아노 솜씨, 들어보셨나요?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은 지휘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20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의 한 사람이요, 동시에 작가이자 명강사, 그리고 피아니스트였다.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 셜리와 함께 오페라 전곡이나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을 정도로 피아노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지휘자로 워낙 바쁜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치는 솜씨는 보기 어려웠는데, 이 영상물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17번을 연주하고 있다. 모차르트가 자작자연으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까지 소화했던 곡이니 번스타인에게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더불어 모차르트의 걸작인 제39번 E플랫장조를 지휘한다. 번스타인이 지휘하자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의 웅장하고 구축적인 측면이 한층 잘 드러나고 있다. 악단은 둘 다 모두 번스타인이 유럽 악단 중에 가장 자주 지휘했던 빈 필이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EuroArts DVD 2072088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아마데우스〉로 기억되는 두 명곡

모차르트 음악은 수많은 영화에 등장하는데 그중 밀로스 포먼의 〈아마데우스〉와 시드니 폴락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데우스〉에서는 모차르트의 여러 음악이 등장하지만 교향곡 제25번의 1악장은 늙은 살리에리가 자해를 시도하면서 시작되는 오프닝 크레딧에 연주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8세기 후반 당시의 교향곡으로는 무척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곡은 바즈 루어만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사용되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아예 이런 홍보문구를 내세웠다. "광활한 초원이 이름답게 펼쳐진 아프리카,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경비행기, 그리고 모차르트의 로맨틱한 선율!" 여기서 로맨틱한 선율이란 클라리넷 협주곡의 2악장을 말한다. 모차르트가 죽기 2개월 전에 작곡한 곡으로 음역을 넘나드는 풍성한 정감이 일품이다. 번스타인으로서도 만년인 1987년과 1988년의 기록이다. 클라리넷 독주는 빈 필의 수석이었던 페테르 슈미들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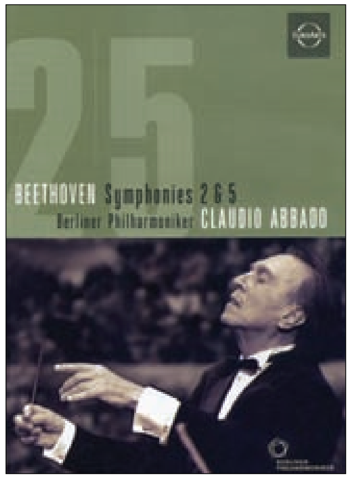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1138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9번 '합창'

카리타 마틸라(sop)/ 비올레타 우르마나(ms)/ 토마스 모저(te)/ 아이케 빌름 슐테(bass)/ 스웨덴 방송합창단/ 에릭 에릭손 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닉

클래식 콘서트 DVD의 영원한 레퍼런스인 아바도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는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아이템들이다. 과거 전집 박스로 국내에 수입되었던 이 아이템들이 낱장으로 다시 수입되었다. 2000년 위암진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확인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실황들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의 연주들이 한층 더 뛰어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3,5,6,7번의 경우는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만을 담은 형태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앵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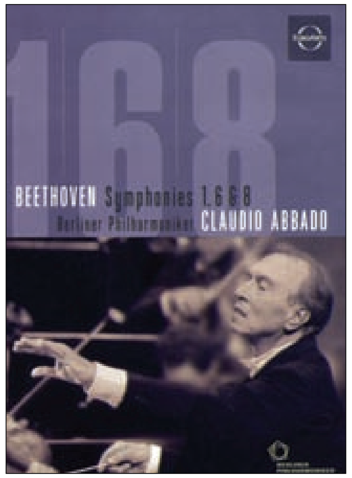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1158

베토벤: 교향곡 2번, 교향곡 5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닉

클래식 콘서트 DVD의 영원한 레퍼런스인 아바도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는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아이템들이다. 과거 전집 박스로 국내에 수입되었던 이 아이템들이 낱장으로 다시 수입되었다. 2000년 위암진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확인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실황들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의 연주들이 한층 더 뛰어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3,5,6,7번의 경우는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만을 담은 형태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앵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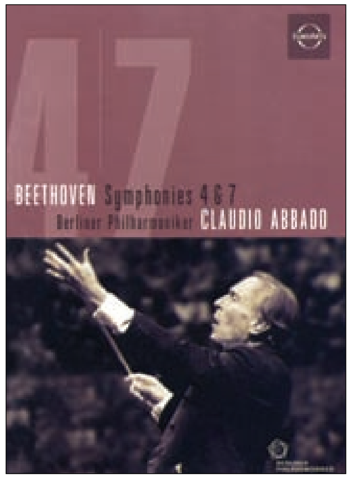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1168

베토벤: 교향곡 1번,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 8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닉

클래식 콘서트 DVD의 영원한 레퍼런스인 아바도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는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아이템들이다. 과거 전집 박스로 국내에 수입되었던 이 아이템들이 낱장으로 다시 수입되었다. 2000년 위암진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확인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실황들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의 연주들이 한층 더 뛰어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3,5,6,7번의 경우는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만을 담은 형태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앵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uroArts DVD 2051178

베토벤: 교향곡 4번, 교향곡 7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닉

클래식 콘서트 DVD의 영원한 레퍼런스인 아바도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는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아이템들이다. 과거 전집 박스로 국내에 수입되었던 이 아이템들이 낱장으로 다시 수입되었다. 2000년 위암진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확인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실황들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의 연주들이 한층 더 뛰어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3,5,6,7번의 경우는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만을 담은 형태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앵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DVD 705708
[2DVDs]

헨델: 테오도라

크리스틴 섀퍼(테오도라)/ 베준 메타(디디무스)/ 요제프 카이저(세티미우스)/ 베르나르다 핑크(이레네)/ 요하네스 마르틴 크랜츨(발렌스)/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이버 볼튼/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오페라로 멋지게 변신한 헨델 만년의 걸작 오라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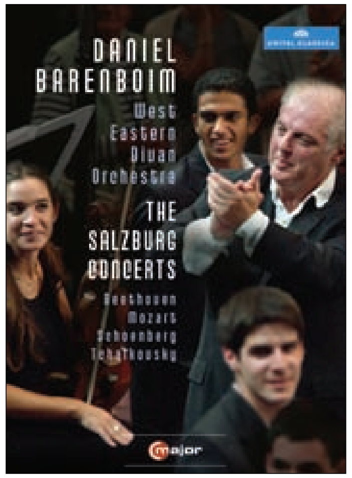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안티오크의 성녀를 소재로 한 '테오도라'는 1750년 3월에 초연된 영어 오라토리오다. 헨델 스스로는 이 작품에 큰 자부심을 가졌지만,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못했다. 결국 불과 3회만 공연된 이후 세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닥친 바로크음악 붐과 더불어 이 작품 역시도 새롭게 평가되었고, 이제는 만년의 풍부한 음악적 노하우가 응집된 헨델의 가장 완성도 높은 오라토리오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의 짜임새 있는 스토리 전개에 주목하여 오페라의 형태로 공연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1996년 글라인드본에서 공연된 괴짜 연출가 피터 셀라스의 프로덕션이 유명하지만, 본 영상물에 수록된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역시 그에 버금가는 뛰어난 무대를 자랑한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카운터테너의 한 사람인 베준 메타와 크리스티안 섀퍼, 베르나르다 핑크가 합세한 화려한 캐스팅,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탄탄한 반주가 크리스토프 로이의 세련된 연출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보조자료]

○ 헨델은 1749년 6월부터 '테오도라'의 작곡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에 이를 완성하였다. 초연은 이듬해 3월 16일 코벤트가든에서 이었다. 당시 헨델의 나이는 65세였다. 이 작품 이후 헨델은 죽기 전까지 3편의 오라토리오(헤라클레스의 선택, 입다, 시간과 진리의 승리)를 더 완성하였다. 앞서 몇 편의 오라토리오 리브레토를 헨델에게 제공했었던 토마스 모렐이 정리한 영어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으로, 전체 3막으로 구성되었다. 헨델은 2막을 마무리하는 합창곡 'He saw the lovely youth'가 '메시아'중의 '할렐루야'보다 더 훌륭하다고 밝혔을 정도로 이 작품을 아꼈다.

○ 극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 안티오크의 포악한 총독 발렌스는 기독교도들을 탄압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인물이었던 테오도라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체포되어 매춘을 강요받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 테오도라를 체포했던 로마의 병사 디디무스는 테오도라의 숭고한 모습에 감화되어 그녀를 탈옥시키고 자신이 대신 옥에 갇힌다. 테오도라는 공동체로 무사 귀환하지만, 디디무스가 처형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제 발로 발렌스의 앞에 나간다. 발렌스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둘은 천국에서의 결합을 소망하며 담담하게 마지막 숨을 거둔다.

○ 본 영상에서 남자주인공 배역인 디디무스를 노래한 이는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카운터테너의 한 사람인 베준 메타(Bejun Mehta)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 지휘자 주빈 메타와 인척관계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빈 메타가 오촌당숙이 된다.(베준 마타의 아버지가 주빈 메타의 사촌이다.) 소년시절부터 보이소프라노로 활약했으며, 변성기 이후에는 첼로를 배웠다. 또한 레코딩 프로듀서로도 활약했는데, 그가 프로듀싱한 야노스 스타커의 두 번째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음반은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 뉴욕 시티 오페라에서 헨델의 오페라 파르테노페로 데뷔한 이래,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메트, 코벤트가든, 파리 오페라, 베를린 슈타츠오퍼 등의 일급 오페라 극장들과 잘츠부르크, 베르비에르, 글라인드본, 액상프로뱅스 등의 유명 음악축제들을 바쁘게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C-Major DVD 706608

[2011년 8월 10일-15, 내한공연을 갖는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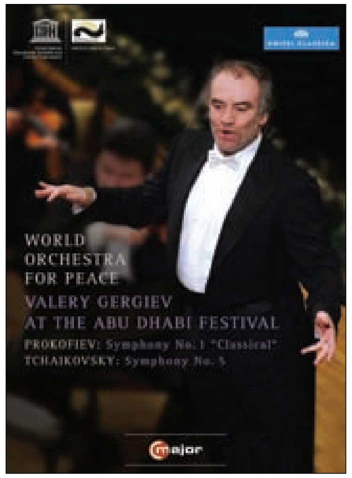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2007년 잘츠부르크 콘서트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쇤베르크: 관현악변주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 보너스 –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로소 K.297b)

다니엘 바렌보임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종교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음악의 위대함을 보여주다

서동시집(West Eastern Divan)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꿈꿨던 유태계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지성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1999년에 창단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학도들이 음악과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다. 이들은 두 민족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바렌보임의 헌신적인 조련을 통해서 음악적으로도 정상급 기성 오케스트라들에 뒤지지 않는 빼어난 성과들을 만들어왔다. 이들은 올여름 우리나라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빅 프로젝트를 선사할 예정이기에, 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본 영상은 2007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탄탄한 양식미가 빛나는 베토벤의 서곡, 복잡다단한 악곡 구조가 거침없이 전개된 쇤베르크, 작곡가 특유의 로맨틱한 서정을 훌륭히 표현한 차이코프스키를 통해 이들의 뛰어난 음악적 성과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 유대인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1999년 이스라엘 및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권 출신 젊은 연주자들을 불러모아 만들었으며, 괴테의 시집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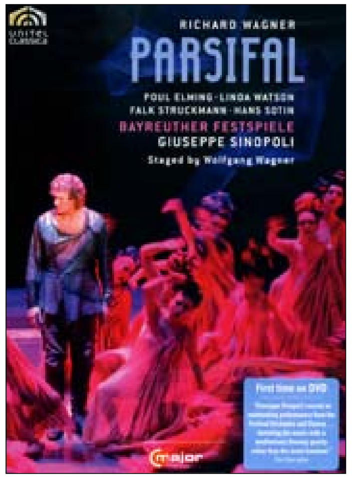
C-Major DVD 707008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1년 아부다비 콘서트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고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발레리 게르기에프/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게르기에프가 지휘한 프로코피에프와 차이코프스키의 대표 교향곡들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는 세계 각지 50여 개국의 100여개 이상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1995년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의 유지를 받들어서 결성된 비상설 오케스트라이다. 솔티의 사후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금까지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인류의 화합을 실천하고 있는 이 특별한 단체는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Artists for Peace'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본 영상은 2011년 1월에 있었던 아부다비 페스티벌 기간 중의 실황으로, 로시니의 '윌리엄 텔'서곡과 프로코피에프의 고전교향곡,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이라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C Major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화면과 함께 펼쳐진다. 게르기에프의 열정적인 지휘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로부터 차출된 일급 뮤지션들의 기민하고도 강력한 연주는 수록곡들의 매력을 한껏 드높이며, 앙코르로 연주된 트리치-트라치 폴카의 발랄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15년 역사를 담은 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C-Major DVD 705908
[2DVDs]

바그너: 파르지팔

바그너의 친손자와 시노폴리가 펼쳐내는 4시간 40분의 신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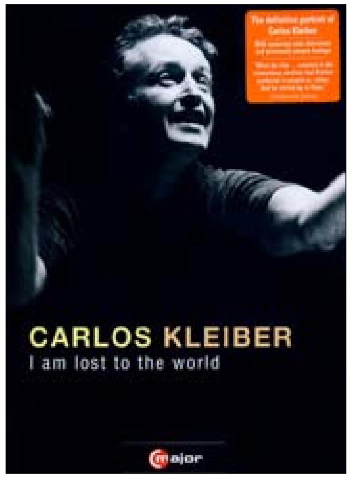
〈파르지팔〉은 바그너 최후의 작품으로 작곡자가 특별히 '종교적 신성극(神聖劇)'이라 부르며 가장 큰 애착을 표시했다. 또 자신의 성지나 다름없는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바그너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순수 공연시간만 4시간이 훨씬 넘는데도 바그너 애호가들이 가장 중독성 강한 명작으로 꼽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본 영상물은 바그너의 친손자 볼프강 바그너가 연출하고 이 오페라를 가장 깊이 이해했다는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여 "악보에 빛을 비추었다"는 찬사를 받은 1998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기록이다. 과연 간결한 무대와 그 효과적인 전환, 색감 뛰어난 조명은 바그너의 의도를 완벽히 살려냈으며 음악은 시종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포울 엘밍(파르지팔), 린다 왓슨(쿤드리), 팔크 슈트루크만(암포르타스), 한스 소틴(구르네만츠)으로 구성된 성악진용도 역대 최강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보조자료]

ㅇ 중세 신화에서 파르지팔이란 성배를 지키는 왕의 이름이다. 그는 철없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긴 여행과정에서 영웅성을 획득하여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바그너는 이 파르지팔 신화에 특유의 상상력과 논리성을 가미하여 대단히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물론 대본을 바그너가 직접 썼다.

ㅇ 바그너는 이 작품을 이전의 음악극과 구별하여 '종교적 신성극'이라 불렀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에 종교의 이름을 빌린 기만이라는 반발도 있다. 처음에 바그너를 추종했던 니체같은 이는 "바이로이트 극장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부르주아 앞에 엎드려 아부하는 꼴'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이전의 바그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진지한 작품이다.

ㅇ 여하간 〈파르지팔〉은 바그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최후의 과제로 남겨둘 만큼 어려운 작품이다. 4시간이 넘게 소요되지만 거의 단 한 번도 멋지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배제한 채 지극히 장중하고, 신비롭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라서 음악적 해석이나 무대의 구현도 작품의 주제인 '구원'의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C-Major DVD 705608

카를로스 클라이버 :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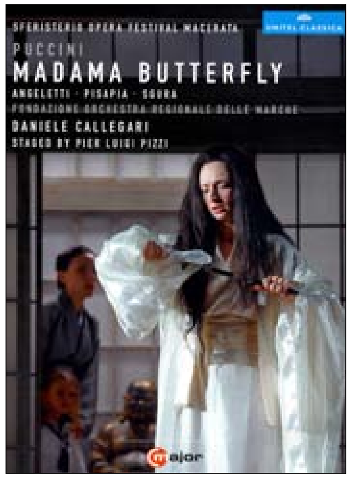
가장 위대했으나 스스로 세상에서 잊혀져간 지휘자에 대한 탐구인간으로서나, 음악가로서나 카를로스 클라이버(1930~2004)의 면면은 베일에 싸여있다. 카라얀처럼 음악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았고, 특정한 단체에 얽매이기 싫어했으며, 마음이 내켜야 지휘할 수 있는, 그러나 일단 지휘대에 서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감동을 이끌어내는 존재가 클라이버였다. 클라이버는 여전히 절정의 커리어에 있던 60세 이후에는 스스로 지휘 활동을 중단하다시피하고 은둔자처럼 여생을 보냈다. 뒤셀도르프에서 지휘자로 일하던 때에 만난 슬로베니아 출신의 발레리나 아내와 해로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6개월 만에 우리 곁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변변한 인터뷰조차 기피했던 그의 특별한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 리카르도 무티, 오토 쉔크, 요안 홀랜더 등 그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협력자, 친구들의 인터뷰에 나섰다.

[보조자료]

ㅇ "그에게 있어서 지휘란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는 뭔가 지독하게 깊숙한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지휘해야하는 음악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곤 했는데,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의 회고)

ㅇ 최근 영국의 음악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이 현역 지휘자 100명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휘자 3명을 선정해 달라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위 카를로스 클라이버, 2위 레너드 번스타인, 3위 클라우디오 아바도, 4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5위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최상위에 올랐다. 특히 공연회수가 많지 않았고 레퍼토리의 폭도 결코 넓지 않았던 클라이버가 1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잡지는 평가했는데, 늘 주술적인 흡인력으로 음악적인 본질을 끄집어낼 줄 알았던 클라이버의 면모를 후배 지휘자들이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ㅇ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대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와 미국 출신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신과는 복잡 미묘한 관계였던 부친의 사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겉으로는 늘 웃음을 지었으나 내면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남자였다. 바람기가 많았으나 발레리나 출신의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했고, 그녀가 먼저 죽자 삶의 마지막 의욕을 잃었다. 최후를 맞이한 슬로베니아 역시 아내의 조국이다.



C-Major DVD 706208

푸치니: 나비부인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라파엘라 안젤레티(초초상)/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핀커튼)/ 아눈치아타 베스트리(스즈키)/ 클라우디오 스구라(샤플레스) 외/ 다니엘레 칼레가리/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레지오날레 델레 마르케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하는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최신 나비부인 프로덕션

중부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 축제가 펼쳐진다. 이 도시의 명물인 옥외경기장 스페리스테리오에서 펼쳐지는 이 오페라 축제는 베로나 아레나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축제로 손꼽힌다. 이 오페라축제의 예술감독이자 우리에게도 낯익은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피치가 2009년에 선보였던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특히 수입완제품으로 선보이는 본 영상물은 C Major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기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최신의 오페라 영상을 즐기지 못했던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의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이다. ForumOpera.com으로부터 우리시대의 가장 뛰어난 나비부인의 하나로 호평을 받은 라파엘라 안젤레티가 타이틀롤을 열연하였고, 본고장의 실력파 가수들인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와 클라우디오 스구라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다. 피치의 무대는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이며, 3막 전주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인무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조자료]

○ 2008년의 〈리날도〉를 시작으로 〈라 트라비아타〉와 〈토스카〉를 연이어 국내무대에 올리면서 우리 오페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친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1930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이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연극과 오페라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출뿐만 아니라 무대미술과 의상디자인도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라 스칼라, 라 페니체 극장, 메트, 바스티유 등의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들을 오가며 500여 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왔다. 피치는 2005년부터 마체라타의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 중동부 이탈리아의 도시 마체라타에는 19세기 초반에 건축된 반원형의 옥외 구기경기장인 스페리스테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 원래 팔로네라는 일종의 핸드볼 경기를 관람하기위해 지어진 건물이지만, 현재는 매년 여름마다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의 전당으로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1921년 베르디의 〈아이다〉로 시작된 이 오페라축제는 베로나의 아레나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이벤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09년의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던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C-Major DVD 706008
[2DVDs]

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랜스 라이언(에네)/ 다니엘라 바르첼로나(디동)/ 엘리자베트 마토스(카상드르)/ 가브리엘레 비비아니(코레브)/ 조르조 주네피니(팡테)/ 스티븐 밀링(나르발)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오르케스트라 라 코무니타트 발렌시아나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한 베를리오즈의 대작 오페라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가장 방대한 규모의 오페라라고 하면 마이어베어 풍의 프랑스 그랜드오페라와 바그너의 악곡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던 괴작이 있었으니 바로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오페라는 트로이의 폐망을 다룬 1부와 탈출한 에네(에네아스)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동(디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2부로 구성된다. 본 영상물은 아크로바틱 서커스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무대미술과 의상을 동원하여 '21세기의 링'을 창조했던 발렌시아의 스탭들이 2009년에 다시금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완성한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 풍부한 무대와 기상천외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진정한 종합예술의 묘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거장 게르기에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스케일의 음악도 나무랄 곳이 없다. C major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담은 본 영상물은 이 장편 오페라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보조자료]

○ 엑토르 베를리오즈(1803~69) 최고의 오페라라 할 수 있는 〈트로이 사람들〉은 1856년부터 1863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그러나 워낙 대작이기에 베를리오즈 생전에는 제2부에 해당하는 '카르타고의 트로이 사람들'만 상연되었다. 전곡이 초연된 것은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지 21년 후인 1890년이다. 4시간이 넘는 긴 연주시간과 많은 수의 출연진을 요구하는 거작인 관계로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았던 작품이지만, 현재는 바그너 오페라를 능가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오페라로서 그 역사성과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여러 유명 오페라하우스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이 오페라의 제1부는 그리스 군대가 거대한 목마를 남겨 놓고 철군한 트로이가 배경이다. 예언의 능력을 지닌 카산드르는 불길한 예감을 군중들에게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한다. 한편 영웅 에네(에네아스)는 엑토르의 망령으로부터 트로이를 탈출하여 이탈리아에 가서 강성한 제국을 만들라는 계시를 받는다.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대에 의해 온 시가지가 불타는 가운데 왕궁의 여인들은 그리스 군대의 능욕을 피하고자 자결을 택한다.

○ 제2부는 항해 중에 조난당해 카르타고에 도착한 에네와 카르타고의 아름다운 여왕 디동(디도)의 사랑을 그린다. 에네는 위협에 처한 카르타고를 구하고 디동의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하지만 이탈리아로 향할 것을 재촉하는 신탁에 따라 카르타고를 떠날 수밖에 없다. 탄식하는 디동은 트로이 함대가 떠나자 화장(火葬)을 위한 제단을 차려놓고 장렬하게 자결한다.

C-Major DVD 706408
[2DVDs]

드보르작: 루살카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크리스틴 오폴라이스(루살카)/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왕자)/ 귄터 그로이스뵈크(물 요괴)/ 나디아 크라스테바(외국 공주)/ 야니나 배클(예치바바) 외/ 토마슈 하누스/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쿠세이가 파격적으로 연출한 드보르작 최고의 오페라를 한글자막으로 만나다

드보르작은 오페라에도 상당한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현악이나 실내악에 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예외적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주의 계열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에 속하는 '루살카' 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물의 요정이 인간의 육체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마무리된다는 이 오페라의 줄거리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 와도 매우 유사하다. 1막에서 루살카가 부르는 '달의 노래' 가 너무나 유명하며, 세 명의 나무요정과 물의 요괴가 펼치는 오페라의 서두는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의 도입부를 연상케 한다. 내놓는 작품들 마다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제의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혐오스러울 정도의 시각적 충격을 통해 자연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세계의 폭력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해내었다. 타이틀 롤을 노래한 크리스틴 오폴라이스의 혼신의 열연도 이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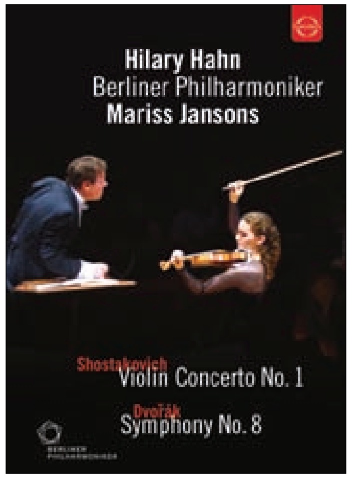
○ 1901년 3월 31일 프라하에서 초연된 '루살카' 는 드보르작의 오페라뿐만 아니라 국민주의 계열 작곡가들의 여러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손꼽힌다. 자국의 시인 야로슬라브 크바필의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물의 요정에 관한 슬라브신화를 소재로 완성한 카렐 야로미르 에르벤과 보제나 넴코바의 동화를 토대로 완성한 것이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물의 요정에 관한 이야기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래되어왔는데,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역시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다.

○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수의 요정 루살카는 가끔 사냥 중 이 호수를 찾는 이름 모를 왕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인 물의 요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 마녀 예치바바를 찾는다. 인간의 육체를 얻게 되나 그 대가로 목소리를 잃고 만다. 루살카는 왕자와 결합하게 되나, 왕자의 변덕과 이웃나라 공주의 방해로 실연의 상처를 안고 다시 숲으로 돌아온다. 왕자는 다시 루살카를 찾지만 이들의 재회는 비극으로 끝난다.

○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 마틴 쿠세이는 그간 내놓는 작품들마다 농도 높은 선정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파격으로 숱한 논란거리를 만들어왔던 악동 연출가이다. 그의 연출작들 중에서 상당수가 국내에 DVD로 출시되었는데,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부인' (네덜란드 오페라), R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빈 슈타츠오퍼), 슈만의 '게노베바' (취리히 오페라) 그리고 M22 모차르트 오페라 전집에 포함되었던 '돈조반니' 와 '황제 티토의 자비' 가 모두 그의 대표적인 연출작들이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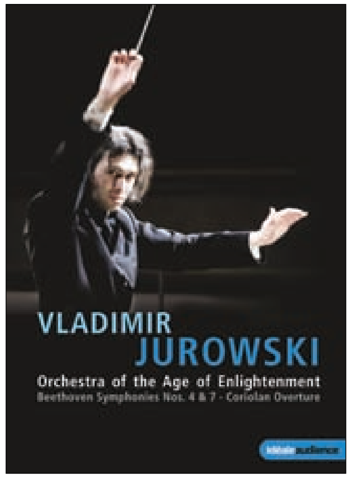
ADVD-021

베를린 필하모닉의 도쿄 산토리 홀 실황
베버: 오베론 서곡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협주곡 1번 / 드보르작: 교향곡 8번

힐러리 한(vn)/
마리스 얀손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의 요정 힐러리 한과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마리스 얀손스의 만남

현재 율리아 피셔, 야이네 얀센과 더불어 젊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트로이카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출신의 힐러리 한은 수차례의 내한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영상은 힐러리 한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졌던 역사적인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2000년 11월 26일 도쿄 산토리 홀에서 있었던 이 콘서트에서 힐러리 한은 쇼스타코비치가 오이스트라흐를 염두에 두고 완성했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무대에 올렸다. 작고 가녀린 체구로 강력한 에너지와 화려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이 난곡에 맞서는 힐러리 한의 당당한 모습과 능란한 연주는 일본 애호가들에게 큰 감흥을 안겨주었다. 드보르작의 3대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미를 자랑하는 교향곡 8번과 오페라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훌륭히 축약해 놓은 베버의 오베론 서곡에서는 얀손스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기량이 빛을 발한다.



ADVD-028

시대악기의 명징한 사운드와 젊은 지휘자의 기백으로 빚어낸
베토벤: 교향곡 4번, 7번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는 영국 음악계를 선도하는 젊은 마에스트로 그룹 중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다. 현재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와 글라인드본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겸하면서 콘서트와 오페라 양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시대악기연주 분야까지 포함하는데,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상임아티스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영상물은 2010년 2월 4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을 담은 것으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의 교향곡 4,7번을 연주했다. 시대악기에 의한 베토벤 교향곡은 의외로 영상물이 많지 않은 편이기에 유롭스키의 생기로운 해석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합주가 결합된 이번 신보가 베토벤 애호가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BS 가 뉴 미디어 매체 사용자를 위한
'KBS Classic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정보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1,000곡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하고,
KBS 1FM 방송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QR 코드 스캔 후, 자동연결
2.http://classic.kbs.co.kr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3.애플 앱스토어, Tstore 에서 'KBS classic Library'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KBS Classic LIBRARY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 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 Berceuse Op.16 (포레 :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 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_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 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NAXOS

DVOŘÁK

쿠세이가 파격적으로 연출한 드보르작 최고의 오페라

드보르작 '루살카'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크리스틴 오폴라이스(루살카) |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왕자) | 귄터 그로이스뵈크(물 요괴)
나디아 크라스테바(외국 공주) | 야니나 배클(예치바바) 외
토마슈 하누스 |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 * *

드보르작은 오페라에도 상당한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현악이나 실내악에 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예외적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주의 계열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에 속하는 '루살카'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물의 요정이 인간의 육체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마무리된다는 이 오페라의 줄거리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와도 매우 유사하다. 1막에서 루살카가 부르는 '달의 노래'가 너무나 유명하며, 세 명의 나무요정과 물의 요괴가 펼치는 오페라의 서두는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의 도입부를 연상케 한다. 내놓는 작품들 마다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제의 연출가 마르틴 쿠세이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혐오스러울 정도의 시각적 충격을 통해 자연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세계의 폭력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해내었다. 타이틀 롤을 노래한 크리스틴 오폴라이스의 혼신의 열연도 이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표지사진
글렌굴드, 끝나지 않은 신화

〈아울로스뉴스〉 2011년 7월호
통권 제 48, 49호 발행 : 2011년 8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